

Dokdo, The Island in the East Sea of Korea

동해의 푸른 섬, 독도展

2013. 07.15(월) ▶ 2013.08.24(토)

삼척문화예술회관

July 15, 2013 - August 24, 2013 Samcheok Culture & Art Center

주최 | 교육부, 동북아역사재단, 영남대학교, 삼척시

후원 | 독도영토관리대책단, 강원도교육청, 강원도만일보, 독도박물관,
서울대학교 규장각, 울릉군, (사)한국이사부학회, 한국해양과학기술원



꿈과 끼를 살리는 교육부 정책이야기

행복한 교육

학교체육, 생활을 만나다

교육으로 '독도' 지킨다

진로지도 로드맵, 어떻게 짜야할까



Contents

8 August 2013 | Vol. 373



인천 계산여중(교장 김성수) 핸드볼부 학생들이 학교스포츠클럽 활동을 하며 스포츠의 즐거움을 만끽하고 있다.

기획 I 학교체육, 생활을 만나다

- 04 학교체육의 의미와 기능
- 08 교육부 학교체육 활성화 방안
- 12 여학생에게 친숙한 체육교육 환경 만들기
- 16 운동습관 만드는 신나는 체육 프로그램
- 20 스포츠 활성화로 '학력-인성' 효과 쑥쑥

기획 II 교육으로 '독도' 지킨다

- 46 독도를 말하다
- 48 역사가 말해주는 우리땅 독도
- 52 “독도 우리 손으로 지켜요!”_ 독도지킴이거점학교
- 55 “생활 속으로 스며들어야 진짜 독도교육”_서울 서초고

- 24 삶과 교육 김정제 인천굴현초등학교 교장
- 28 꿈이 영그는 현장 마산 태봉고등학교
- 32 이런 수업 어때요 김태완 교사의 '스토리텔링 수학' 수업
- 36 역사의 책갈피 8월 15일 광복의 그날
- 38 사람향기 이한규 들꽃도서관장
- 39 氣 살리는 생활지도 “공부 1등 친구에게 매사에 열등감을 느끼는데...”
- 40 생활 속 교육심리 경쟁자에게 느끼는 열등의식, 살리에리 증후군
- 42 서남수 장관의 행복한 교육이야기
- 58 함께 여는 행복교육 국립특수교육원
- 62 정책카툰 학업중단 숙려제
- 63 진로나침반 진로지도 로드맵, 어떻게 짜야할까
- 66 직업, 직업인 성우 강수진
- 68 세계 속의 한국교육 태국 방콕한국학교

- 72 학교 · 학급경영노트 친구야, 우리 같이 놀래?

- 76 학교 밖 학교 서대문형무소역사관

- 78 일상의 씬표 푸른 것과 푸른 것 사이, 대관령 목장

- 82 책 속의 블로그

- 85 뉴스브리핑

- 88 독자게시판



24

28

32



68

78

●발행일 2013년 8월 1일 ●발행처 교육부
●발행인 서남수 ●편집인 김문희 ●기획총괄 이강복 · 유상범
●교육부 대변인실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세종로)
정부서울청사 1709호 TEL (02)2100-6579 FAX (02)2100-6585
●행복한 교육 편집실 TEL (02)2271-0992, 0994(제보, 배송)

• 본지에 수록된 기사 · 사진 · 일러스트의 무단 전재 및 복사를 금지합니다.
• 독자 여러분의 제보와 투고를 기다립니다(eduzine21@gmail.com).
• 본지에 수록된 외부 필자의 원고는 교육부의 정책 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기획 I

학교체육, 생활을 만나다

- 학교체육의 의미와 기능
- 교육부 학교체육 활성화 방안
- 여학생에게 친숙한 체육교육 환경 만들기
- 운동습관 만드는 신나는 체육 프로그램
- 스포츠 활성화로 '학력-인성' 효과 쏙쏙

입시 위주의 치열한 경쟁 속에서 바쁜 일과를 보내는 우리 학생들에게 학교체육 활동은 단비와 같다. 학교 안에서 함께 스포츠를 즐기며 몸을 부대끼다 보면, 어느덧 스트레스가 날아가고 몸이 가벼워진다. 함께 경기를 풀어나가는 과정에서 어색했던 친구와도 가까워지고, 학급분위기도 밝아졌다. 페어플레이 정신과 협력, 배려를 경험하면서 인성지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 특히 평생체육의 기틀이 된다는 점에서 학교체육은 중요하다. 교육부는 최근 학교체육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고 체육수업의 내실화를 다지는 한편, 행복한 학교생활의 기초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체육을 기피하는 여학생을 위한 대책도 내놓았다. 학교 안에서 뿌리를 내리고 있는 학교체육 활동들을 들여다봤다.





학교체육의 의미와 기능

학교체육, 긍정적 경쟁의 가치 배운다

글 김선진 서울대 체육교육과 교수

01

수십 년 동안 지속된 경제 성장으로 생활 여건이 나아지면서 모두가 행복한 생활에 대한 기대는 점점 커져온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현실은 생각과는 달리, 생활에 대한 만족감이 더 떨어지는 것을 느끼곤 한다. 학령기 자녀를 둔 가정에서 공통적으로 경험하는 아쉬움이다. 왜 그럴까? 아이들이 즐겁게 생활하며 미래를 준비할 때, 부모들은 어려움도 있고 신바람이 나서 일을 할 수 있을 텐데 자녀의 행복한 생활이 위협받으면서 가정의 행복이 흔들리고 있는 것이다.

우리의 교육환경은 학력 향상이라는 명분으로 청소년들을 치열한 입시 위주의 경쟁 속으로 몰아왔다. 그러나 그 대가로 청소년들이 받는 정신적 신체적 스트레스는 더 많은 사회적 부적응 문제를 일으켜 왔다. 이러한 문제들은 최근 비정상적인 교우관계의 형성을 통해서 나타나는 학교폭력과 청소년 따돌림으로 돌출되고 있다. 특히 인터넷 문화 속에서 신체활동에 대한 기회는 줄어들어 체력은 떨어지고 비만 학생은 늘어나는 등 청소년 건강에 대한 우려가 심화되고 있다.

지·덕·체가 조화로운 기본교육에 충실

성장기에 있는 청소년들에게 무엇이 필요한가? 이 문제의 해결에 비법이 필요한 것이 아니다. 그 동안 청소년 교육환경이 불균형을 초래한 전인교육에 지·덕·체가 조화를 이루는 기본교육으로 충실하게 돌아가는 것이다. 청소년기에는 규칙적으로 운동하고 스포츠 활동에 참여함으로써 신체를 건강하게 만들고 다른 사람과 더불어 협력과 배려의 정신을 배우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 시기에 요구되는 인성적 체험과 더불어 평생을 건강하게 지낼 수 있는 건강습관에 대한 교육은 바로 학교체육에서 그 길을 찾을 수 있다.

2012년 통계청이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청소년들의 체격은 좋아졌지만 체력은 나빠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청소년들의 73.1%가 규칙적으로 운동을 하지 않고, 비만 청소년은 느는 것으로 나타났다. 컴퓨터 게임 등과 같은 정적인 여가 문화 확산에 과도한 학습 부담까지 더해져 우리 학생들의 건강이 위협받고 있다는 것을 경고한 것이다. 청소년기 중요한 발달 시기에 발생한 비만은 성인기에 발생한 비만보다 고도 비만으로 이어질 확률이 높다는 점에서 더 신경을 써야할 부분이다. 청소년들의 비만은 신체의 불균형적 발달로 인한 정서적 불안정과 우울증 같은 정신적 질환을 유발하고, 때로는 개인의 자괴심을 해치기도 한다. 학교체육은 이런 학생들에게 지속적인 신체활동 참여를 유지시켜주는 가장 중요한 원동력이 될 수 있다. 학교에서 정규적으로 참여해야 하는 체육수업은 학생들의 균형 잡힌 신체의 성장과 발달을 위해서 최소한으로 필요한 체력을 보완하고 신체 활동량을 보장해주는 역할을 할 수 있다. 더 필요한 운동은 정규수업 이외에 다양한 스포츠 활동과 신체활동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해결하는 것이 가능하다.

스포츠 체험, 협동·배려 등 인성지도의 중요수단

최근 학생의 인성과 도덕성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은 가장 시급한 교육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한국교육개발원이 실시한 2012년 교육 여론조사에서는 '학생의 인성과



02

01. 청소년기에는 규칙적으로 운동하고 스포츠 활동에 참여함으로써 신체를 건강하게 만들고 다른 사람과 더불어 협력하고 배려하는 정신을 배운다. 서울 우신고 학교스포츠 클럽 교내 축구리그전.

02. 서울 선유중의 농구 런치 리그전.

도덕성 약화'가 우리가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교육문제로 나타났다. 이런 문제의식의 바탕에는 근래에 이어지고 있는 학교폭력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자리하고 있어 사회적으로 청소년의 인성 함양을 위한 실질적인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인성교육에 대한 역할은 모든 분야의 교과에서도 담당하고 있지만 체육교과활동에 더 많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그 이유는 학교체육이 갖고 있는 교육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는 그 실천적 경험과정 속에서 인성적 함양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정규체육수업에서는 스포츠 경기 종목의 체험을 위해 경기 기능, 방법 및 규칙 등과 더불어 스포츠가 갖는 경쟁의 의미나 활동에 적합한 덕목도 함께 가르친다. 경쟁 활동 과정에서 학생들은 자연스럽게 동료를 돕는 역할을 수행하고, 상대방이라 할 지라도 서로를 배려하고 이해하며, 다른 사람의 감정을 파악하고, 재미를 추구하며, 서로 호의적으로 경쟁하는 것을 경험한다. 학생들은 이러한 활동 경험을 통해 예절, 협

미래를 준비하는 청소년들이 즐겁고 행복하게 생활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 수 있을 때 비로소 사회의 활력을 기대할 수 있다. 학교체육의 활성화를 통해 청소년교육의 새바람을 기대한다. 학교체육은 '학생의 꿈과 끼를 키우는 행복 교육 실현'을 위해서도 필요하지만 국가가 지속적인 행복 사회로 진행하는 데에 중요한 기능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동, 배려와 같은 긍정적 경쟁의 가치를 가진 건전한 경기 문화를 이해하고 체득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는 것이다. 이는 학급당 30~40명에 이르는 학교 현장에서 인성과 교과 공부를 함께 가르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 되고 있다. 또한 정규체육수업 이외에도 점차 활성화되고 있는 학교스포츠클럽에 참여함으로써 정신적으로 건강한 사회인으로 성장하는데 필요한 체험을 할 수 있다.

운동을 잘 하면 공부도 잘 할 수 있을까? 어린 자녀를 키울 때 부모들이 흔히 궁금해 하는 부분이기도 하다. 신체적 운동능력과 학업능력을 단순히 비교할 수는 없지만 지각운동능력의 발달이 많이 이루어지는 유아기에 다양한 운동경험은 인지발달에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 인정되고 있다. 그러나 청소년기에는 운동의 정도에 따라 학업효율이 어떻게 영향을 받는지에 더 관심이 집중된다. 최근 여러 연구에서 규칙적인 운동을 지속했을 때 인지 기능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것이 보고되고 있다. 2010년 미국 정부자료(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에 의하면 학교체육 활동이 학생들의 학업성취(시험점수, 내신등급) 및 인지능력(주의집중, 기억, 기분)과 긍정적인 관계가 있다는 많은 자료를 제시하기도 하였다.

특히 운동을 하고 난 이후 학업능률이 향상된다는 것은 국내의 여러 0교시 체육활동을 통해서 그 학습효과가 알려져 있다. 이는 운동이 신경계를 자극하고 모세혈관을 확장시켜 뇌 혈류량이 증가되는 등 뇌기능 활성화 및 학습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라 볼 수 있다. 규칙적인 운동을 지속했을 때 정보처리 시간, 산술 기억, 집중능력 등 인지능력이 향상된다는 것이 많은 연구에서 밝혀지고 있다. 운동을 통해서 변화시킬 수 있는 인지능력이 자동화와 스마트 기기에 그 자리를 빼앗기고 점차 인지적 능력의 탄력성이 떨어지는 과정에서 체육활동은 건강을 유지하는 데에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다.

청소년기, 평생 건강의 습관 만드는 중요한 시기

학교체육에서 간과해서는 안 될 중요한 것은 청소년기가 평생을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는 건강운동의 습관을 만들 수 있는 중요한 시기라는 점이다. 운동은 전반적인 안정감과 건강을 증진시킨다. 규칙적인 운동이 비만, 당뇨, 심혈관계 질환 등을 예방하거나 개선하는 데에 중요하다는 점에서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운동에 관심을 갖고 생활체육에 참여하고 있다. 운동부족으로 인해 나타날 수 있는 질병은 곧 의료비용 증가라는 사회적 부담으로 작용한다는



것을 감안할 때 학교체육에서부터 체육활동을 생활화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국가 경제적 차원에서 고려되어야 한다. 또한 학교체육은 학생들의 기본적인 움직임 기술과 신체적 잠재성뿐 아니라 성인기의 신체 활동과 생활 방식, 나아가서 개인의 자존감 및 인지적 발달까지 영향을 미친다. 즉 학교체육은 많은 사람들의 건강 습관을 결정하고 나이가 증가하면서 치러야 하는 건강 비용을 줄일 수 있는 생활체육의 기반이 되는 것이다.

학교체육을 통해서 이룰 수 있는 많은 교육목표들이 있지만 학업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활기차게 생활할 수 있는 스포츠클럽 등 체육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이 우선되어야 한다. 그 동안 형식적으로 스포츠클럽이 운영된 점들이 있다. 그러나 이제는 청소년들이 실질적으로 참여하여 각 클럽의 주체로서 강한 체력과 인내력을 기르고 규칙을 준수하고 희생과 협력의 정신을 기르는 것이

03. 04. 학교체육은 많은 사람들의 건강 습관을 결정하고 나이가 증가하면서 치러야 하는 건강 비용을 줄일 수 있는 생활체육의 기반이 된다.

필요하다. 이러한 스포츠클럽에 참여하여 수준에 맞는 동료들과 사회적 교류를 통해 소통 능력과 리더십을 키울 수 있다. 학업 위주의 생활에서 얻지 못한 인성덕목을 배양하는 것이다. 또 학교체육을 중심으로 한 체육활동을 통해서 일반 학생들뿐만 아니라 학생선수들에게도 공부와 운동을 병행하는 학원스포츠의 모델을 만들어 낼 수 있는 것이다.

오랜 기간 동안 많은 교육전문가와 체육관계자들은 학교체육의 활성화를 통해 청소년들이 신체적·정신적으로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는 제도와 프로그램을 모색해 왔다. 올해 제정된 학교체육진흥법을 기점으로 학교체육 활성화와 청소년 스포츠클럽 확대가 추진되고 있다. 그러나 성공적인 진행은 관련 단체들과 긴밀한 협조를 통해 어떻게 실행하느냐에 달려 있다.

미래를 준비하는 청소년들이 즐겁고 행복하게 생활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 수 있을 때 비로소 사회의 활력을 기대할 수 있다. 학교체육의 활성화를 통해 청소년교육의 새바람을 기대한다. 학교체육은 '학생의 꿈과 끼를 키우는 행복교육 실현'을 위해서도 필요하지만 국가가 지속적인 행복사회로 진행하는 데에 중요한 기능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2

교육부 학교체육 활성화 방안

체육전담교원 배치... 수업시수 확대 학교스포츠클럽 지역사회 자원과 연계 운영

글 유은종 교육부 인성체육예술교육과장

영국의 이튼 칼리지 출신으로 워털루 전쟁에서 나폴레옹을 꺾은 웰링턴 장군은 “워털루 승리는 이튼 운동장에서 시작됐다.”고 말했다. 국가 엘리트의 소양을 키우기 위해 이튼 칼리지는 스포츠를 교육의 우선순위에 두었는데 페어플레이 정신, 공동체 의식, 준법정신, 약자에 대한 배려, 책임감 등 지도자로서의 자질을 함양하는 데 운동이 필수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성장기 청소년들의 체력은 미래 국력과 직접 연관되는 중요한 문제이다. 따라서 선진국일수록 학교체육 시간을 엄격히 지킨다. 프랑스의 중학교는 매주 4시간, 미국은 주에 따라 다르지만 초등학교는 수업 일수 10일 동안 최소 200분, 중·고교는 400분의 체육교육을 하도록 못박고 있다. 영국은 전통적으로 체육을 중요한 교과중 하나로 여기고 학생의 스포츠 참여를 의무화하고 있다(스포츠는 세상을 바꾸는 힘이다' 중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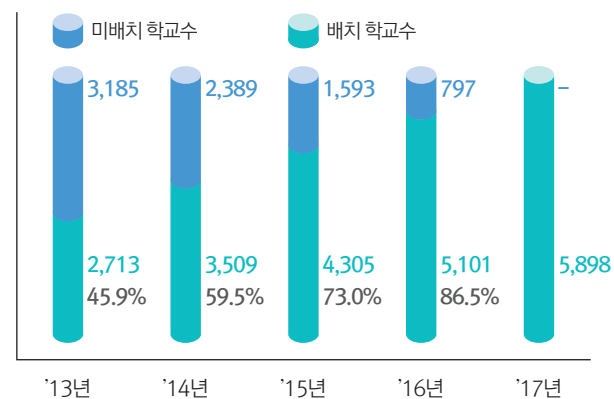
교육부는 지난 6월 24일 학생들의 꿈과 끼를 살리는 행복교육 실현과 창의인재 육성을 위한 「학교체육 활성화 추진 계획(시안)」을 발표하였다. 선진국의 사례에서 보는 것처럼 학교체육 활성화는 학생들의 체력증진 및 학업 향상뿐만 아니라 협동심, 배려심 함양 등 인성교육에서도 중요하고, 학교에서 나타나는 학교폭력, 따돌림 등 부작용을 완화하는데도 큰 효과가 있어서, 앞으로 학교체육 활성화를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학생들이 학교에서부터 체육활동을 생활화하여 건전한 스포츠 여가활동과 건강관리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체육전담교사 배치로 체육수업 내실화 다진다

교육부는 정규 체육수업 내실화를 위하여 '17년까지 모

든 초등학교에 체육전담교원을 배치하고, '14년부터 중학교는 학교장 재량으로 체육수업시간을 주당 1시간 확대할 수 있도록 학교의 자율성을 부여할 예정이다. 또 현재 고교 유형별로 체육수업이 5~10단위로 상이하게 운영되고 있는 현실을 개선하여, 모든 고등학교에서 '14년 입학생부터 체육수업시간을 10단위 이상으로 확대하고, 6개 학기에 편성·운영하도록 할 계획이다. 초등학교는 3학년부턴 6학년까지 체육교과를 주당 3시간씩 실시하고 있는데 이 시간들을 체육전담교사가 담당하여 수업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보다 내실있는 체육수업이 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우선 '17년까지 모든 초등학교에 연차적으로 1명 이상의 체육전담교사를 배치하고 이후 학급수에 따라 규모가 큰 학교는 체육전담교사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8학급 이상 초등학교에는 전문성을 갖춘 정규교원을 체육전담교사로 지정·배치하고, 7학급 이하 초등학교에는 체육전담교사 또는 시간제 교원을 활용하여 배치할 예정이다(그림1).

그림1. 초등 체육전담교사 배치 확대



중학교는 현재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에 운영되는 '학교스포츠클럽 활동'을 주당 2시간씩 하는 경우, 학교장 재량으로 1시간을 체육수업으로 전환하여 체육수업과 '학교스포츠클럽 활동'을 균형있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다. 즉 중학교 1학년부턴 3학년까지 모든 학년에서 체육을 주당 3시간씩, '학교스포츠클럽 활동'을 주당 1시간씩 할 수 있도록 하였다(표1).

표1. 체육교과 및 학교스포츠클럽 수업시수

학교급/학년	초3	초4	초5	초6	중1	중2	중3
주당 체육교과 시수	3	3	3	3	3	3	2
창체 스포츠클럽 시수	-	-	-	-	1	1	2

* 중학교는 일반적으로 3학년에 주당 2시간 편성 운영(1~2학년은 주당 3시간)

현재 고교의 체육필수 이수단위는 일반고의 경우 10단위, 특목고, 자사고는 5단위이며 특성화고는 예술을 포함하여 10단위로 운영되고 있다. '12년 1학년의 편성현황을 살펴보면 일반고는 평균 10.5단위, 특목고는 5.4단위, 특성화고는 7.1단위, 자사고는 8.9단위를 편성하여 운영하고 있다. 체육교과는 성장기에 있는 학생들의 정상적 체력 발달과 협동심 및 배려 등 인성함양 등을 위해 학교유형에 상관없이 일정시간 이상 운영하도록 기준을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 모든 고교에서 체육교과를 10단위 이상 필수적으로 이수할 수 있도록 했으며, 3개 학년에 고루 편성하여 전학년에서 체육활동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였다.

다양한 체육활동 참여 확대

일반학생들이 참여하는 학교스포츠클럽 활동과 학교스포츠클럽 리그가 정착, 활성화되고 있으나 지금까지 교내 활동으로만 한정되어 운영되었다. 앞으로는 지역 경기단체, 공공체육시설 등 지역사회 자원과 연계하여 운영할 예정이며 이를 위해 문화체육관광부, 대한체육회, 국민생활체육회 등과 함께 학교스포츠클럽 리그를 확대 운영할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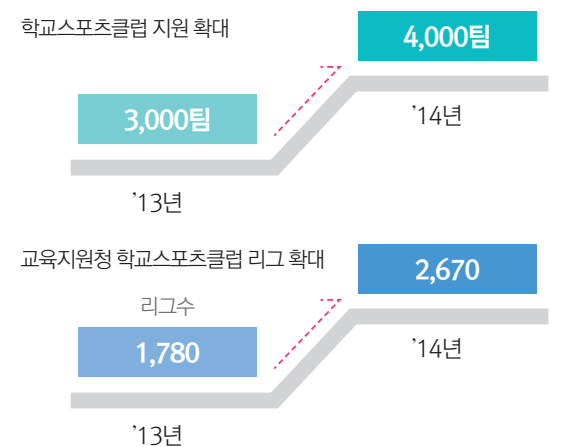
올해에는 우수학교스포츠클럽 3,000개 팀을 지원하였는데, '14년도에는 4,000팀, '17년까지 5,000팀을 지원할



01. 교육부는 문화체육관광부, 대한체육회, 국민생활체육회 등과 함께 지역사회 자원을 연계한 학교스포츠클럽 리그를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예정이며, 교내 리그대회 운영 등으로 상시적인 체육활동을 지원하고, 경기 관람 등을 통한 스포츠참여 문화를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학교스포츠클럽 리그를 확대하여 초·중·고 모든 학생들이 참여하도록 하고 지역 경기단체 및 생활체육회 등을 리그운영기관으로 선정하여 심판 및 진행요원, 시설임차비 등을 지원하여 대회 운영을 내실화할 계획이다. 전국 학교스포츠클럽대회 또한 승패 위주가 아닌 학생축제 형태로 경기를 운영하여 참여하는 학생들이 즐겁고 배움이 있는 장으로 만들 예정이다(그림2).

그림2. 학교스포츠클럽 활동 지원 확대



02. 03. 중학교의 경우, 학교장 재량으로 학교스포츠클럽 활동을 체육수업으로 전환하여 체육수업과 학교스포츠클럽을 균형 있게 운영할 수 있다. 인천 계산여중 학교스포츠클럽 창작 댄스반과 요가반

04. 경기 성남여고 사격반

토요스포츠테이는 학교에 토요스포츠클럽 사 배치를 지원하는 방식을 개선하여, 학교와 지역사회 중심의 다양한 토요스포츠 프로그램을 지원할 예정이다. 즉, 운영방식을 학교와 지역사회로 이원화하여 학교 토요스포츠테이뿐 아니라 공공체육시설, 체육단체 등에서 토요스포츠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지역 공공스포츠클럽에 참여하여 활동하는 학생들도 학교스포츠클럽 활동으로 인정하고 지역 공공·종합형 스포츠클럽과 연계하여 부모와 함께하는 가족참여 스포츠 활동을 확대, 추진할 계획이다.

줄넘기, 건강달리기, 요가 등 아침 수업 전, 점심시간 등을 활용한 학교단위의 자율 체육프로그램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7560+운동(일주일(7)에 5일 이상 하루 60분 이상 누적해서(+) 운동한다는 뜻) 선도학교'를 지정하여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강사, 용품 등 지원을 추진하며, 쉽고 간편하게 따라할 수 있는 중간 체조, 스트레칭, 요가 등 학교급별, 성별로 활용 가능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보급할 예정이다.

또한, 학교 체육시설을 확충하기 위해 교육부 및 시·도 교육청, 문화체육관광부, 지자체가 협력하여 노력하고 있으나 지속적인 확충 및 현대화가 필요하다. 실내 체육활동을 위한 다목적 체육관을 도시 규모에 따라 다양하게 건립(매년 20교)하고, 학교운동장 현대화 사업을 학교 여건에



02

따라 다양하게 조성할 계획이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스포츠스타, 체육지도자 및 종목별 협회 참여를 확대할 방침이다. 전·현직 유명 스포츠스타들이 학교를 방문하여 종목 강습 및 리그 지도, 강연회, 사인회 등 다양한 행사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종목별 협회에서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장비·용품 및 강사 등을 확보하고 희망하는 학교를 방문하여 지도하는 '스포츠 교실'을 운영할 예정이다.

그리고 방학 중 스포츠교실을 확대할 예정이다. 학교 운동부 시설 및 지도자·스포츠강사를 활용하여 스포츠 캠프를 개설, 다양한 스포츠 활동 기회를 부여하고 종목별



03

생활체육 캠프를 운영하여 지역의 체육시설 및 생애·관광 자원을 활용한 지역특화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체육에 소질을 갖고 있는 학생 지원

학생선수 및 중도에 체육 특기가 발현되는 학생들에게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꿈과 끼를 키울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학생선수가 공부와 운동을 병행하도록 정규수업 이수를 의무화하여 학생선수의 학습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현재 고교의 경우, 다수의 학생선수들이 학습결손으로 정규수업의 학습내용을 이해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교육부는 학생선수에게 적합한 교육으로 실제적인 학습에 도움이 되고 운동선수로서의 꿈과 끼를 발휘할 수 있도록 고교 체육중점학급을 '16년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또한 학생선수들이 시간·장소에 상관없이 언제 어디서나 학습할 수 있도록 기초학력 지원을 위한 E-school을 구축하여 운영할 예정이다 <그림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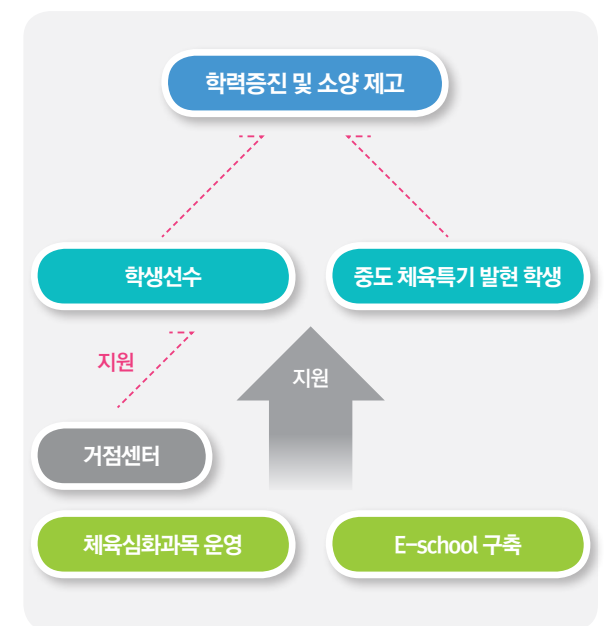
학생들의 체육활동 활성화는 자라나는 우리 학생들의 미래와 행복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며 체육활동은 학업성취와 배치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학생들의 학력향상에 도움이 되기도 한다. 때문에 학생들이 꿈과 끼를 키울 수 있는 건강한 체력과 인성을 함양하고 행복한 학교생활을



04

할 수 있는 기초가 다져지도록 교육부는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이들 과제를 추진하는데 있어 문화체육관광부 등 관련 부처, 지방자치단체, 체육단체 등과 긴밀한 협업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며 학생들이 학교와 일상생활에서 체육활동을 생활화하도록 교사, 학부모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 지도해 주길 부탁드립니다. <표>

그림3. 체육에 소질을 가지고 있는 학생 지원체계



여학생에게 친숙한 체육교육 환경 만들기

여학생이 선호하는 종목으로 스포츠 환경 재구성 남녀분리 체육수업 및 탈의실 등 기반시설 확대

글! 김승경 교육부 인성체육예술과 교육연구사

토요일 오전 00중학교에서는 유니폼을 입고 여학생들이 축구 시합을 하고, 학부모들과 남학생들은 응원을 하고 있다. 합성과 탄성이 뒤섞인 학교 운동장에서는 축구 경기를 하는 여학생들이나 응원하는 학부모·학생들이나 모두 하나가 되어 체육활동을 즐기고 있는 중이다. 00중학교 운동장에서는 교내 학급대항 축구리그가 진행 중이고, 체육관에서는 농구경기가 한창이다. 실내 체육실에서는 댄스 동아리가 연습 중이며, 빈교실에서는 임시 표적판을 설치하고 사격연습을 하는 여학생들이 있다.

이것은 아직 많지는 않지만 가상현실이 아닌 실제 학교에서 운영되고 있는 여학생들의 체육활동 모습이다. 2012년 여성가족부에서 조사한 청소년실태조사에 의하면 규칙적으로 운동을 하지 않는 여학생의 비율은 75.8%나 된다고 한다. 체육활동이 건강과 생활에 긍정적으로 미치는 다양한 효과들을 생각해 보면 여학생의 체육활동 참여 저조는 개인을 떠나 사회와 국가가 함께 고민하고 해결해 나가야 할 문제라고 생각한다.

여학생, 방과 후 체육활동·토요스포츠데이 참여 저조

올 초 교육부에서는 초·중·고 129교 여학생 5,138명에게 체육활동과 관련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여학생들의 체육참여 실태와 좋아하는 활동 등을 조사한 바 있다. 설문내용은 정규체육시간, 희망체육 수업, 여학생 선호 종목, 방과후 체육활동 및 토요스포츠데이 참여 등에 대한 것이었다.

구체적으로, 학교체육수업에 대한 인식 조사에서 여학



01

생들은 ‘운동기능’, ‘건강 증진’, ‘체력향상’, ‘정서 및 사회성 함양’ 등에 다소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고 응답했다. 체육수업의 중요도를 묻는 질문에 70.1%의 여학생이 긍정적으로 답했으며, 72.7%의 여학생은 체육수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고 답했다. 선호도를 묻는 질문에 대해 68.8%의 여학생은 긍정적으로 답했다. 선호하지 않는 이

유로는 ‘소질이나 취미가 없어서’(42.3%), ‘체육수업 내용이 재미없어서’(21.4%), ‘체력이 약해서’(18.2%), ‘체육복 갈아입기가 불편해서’(17.2%), ‘땀 흘리는 게 싫어서’(16.1%) 순이었다.

여학생들은 어떤 체육수업을 희망할까. 응답자의 62.8%가 남녀분리수업을 희망했으며, 학교급이 올라갈수록 분리수업을 희망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초 43.1%, 중 67.3%, 고 77.1%). 분리수업을 선호하는 이유로는 ‘여학생 수준에 맞는 운동을 배울 수 있다’(46.4%), ‘남학생을 의식하지 않고 마음껏 운동할 수 있다’(43.4%) 순이었다.

여학생들의 답변처럼 학교체육수업에 대해 매우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지만 학년이 올라갈수록 남녀 분리수업을 희망하고 여학생들에게 맞는 체육프로그램 제공 및 탈의시설, 실내 체육시설 확대 등 체육활동을 위한 여건을 개선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응답자의 91.9%는 방과 후 체육활동에 참여하지 않았다. 방과 후 체육활동에 참여하고 있다고 응답한 여학생들의 참여종목은 배드민턴, 음악줄넘기, 피구, 방송댄스, 농구 순이었으며, 참여기간은 6개월 미만(49.4%), 1년 이상~2년 미만(18.1%), 6개월 이상~1년 미만(13.8%) 순었다. 방과 후 체육활동에 참여하기 어려운 이유로 공부할 시간에 쫓겨서(학원시간과 안 맞아서), 참가하고 싶은 프로그램이 없어서, 운동에 소질이 없어서 순으로 꼽았다.

한편, 응답자 중 91.5%가 토요스포츠데이에 참여하지 않았으며, 여학생의 체육활동 활성화 방안을 묻는 질문에 ‘여학생 친화적 체육활동 프로그램 개발 보급’(16.9%), ‘실내 체육시설 확대’(16.4%), ‘정규 체육수업 확대’(16.3%) 순으로 응답했다. 학교급별로는 초등학생과 중학생의 경우 ‘실내 체육시설 확대’를, 고등학생의 경우 ‘정규 체육수업 확대’를 원했다.

이처럼 정규 체육수업 이외에 방과 후 체육활동 및 토요스포츠데이 등에 참여하는 여학생은 9.0%로 체육활동 참여에 소극적이며 학원 시간과 맞지 않거나, 참가하고 싶은 프로그램 부족 등으로 체육활동에 참여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여학생들이 체육수업 중 재미있었던 활동으로는 피구, 배드민턴, 발야구, 줄넘기/음악줄넘기, 티볼, 농구, 축구, 배구, 육상, 탁구 순이었으며, 체육수업에서 희망하는 활동으로는 사격, 스케이트, 피구, 방송댄스, 수영, 요가, 배드민턴, 탁구, 발야구, 테니스 등을 꼽았다.

01. 여학생들은 학교체육수업에 대해 매우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반면, 체육활동에 소질이 없다고 인식하고 있다. 줄넘기 활동을 하는 여학생들

체육활동에 대한 일반적 인식은 격렬한 스포츠에 참가하는 여학생은 여성답지 못하다거나 운동을 하면 성격이 거칠어지고 남성화된다는 통념에 대해 반대 의견을 제시하여 이전의 전통적 여성성에 대한 생각이 변화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체육활동 참여 촉진 프로그램 확대

교육부는 미래 여성 지도자로서의 대인관계 및 리더십 함양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여학생 체육활동 참여를 유도하고 지원할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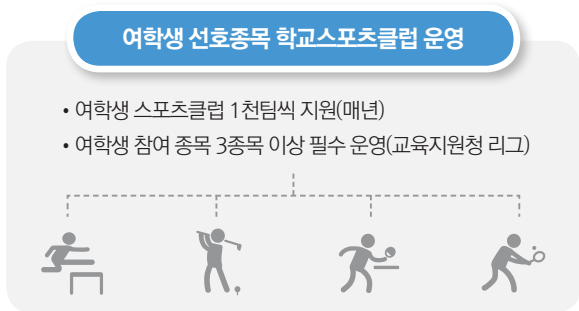
여학생이 선호하는 체육활동을 확대하기 위하여 스포츠를 보고 즐기는 쉬운 것부터 참여할 수 있도록 스포츠 관람 등을 지원하고 학생들이 희망하는 경우 남녀분리 체육수업을 권장하여 여학생에게 맞는 교육과정 운영을 통해 여학생의 체육활동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또한 학교스포츠클럽에 여학생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여학생이 선호하는 네트형 종목, 뉴스포츠, 댄스 등 프로그램을 더욱 확대하여 운영할 계획이다. '14년부터 매년 여학생 스포츠클럽 1,000팀을 선정하여 운영비를 지원할 예정이며 여학생 학교스포츠클럽을 대상으로 스포츠스타 강습 지원을 확대할 예정이다. 아울러 반 대항 교내 리그 활성화 및 지역 리그 활성화를 통해 여학생의 스포츠활동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교육지원청 학교스포츠클럽리그에 여학생 참여 종목을 3종목 이상 운영할 예정이다<그림1>.

여학생이 체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사회·문화적 기반 조성을 위하여 캠페인 활동, 여학생 체육 주간 운영, 축제형식의 여학생 체육대회 등을 권장하여 여학생의 체육 참여를 확대할 예정이다. 단위학교에서는 특정 요일 방과 후는 여학생만을 위한 체육프로그램을 운영한다거나 시·도교육청, 교육지원청에서는 여학생 대상 체육대회 등을 운영하는 등 여학생이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체육활동 참여기회 확대와 홍보 등으로 여학생이 친숙하게 체육활동에 참가할 수 있는 교육적 환경을 제공하도록 할 예정이다.



그림1. 여학생 학교스포츠클럽 지원 확대 방안



여학생 체육활동 기반 시설 조성

여학생 체육활동 활성화를 위한 시설적 여건 조성 또한 매우 필요하며 설문조사 결과, 실내에서 체육활동을 할 수 있는 체육관, 실내체육실 등의 확충 및 체육복을 갈아입을 수 있는 탈의실 등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교육부에서는 시·도교육청과 함께 실내 체육활동을 할 수 있는 간이 실내체육실을 '14년부터 매년 300교씩 설치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유희교실이나 학교내 여유 공간을 확보하여 매년 200교씩 탈의실을 설치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그림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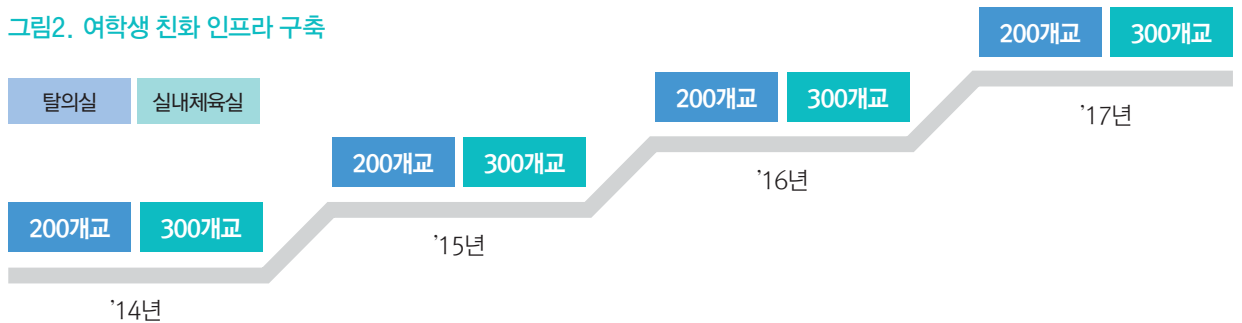
이렇게 설치된 다양한 실내 체육시설은 여학생들이 선호하는 댄스, 요가, 탁구, 체력운동 및 스트레칭 등을 할 수 있도록 소규모 스포츠 문화공간(피트니스룸, 실내



02. 03. 체육활동에 여학생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교육부는 탈의실, 실내체육실 등 기반시설을 확대할 예정이다. 경기 성남여고 체육대회와 청작댄스반 모습

04. 인천 계산여중 학생들이 야구를 변형한 뉴스포츠 게임을 즐기고 있다.

그림2. 여학생 친화 인프라 구축



건강교실 등)으로 활용하여 여학생의 체육활동을 적극 장려할 예정이다(문화체육관광부에서 별도 실시한 여학생 체육활동 참여 실태조사('13.4월) 결과 희망하는 학교내 체육관련 시설은 수영장(18.8%), 탈의실(13.1%), 체육관(12.5%), 롤러스케이트장(10.5%) 등의 순으로 조사됨).

여학생들이 체육활동을 좋아하지 않는 이유로 가장 많은 응답을 한 '소질이나 취미가 없어서(42.3%)'라는 응답은 여학생들이 정말로 체육에 소질이 없는 것이 아니라 어려서부터 체육활동을 자주 접해보지 못하여 할 수 있는 스포츠 활동이 없기 때문에 소질과 취미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의 개선을 위해 체육활동을 통한 건강한 여학생 이미지 제고 및 가족참여형 스포츠 활동을 적극 권장하여 어려서부터 여학생들이 체육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여야 한다. 또한 학교에서는 여학생이 선호하는 스포츠 종목을 지도하고 감성(emotion)을 끌어낼 수 있는 스포츠 환경을 재구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예를 들면, 여학생 중심의 프로그램 운영, 남·녀 혼성수업에서도 여학생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창작 활동 및 높은 운동수준을 필요로 하지 않으면서 쉽게 참여할 수 있는 종목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다.

이번 교육부의 학교체육 활성화 추진계획(시안) 실현으로 학교 내외의 여학생을 위한 다양한 체육활동 정책을 통해 여학생이 적극적으로 체육활동에 참여하여 건강하고 즐거운 학교 생활을 할 수 있게 되길 기대한다.

운동습관 만드는 신나는 체육 프로그램

자투리 시간 이용한 아이디어 주목 운동 기피 학생 위해 뉴스포츠로 유도

글! 이순이 본지 기자

학교체육 활동이 다양해지고 있다. 교육과정 속에서 체육수업이 차지하는 것은 물론, 틈새 시간을 활용해 다양한 스포츠 활동이 펼쳐지는 추세다. 더불어 운동을 기피하는 학생들을 위한 맞춤형 운동, 비만학생을 위한 다이어트 운동, 여기에 스포츠 성역에 대한 편견을 깬 다양한 시도들이 이어지면서 학교체육에 활기를 불어넣고 있다. 특히 교육과정 속의 체육, 스포츠 동아리, 학교스포츠클럽, 토요스포츠데이로 이어지는 다양한 스포츠 프로그램은 몇몇이 즐기는 스포츠를 넘어서 1인 1스포츠, 나아가 전교생이 함께 즐기는 신나는 체육으로 발전하고 있다.



틈새 시간을 겨냥한 신나는 교내 런치리그전

서울 선유중학교(교장 임호성)의 점심시간은 항상 운동하는 학생들로 시끌벅적하다. 점심을 알리는 종소리가 울리면 학생들이 체육관으로 삼삼오오 모여든다. 틈새 시간을 이용해 체육관에서 반대향 교내 농구리그전(런치리그)이 열리기 때문이다. 7월 5일은 1학년 1반과 7반, 2학년 1반과 6반의 농구경기가 펼쳐졌다. 심판은 3학년 선배들이 맡았다. 반대향전이기 때문에 경기에 참여하지 않는 친구들도 빙 둘러앉아 응원 삼매경에 빠졌다.

자투리 시간을 이용해 하는 경기지만 학생들의 열기는

뜨겁다. 친구들의 응원에 힘입어 이날 경기에서 우승을 한 이정빈(1학년) 군은 “팀원 모두 처음부터 친한 사이는 아닌데, 함께 경기를 뛰다보니 호흡이 척척 맞는다. 오늘은 팀플레이가 잘 이뤄져 경기에서 이긴 것 같다.”며 “점심시간에 땀흘려 운동을 하고나면 기분도 좋고 몸도 개운해진다.”고 말한다. 온몸이 땀에 흠뻑 젖었지만 경기를 끝낸 학생들의 표정은 꽃처럼 활짝 피었다.

선유중은 점심시간에 농구리그 이외에도 전교생이 참여하는 풋살, 피구리그도 함께 진행하고 있다. 점심시간을 활용한 틈새 스포츠가 학생들에게 인기를 얻으면서 점심

시간도 당초 50분에서 1시간으로 10분 더 늘렸다.

또한 선유중은 남녀공학 특성상 여학생의 스포츠 활동이 위축될 수 있다는 것을 간과하지 않고 여학생을 위한 스포츠 프로그램을 따로 마련하고 있다. 거친 플레이를 하지 않으면서 스포츠의 묘미를 경험할 수 있는 넷볼, 킨볼 부를 운영하고 있다. 킨볼부에서 활동하는 김희정 양(2학년)은 “수업시간에 킨볼을 배웠는데, 너무 재미있어서 스포츠클럽에 가입했다.”며 “킨볼이 보는 것과 달리 운동효과가 높고 다이어트에도 도움이 된다. 친구들에게 적극 권유해 함께 운동하고 있다.”고 말했다. 학교스포츠클럽 학생들의 실력이 꾸준히 향상되어 지금은 수준급으로 성장했다.

이 학교 김종우 체육부장은 “운동을 기피하는 학생들도 스포츠클럽에 참가할 수 있도록 종목을 다양화했다.”며 “학교스포츠클럽이 활기를 띠면서 각종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고 있다.”고 덧붙였다. 선유중은 지난해 서울시교육감배 학교스포츠클럽에서 킨볼 우승, 넷볼 3위, 피구 2위에 오르며, 학교스포츠클럽 강자임을 보여줬다.

선유중학교가 런치리그로 학생들의 스포츠 활동이 강

화되었다면, 서울 경일초등학교(교장 한상운)는 0교시를 활용하여 전교생이 운동장을 달리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한다. 경일초 학생들은 매일 아침 학교 교문을 들어섬과 동시에 아침 건강달리기로 하루를 연다. 모든 운동의 기본인 달리기를 통해 학생들의 기초체력을 향상시키고 활기찬 아침을 맞이하는 것. 오전 8시20분부터 40분까지 20분 내외로 진행되는데, 등교한 학생은 선생님과 함께 준비운동을 하고 운동장 트랙을 따라 달린다. 각자 자신의 체력을 고려해 3~5바퀴 달린 후 교실로 들어가 하루 일과를 시작한다.

매일 아침 20분 남짓 운동장을 달리는 게 전부지만 꾸준한 운동습관을 형성하는 데 톡톡히 효과를 보고 있다. 한 학생은 “달리기를 처음 할 때에는 숨도 차고 힘들었지만 매일 달리다보니 몸이 점점 건강해진다. 비가 와서 아침 달리기를 거르는 날이면 하루 종일 답답하다.”고 말한다.

운동 기피학생들 겨냥한 맞춤 스포츠

천안에 위치한 성거초등학교(교장 최순자)는 전교생을 대상으로 하는 ‘7560+운동’을 비롯해 다양한 학교스포츠클럽, 뉴스포츠 등으로 학생들의 스포츠 활동에 활기를 불어넣고 있다. ‘7560+운동’을 위해 성거초는 ‘나의 하루 운동 기록장’이라는 교재를 자체 제작하여 날마다 운동 기록을 남기고 있다. 학생들은 아침에는 줄넘기와 건강달리기를 하고, 오후에는 개인운동을, 토요일에는 축구, 배구, 티볼 등 스포츠 동아리에서 활동한다. 또 뉴스포츠 종목은 학생들에게 인기가 높다. 12개의 스피드스택스 컵을 다양한 방법으로 빨리 쌓고 내리면서 모양을 만드는 스포츠스태킹부터 플로어볼, 티볼 등 다양한 뉴스포츠를 도입하고 있다. 특히 플로어볼은 손으로 잡는 스틱과 공이 모두 연성 재질의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어 가볍고 부상 위험이 적어 축구나 농구처럼 격렬한 몸싸움이 허용되지 않기



01. 점심시간 땀흘려 운동하는 서울 선유중 학생들

02. 매일 아침 건강달리기로 운동습관을 다지는 서울 경일초등학교 학생들

학교 체육활동이 다양해지고 있다. 교육과정 속에서 체육 수업이 알차지는 것은 물론, 틈새시간을 활용해 다양한 스포츠 활동이 펼쳐지는 추세다. 더불어 운동을 기피하는 학생들을 위한 맞춤형 운동, 비만학생을 위한 다이어트 운동, 여기에 스포츠 성역에 대한 편견을 깬 다양한 시도들이 이어지면서 학교체육에 활기를 불어넣고 있다.



한 운동 프로그램을 자체 개발해 스포츠 활동에 끌어들이고 있다. 여고생들은 '텐텐텐 운동'을 통해 건강한 체력, 아름다운 몸매 가꾸기에 도전하고 있다. '텐텐텐'은 10대를 위한, 10분 안에 할 수 있는, 10가지 동작을 뜻하는 말이다. 여학생들의 관심사인 다이어트를 위한 운동이다. 하지만 단순히 살을 빼주는 데 그치지 않고 지방을 없애고 탄탄한 근육까지 만들어주는 운동이다. 제자리뛰기, 인아아웃발터치, 스쿼트, 트위스트, 런지, 크런치, 푸시업 등 10가지 동작으로 이뤄졌는데, 10분 동안 이 동작을 쉬지 않고 연속으로 하다보면 커다란 운동효과를 볼 수 있다. 10분이라는 짧은 시간이지만 여고생들에게 커다란 성취감을 안겨주고 있다.

입학사정관제 연계, 체육활동 종합관리

한편, 경기 성남여고(교장 이상숙)는 체육교육과정을 통한 정규 체육수업을 내실화하고, 입학사정관제와 연계한 BSP(Be a Sportsperson Program)를 통해 체육활동을 종합관리함으로써 일반계 고교에서 실시하기 어려운 다양한 스포츠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성남여고는 기존의 체육수업의 틀을 깬다. 'Smart All-In-One 교육과정'은 학급 내 수준별 수업을 진행하며, 스포츠 역량강화수업, 수업교보제 및 ICT 자료를 활

용한 수업으로 체육수업의 효과를 극대화시키고 있다. 운동장, 체육관이외에도 별도의 체육교과교실(3개)을 두어 실내외 수업을 모두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스포츠 역량강화를 위해 체육교사 4명과 시간강사 2명이 각각 체육프로그램을 개설해 운영하는데, 학생들은 댄스, 변형 발야구, 음악줄넘기, 스포츠스태킹, 배구 가운데 선택하여 1학기 동안 배우게 된다. 2학기에는 요가, 티볼, 플라잉디스크, 스포츠스태킹, 배구 종목을 학급별로 순환 체험이 가능해 이 학교 학생이라면 누구나 다양한 스포츠를 경험하게 된다. 'Smart All-In-One 교육과정'



의 독특한 점은 매주 수요일에는 '특수체육반'을 운영하여 통합체육을 실시한다는 것이다. 특수체육강사 1명을 두고 특수학급을 대상으로 다양한 스포츠 활동을 집중적으로 실시한다.

임지혜(3학년) 학생은 "스포츠스태킹과 배드민턴을 좋아하는데, 스트레스가 확 풀린다. 체육시간에 배드민턴을 배웠는데, 생각보다 많은 기술이 있어서 놀랐다. 그리고 경기를 할 때 작전을 짜야 하는데, 이런 부분을 수업시간에 배울 수 있어 좋다."고 말한다.

또한 교내외의 체육활동을 입학사정관제와 연계한 BSP를 통해 종합관리하면서 체육활동의 증가에 따른 학생과 학부모의 부담을 덜고 있다. BSP를 통해 학생들에게 직·간접적으로 스포츠 활동에 참여하도록 유도하고 있으며, 평생체육 탐색 등 체육활동을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즉 생활기록부에 체육 활동내용, 참여시간 등을 입력하고 있으며, 에듀팟과 연계하여 입학사정관제 방과후 활동 데이터베이스도 구축하고 있다. 특히 활동영역별로 인증시간을 부여하는 차등등급제를 실시해 1급(200시간 이상), 2급(150시간), 3급(100시간)에 따라 인증을 부여하고 있다. 지난해 전교생 중 32%가 연간 100시간 이상 인증서를 발급 받았을 정도로 학생들의 참여도가 높다.

이 학교 최상훈 체육부장은 "창의적이고 독창적인 체육 수업으로 평생체육의 활로를 개척하고 양·질적으로 우수한 수업을 제공하고 있다. 체육수업만으로도 다양한 스포츠 종목을 접할 수 있도록 하여 진정한 스포츠 애호가를 육성하고 있다."며 "면학분위기를 유지하면서 체육시간에 에너지를 발산할 수 있어 좋다."고 설명했다. ⑤

03. 서울 가락고의 '텐텐텐 운동'

04. 서울 선유중의 킨볼부

05. 경기 성남여고의 뉴스포츠 '스포츠스태킹'

스포츠 활성화로 ‘학력-인성’ 효과 쏙쏙

글 **이순이** 본지 기자

학교체육이 활발해지면서 긍정적인 변화가 일고 있다. 운동량의 증가는 강한 체력과 강한 정신력이라는 1차적인 변화 이외에도 다양한 곳에서 효과가 속속 나타나고 있다.

가장 큰 변화는 체력이 향상되고, 건강 및 교우관계가 긍정적으로 변화한 것을 꼽을 수 있다. 학교체육 활동을 통해 운동기능이 좋아졌고, 학교 생활도 즐겁다는 것이다. 이는 지난해 교육부(당시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전국 학생 모니터단 1,654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자료에서도 볼 수 있다. 학교스포츠클럽에 참여하는 학생 중 87.4%가 건강 및 교우관계가 좋아졌다고 응답했다. 더불어 부지런해졌다는 응답도 74.9%로 학교체육 활동이 생활에 활기를 넣었다는 분석이다.

함께 땀 흘리며 운동하는 우린 ‘친구’

우선, 운동량과 시간이 양적·질적으로 증가하면서 학생들의 체력이 좋아진 경우다. 광주서석중학교(교장 남궁성)는 지난해 전교생이 참여하는 학교스포츠클럽을 운영함으로써 학생들의 체력이 크게 신장된 것을 경험했

다. 축구장 2개, 농구장 2개, 배구장 2개의 다목적 경기장과 우레탄 트랙 시설을 보유한 이 학교는 넓은 운동장에 한 학년 8개 학급이 동시에 모여 8개 종목 리그전을 진행한다. 1주일에 한 번꼴로 학년별 미니체육대회로 리그전이 진행되는데, 축구/전락줄다리기, 농구/피구, 티볼/단체줄넘기, 발야구/나막신이어달리기로 주종목과 보조종목을 묶어서 운영한다.



01. 02. 스포츠 활동은 또래관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
03. 학교체육이 활성화되면서 학생들의 체력이 크게 신장되었다.

한 명도 빠지지 않고 참여한다는 것이 큰 특징으로 운동을 잘하는 학생은 주종목에, 못하는 학생은 보조종목에 참가해 각자 맡은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에 체력도 전교생이 골고루 향상되었다. 실제 학생체력평가에서 저체력에 속했던 114명의 학생들이 6개월간 꾸준히 학교스포츠클럽에서 활동하면서 48명으로 현저하게 줄어들었다.

또한 학교체육 활동은 무엇보다도 또래관계에 영향을 주고 있다. 학교스포츠클럽, 스포츠 동아리에서 함께 운동하는 학생들은 실제 또래관계가 돈독해졌다고 말한다. 인천 계산여중 이현지 양(3학년)은 “함께 스포츠 경기를 하다보면 저절로 친해진다. 서로를 믿고 배려하지 않으면 경기를 풀어나갈 수가 없다.”며 “성격이 너무 조용해 말 한마디도 못하고 지냈던 친구와도 자연스럽게 친구가 됐다.”고 말한다.

‘스포츠’를 매개로 함께 경기하면서 서로 배려하고 협동하는 과정에서 저절로 또래관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것이다. 긍정적인 또래관계는 화기에애한 학급분위기를 만드는 데도 일조한다.

인천 계산여중 2학년 담임을 맡고 있는 조강욱 교사는 “학교체육 활동이 늘면서 학생들의 학교생활이 매우 긍정적이고 또 역동적으로 변했다. 승부욕을 발휘해 경기에 빠져드는 학생들을 보면 놀랍다. 스포츠로 하나가 된 아이들”이라

고 설명한다. 특히 반 학생들의 교내외 리그전이 열리는 날이면, 토요일 바쁜 일과를 제쳐두고 응원을 위해 학교를 찾는다고 한다. 조 교사는 “함께 뛰고, 함께 응원하면서 학급분위기 도 몰라보게 좋아졌다. 특히 전반적으로 아이들이 긍정적으로 바뀐 것 같다. 학교·교사에 대한 신뢰도 쌓이고 학교생활이 밝아졌다.”고 말한다. 현재 인천 계산여중은 12개의 스포츠 종목을 개설하여 운영 중이다. 월(1학년), 화(2학년), 수(3학년) 7교시에 운동장과 체육관 등에서 학교스포츠클럽 활동이 진행되는데, 희망자에 한해서 8교시에도 연장해서 방과후 스포츠 활동을 할 수 있다. 주말에도 넷볼, 티볼, 피구 등 토요일스포츠반 프로그램을 비롯해 교내외 리그전, 사제동행 체육대회, 전통놀이대회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다. 학교체육 활동이 학급분위기는 물론, 학교생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면서 교사·학생·학부모 간의 소통이 원활해지고 있다.

스포츠하는 아이들 ‘성적’도 놓치지 않는다

또한, 일각에서는 학교체육 활동의 증가로 공부에 소홀해 질 것을 염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하지만 꾸준한 운동은 뇌기능 활성화에 도움을 줘 학습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국내에서 관찰·연구한 서울 구현고와 경기 원천중의 사례가 이것을 검증해 주고 있으며, 미국의 연구논문(체력수준과 학업성적 간의 긍정적인 상관 관계 : Grissim,

2005/ 뇌의 전반적인 기능향상에 긍정적인 영향 : Cocke, Kramer et al, 2002)도 이런 사실을 뒷받침하고 있다. 학생들도 학교체육 활동이 학습에 도움이 된다고 말한다.

인천 계산여중 이예란(3학년) 양은 요가반에서 매주 꾸준히 운동을 하고 있다. 이 양은 “운동이 집중력 향상에 도움이 되었다. 기말성적이 평균 5점 상승했다.”고 말한다.

서울 우신고의 변화도 눈여겨볼 만하다. 김갑중 교장은 “운동을 하지 않으면 글로벌 리더가 될 수 없다.”며 “학교 일과 후에 따로 운동하기 어렵다는 생각에 학교 일과 속에서 운동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점심·저녁시간을 할애했더니 오히려 성적이 좋아졌다.”고 말한다.

서울 우신고는 3년전 점심시간을 50분에서 80분으로 늘렸다. 그리고 늘어난 시간만큼 학생들은 운동장에서 반대항 축구, 농구 경기를 펼친다. 많은 학교에서 체육대회를 축소할 때 이 학교는 전교생이 참여하고, 교사, 학부모가 함께 하는 대규모 체육대회를 열었다. 그리고 전교생에게 유도를 가르쳤다. 체육시간이 늘어나자 “공부할 시간도 부족하다.”며 학부모들의 불만 섞인 목소리가 들렸다. 점심시간이 길어지면서 “공부의 흐름이 끊긴다.”며 교사들도 반대다. 하지만 결과는 의외로 나타났다.

매년 동학년별로 학력을 비교 분석한 결과, 학력이 점차 신장되었다. 지난해 11월 1학년 학생들이 치른 모의고사에서 언어·수리·외국어 영역의 1~3등급 비율이 일제히 상승했으며, 또 올 6월에 치른 학력평가에서 비슷한 결과를 보여준다. 지난해에 비해 올해 1~3등급 모두 상승 곡선을 그렸다.

스포츠클럽과 연계한 생활지도 효과 높아

한편, 최근에는 학생들의 생활지도와 방과후 스포츠 활동을 연계하여 지도하는 학교가 점차 늘면서 학교체육의 활성화는 학교폭력을 줄이는데도 일조하고 있다. 특히 학교생활 규정을 어길 경우, 교내외 리그전 참가 제한을 두는 식으로 생활지도와 겹쳐서 운영되기 때문에 학교에서 체감하는 학교폭력은 눈에 띄게 줄었다.

대구 서남중학교(교장 류종해)의 ‘멀티플레이반’은 운동이 좋아 가입한 학생들도 있지만 대부분은 학교적응이 쉽지 않은 학생들이다. 구성원들이 말해주듯 멀티플레이어반은 신체활동을 통해 인성변화를 유도하고 운동치료를 통해 학교생활의 만족도를 높이는데 목



04. 05. 학생들은 스포츠 활동을 통해 정정당당하게 겨루고 승패를 깨끗하게 인정하는 페어플레이 정신을 배운다.

학교체육이 활발해지면서 긍정적인 변화가 일고 있다. 운동량의 증가는 강한 체력과 강한 정신력이라는 1차적인 변화 이외에도 다양한 곳에서 효과가 속속 나타나고 있다.

가장 큰 변화는 체력이 향상되고, 건강 및 교우관계가 긍정적으로 변화한 것을 꼽을 수 있다. 학교스포츠 활동을 통해 운동기능이 좋아졌고, 학교생활도 즐겁다는 것이다.

적이 있다. 주 2회 90분가량 강도 높은 운동을 소화하는데, 학생들은 축구경기를 펼치기도 하고, 구기종목을 포함하여 개인의 체력 향상에 매진한다.

운동치료와 스포츠 동아리를 병행한 결과, 멀티플레이어반 학생들의 변화가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무단결석 26일, 무단지각 2회, 무단조퇴 1회로 고위험군 학생으로 분류되어 집중 지도를 받던 한 학생은 스포츠 활동으로 180도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었다. 스포츠 동아리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지난해 대구광역시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배 육상대회 5,000m에서 금메달을 획득하기도 했다. 그밖에도 학교폭력 및 생활규정 위반 횟수가 현저히 줄었다. 지난해 학생생활 선도위원회 개최건수가 41건에서 33건으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도 9건에서 5건으로 줄었다.

학생들은 스포츠 활동을 하면서 페어플레이 정신, 즉 정정당당하게 겨루고 승패를 깨끗하게 인정하는 정신을 배우게 된다. 서울 선유중 김종우 체육부장은 “스포츠는 혼자서는 할 수 없는 팀워크를 배울 수 있는 도구이다. 자연스럽게 협동을 배울 뿐더러 도전, 끈기, 인내, 몰입할 수 있는 즐거움을 느낀다.”며 “이 과정에서 학교폭력도 줄고 있다.”고 말한다.

서울 우신고 김갑룡 교장 또한 “국어·도덕책으로 배우는 인성은 한계가 있다. 친구 간에 성적으로만 경쟁할 것이 아니라 스포츠로 서로 하나가 되는 경험을 한 학생들이 배려도 배우고, 양보도 배우게 된다.”며 “넘어지고 쓰러진 친구를 일으켜주는 것은 공부에서 가르쳐줄 수 없지 않느냐.”이라고 설명한다. ㉠

김정제 인천굴현초등학교 교장

“평범함 속에 특별한 가치가 있습니다”

‘보이는 것을 믿지 말라’는 깨달음은 김정제 교장의 교직생애를 관통하는 지침이 됐다. 그러자 그동안 발견하지 못했던 평범함 속에서 새로운 가치가 보였다. 굵은 나무는 굵은 대로, 짙은 나무는 짙은 대로, 다 저마다의 가치가 있다고 말하는 김 교장. 그는 우리 교육이 굵은 나무를 억지로 펴는 일에 집중할 것이 아니라 굵은 나무의 가치를 소중히 보듬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01

창가에 늘어선 화분들에 시선이 닿았다. 초록빛 기운이 싱그럽다. 하나하나 공 들인 듯 반지르르하다. 인천굴현 초등학교는 교장실은 물론, 교무실이며 운동장 곳곳에 화분이 준비하다. 김정제 교장이 손수 가꾸며 정성 들여온 것들이다.

“학교는 교육기관으로서 교사들이 학생 교육에 전념하고 학생들은 차분한 분위기로 학업에 전념할 수 있다면, 이것이야말로 가장 이상적인 모습입니다. 불필요한 업무나 보여주는식 행사를 과감히 없애면 교사도, 학생도, 더 행복할 수 있습니다.”

평범한 것이 가장 특별하다, 혹은 평범한 아이가 가장 소중하다는 것이 ‘평범한 학교장’ 김정제 교장의 지론이다.

새내기 교사의 수업 중단 선언

김정제 교장은 35년 전 여주의 한 시골초등학교에서 첫 교편을 잡고 ‘죽기 살기’로 열심히 가르쳤다고 회고한다. 당시 두발단속에 앞장서 아이들의 머리를 깎으러 쫓아다녔고 다달이 시험을 치며 공부에 매진할 것을 강조했다. 교과서를 통째로 외우도록 했고, 수학을 술술 풀지 못하면 남겨서 끝까지 가르쳤다. 그렇게 해야 ‘선생’인 줄 알았기 때문이다.

“지금이라도 옛 제자들을 만나면 A/S를 해주고 싶어요. 열정만 가득했지, 무엇이 교육인지도 모른 채 어설픈 그

지였지요. 그래도 때마다 소식을 전하고 나를 찾아주는 이들이 당시의 제자들입니다. 우스개처럼 제자들에게 사후관리를 해주겠다고 하면, 손사래를 치며 나 보고 좋은 선생님이었다고 치켜세워줘요. 서툴렀을지언정 진심은 통했나 봅니다.”

학교장이 된 지금 김정제 교장이 신규 교사를 보는 시각도 그러하다. 여러 면에서 어설피 보이지만, 중요한 건 교장의 평가가 아니라 아이들의 느낌이라는 생각이다. 신규 교사의 부족한 부분은 아이들에 대한 순수한 열정과 의지가 보충해준다고 믿는다.

열정만 가득했던 그에게 교육자로서 자신을 돌아볼 계기가 찾아왔다. 체육시간에 벗어놓고 나간 외투에서 조금씩 돈이 새어나가는 일이 발생한 것이다. 범인(?)을 잡기 위해 여러 차례 다양한 방법을 시도해 봤지만 헛수고였다. 그는 아이들에게 수업 중단을 선언했다. ‘도둑놈’을 가르칠 수 없다는 이유였다.

수업을 중단한 지 사흘 만에 반장과 함께 범인이 찾아왔다. 군것질이 하고 싶어서 돈을 훔쳤다고 고백한 아이는 다름 아닌 학급의 부반장이었다. 다시는 이와 같은 일이 없을 거라는 다짐을 받고서야 수업 중단 사태는 종결되었다.

뒤늦게야, 선생님이 다시 수업을 하도록 하기 위해 반장과 부반장이 머리를 맞대고 만들어낸 거짓자백이었음을 알게 됐다. 그는 자신이 아이들을 얼마나 몰아세웠는지, 교사의 정답 속에 얼마나 아이들을 끼워 맞추려고 했는지 알게 됐다. 정신이 번쩍 들었다.

“보이는 것을 믿지 말라. 아이들을 통해 얻게 된 깨달음입니다. 겉으로 드러난 현상만 가지고 선불리 판단해서도 안 되고, 내 눈으로 보았다고 해서 다 안다고 생각해서도 안 됩니다.”

‘보이는 것을 믿지 말라’는 깨달음은 그의 교직생애를 관통하는 지침이 됐다. 교육과정에도, 생활지도에도, 학급경영에도, 그동안 ‘당연한’ 일로 받아들이던 부분에 의문을

01. 불필요한 업무나 보여주는식 행사를 과감히 없애면 교사와 학생이 더 행복해질 수 있다고 말하는 김정제 교장

02. 교장의 지도 아래 6학년 학생들이 응급처치요령을 배우고 있다.



02

품기 시작했다. 그러자 그동안 발견하지 못했던 오류들이 속속 눈에 띄었다. 교사 자신이 가르치는 내용이 참인지를 알기 위해 닥치는 대로 원서나 고서(古書)를 찾아 읽었고, 그럴수록 그의 수업력(力)은 더 깊고 더 넓게 성장했다. 현재 김 교장은 『노자』·『장자』 등을 정확하고 알기 쉽게 해석하는 일에도 몰두하고 있다.

학창시절의 행복을 방해하던 것들

“나의 학창시절을 돌아보면 편안하고 행복했던 시간보다 힘들고 어려웠던 기억이 훨씬 많습니다. 특히 매주 2회 이상 반복되는 운동장 조회, 매를 맞으면서 젓 먹던 힘까지 다해 버텨야 했던 기마전, 얼굴이 까맣게 타도록 반복해 연습하던 운동회는 참으로 고통스러운 시간이었지요. 사시사철 운동장 조회 때마다 반복되었던 줄 맞추기는 왜 그리 어렵고 힘들었을까. 지금은 이름조차 기억나지 않는 교장선생님의 훈시를 꺾꺾한 자세로 들어야 했던 시간은 왜 또 그리 길었던 것일까...”

김정제 교장은 학교장이 된 이후 학교에서 치르던 형식적인 회의나 행사를 싹 없앴다. 교사들이 수시로 참가해야 하는 각종 회의는 수업이 종료된 이후에 하거나 횡수를 대폭 줄였다. 교사가 각종 회의를 이유로 1시간 이상씩 학생들만 교실에 있게 하는 상황을 사전에 차단한 것이다. 학생이 있는 곳에는 교사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 김정제 교장의 확고한 생각이다. 그는 집단 따돌림이나 학교폭력 등 불미스러운 사고도 교사가 함께 있지 않을 때 발생하기 쉽다고 본다.

또 운동회를 열기 위해 한 달 전부터 아이들을 연습시키던 관행도 과감히 없앴다. 대신 무용, 음악 등 평소 외부 강사에게 배운 기량을 학부모 앞에서 꾸밈없이 보여주도록 했다. 학생이 부모의 손을 잡고 추는 포크댄스를 즉석에서 가르치면서 너나없이 함께 어우러지는 새로운 운동회를 만들었다.

방과후수업과 관련된 업무는 철저히 회계직원들이 담당하도록 했다. 수요조사부터 접수, 운영, 평가까지 어느 과정에서든 교원이 개입되지 않는다. 도서관 운영은 공익근무요원이 맡는다. 교실을 포함해 학교 안팎 청소는 청소전



문용역업체에 의뢰했다.

“대학생에게도 안 시키는 청소를 왜 초등학생에게 시킵니까?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교사와 학생들이 서로 스트레스를 주고받으면서 오히려 교육본질에서 벗어난 일에 매달리게 됩니다. 교원의 업무 경감을 위해서는 ‘업무 재조정’이 아니라 ‘업무 해소’가 필요합니다.”

김정제 교장은 ‘가르치고 배우는’ 교육 본연의 활동에 있어서는 지원을 결코 아끼지 않는다. 일례로 교사가 교육활동에 필요해 요구하는 예산은 단 한 푼도 깎지 않고 100% 반영한다. 김정제 교장이 부임한 이후 인천굴현초등학교에서는 예산조정위원회가 한 차례도 열리지 않았다. ‘조정’ 자체를 하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이 학교는 학생 1인당 교육비를 5만원씩 편성했다. 인천 시내 학교로서는 최대 규모이자 기준 대비 250%에 이르는 금액이다.

“학교예산이 부족하면 벌어들여 주면 됩니다. 그것이 학교장의 역할이지요. 요즘은 지자체 등에서도 교육에 관심이 많고 성의를 갖고 있기 때문에 학교장이 노력하면 얼마든지 길이 열립니다. 학교장은 교육을 열심히 하겠다는 선생님을 적극 도와주고 응원해줘야지요.”

깨진 항아리에서 교육적 가치를 발견하라

교원의 자율성·책무성을 강조하는 김 교장이지만, 딱



두 가지만큼은 교사들에게 늘 당부하는 편이다. ‘아이를 때리지 마라. 아이에게 소리 지르지 마라.’

“지금이야 체벌이 사라졌지만, 어떤 이유에서든 아이를 때리지 말라고 당부해왔습니다. 더 나아가 아이들에게 소리 지르지 말아야 합니다. 복도에서 뛰어다닌다고, 교실에서 떠든다고 소리 지르고 혼내면 안 됩니다. 아이들이 뛰는 게 당연하고 떠드는 게 당연하지요. 아이들이 생활하는 시간의 태반이 학교에서 이루어지는데 학교에서 즐겁지 않으면 어떡합니까? 다만, 위험하거나 꼭 필요한 순간에는 그 이유를 설명해 주면 됩니다. 조금이라도 잘하는 아이가 있으면 충분히 칭찬해 주고요. 단박에 변화가 보이지 않을 뿐이지, 기다려주면 아이들은 스스로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구별해냅니다.”

긍정의 눈으로 보면 칭찬할 일이 보이지만, 부정의 눈으로 보면 꾸짖을 일만 보인다는 것이 김 교장의 설명이다. 그는 낡고 금이 간 항아리 이야기를 덧붙인다. 물이 졸졸 새어나와 못 쓰는 항아리인 줄 알았으나, 나중에 보니 오가던 길가마다 흘러나온 물을 먹고 어여쁜 꽃들이 만발했다는 이야기다.

“비록 외견상 볼품은 없을지라도 눈에 보이지 않는 충분한 가치가 있습니다. 아니 눈에 보이는 외형보다 더 중요한 내면의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03. 김정제 교장은 겉으로 보이는 모습뿐 아니라 내면의 가치를 볼 수 있어야 한다고 말한다. 그의 등 뒤에 붙어선 화분마다 김 교장의 정성이 듬뿍 담겨있다.
04. 05. 학생들이 치분한 분위기로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학교장의 일이라고 믿기에 인천굴현초등학교는 학생 중심 문화가 자리 잡고 있다. 각 층마다 학생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양치코너를 마련해 놓은 점도 눈에 띈다.
06. 교직원, 학생, 부설유치원생 등이 보내온 감사의 편지

교육이 추구하는 진정 소중한 가치이지요. 비록 조금씩 물이 새는 항아리일지라도 그로 인해 길가에 꽃을 피운 깨진 항아리의 진정한 가치를 생각해 보십시오.”

굵은 나무는 굵은 대로, 짙은 나무는 곧은 대로, 다 저마다의 가치가 있다고 말하는 김 교장. 우리 교육이 굵은 나무를 억지로 펴는 일에 집중할 것이 아니라 굵은 나무의 가치를 소중히 보듬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그는 강조한다. 평범함의 가치를 발견해나가는 ‘평범한 학교장’에게 이 순간에도 감사의 마음을 담은 교직원과 학생들의 편지가 교육청 홈페이지와 교장실에 속속 날아들고 있다. ㉠

마산 태봉고등학교

우리 교육 속에서 ‘대안’을 꿈꾸다

전국 최초 기숙형 공립대안학교인 마산 태봉고(교장 여태전)에 한 학기동안 체험해 온 인턴십 프로그램을 발표하는 LTI(Learning Trough Internship) PT Day 행사가 열렸다. 자신의 꿈과 배움을 향해 한 학기동안의 노력을 길잡이선생님과 부모님 앞에서 발표하는 학생들, LTI 프로젝트 학습은 무기력했던 학생들에게 활기를 불어넣으며 한 단계 성장으로 이끄는 동력이 되고 있다.



01

2013년 7월 10일, 11일. 마산태봉고 학생들에게 이날은 무척 특별한 날이다. 꿈과 배움을 위해 한 학기동안 노력해온 LTI 프로젝트 학습의 결과물을 부모님과 선생님, 친구들에게 공개하는 날이기 때문이다. 전교생 141명, 이중에 단 한 명의 낙오자도 없이 단상에 올랐다. 자기소개를 하려면 단 1분도 말을 이어가지 못하던 스티 없는 학생들이 이날을 위해 그동안의 활동을 담아 PPT 자료를 만들고 또 발표원고도 직접 작성했다. 한때는 문제아, 학교부적응아라는 이름으로 불리며 부모의 마음에 상처를 주었던 학생들이기에 이 행사는 더욱 의미가 크다.

꿈을 향한 도전기 ‘LTI PT Day’

“저의 꿈은 연예인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원빈이나 김수현과 같은 잘생긴 배우가 아니라 개성과 배우 고창석 씨와 같은 배우가 되어 대중들에게 웃음과 행복을 주고 싶습니다.”

어린시절 섬으로 이사한 후, 외롭게 생활하며 방황의 시간을 보냈다는 1학년생 이승욱 군은 이날 태봉고에 입학한 후 자신의 꿈을 위해 연극동아리 ‘끼모아’에서 활동해 온 경험을 바탕으로 ‘저 먼바다 섬마을 학생의 이야기’를 주제로 발표를 이어나갔다. 15분 남짓 발표하는 동안, 학생들은 의자 혹은 바닥에 편안한 자세로 앉아 이승욱 군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다. 연극대회지만 무대에 설 수 있다는

설렘으로 방과후, 주말에도 연습을 게을리 하지 않고 노력해온 모습을 화면으로 보여주며, 위트 있는 발표로 좌중을 웃음바다로 만들었다. 한 학기동안 연예인이라는 꿈을 향한 이 학생의 노력을 엿볼 수 있었다.

발표를 경청한 한 친구는 “승욱이는 사고도 유연하고 하고 싶은 것을 즐길 줄 아는 친구”라며 “자기 일을 즐기는 만큼 긴장감을 갖는 것도 필요하다. 너무 웃기려고 하는데 진지함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발표소감을 전했다. 승욱군의 길잡이선생님(어드바이저) 서용수 교사는 “연극하기 좋은 목소리를 갖고 있다.”며 “배우는 무대 위에서 자신의 몸을 컨트롤할 수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더니, 13kg을 감량했다. 승욱이는 연극을 통한 삶의 자세가 굉장히 진지하며, 인내가 얼마나 중요한지도 알고 있다. 힘들고 어렵게 해온 만큼 분명히 꿈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라고 조언했다. 연극 멘토를 맡은 김수희 씨는 “연극연습하면서 궁금한 것을 적극적으로 물어왔고, 조언하면 다음시간에 변화된 모습을 보이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였다. 심한 사투리를 써서 그것을 지적했는데, 많이 개선된 모습을 보여줬다.”며 앞으로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01. ‘학교를 넘어선 학교’를 지향하는 태봉고는 체험과 나눔 중심의 차별화된 교육과정으로 공교육 안에서 대안교육을 실현하고 있다.
02. 한 학생이 꿈과 배움을 위해 한 학기동안 노력해온 LTI 프로젝트 학습 결과물을 발표하고 있다.
03. 편안한 자세를 취하며 친구의 LTI 발표를 경청하는 학생들



02



0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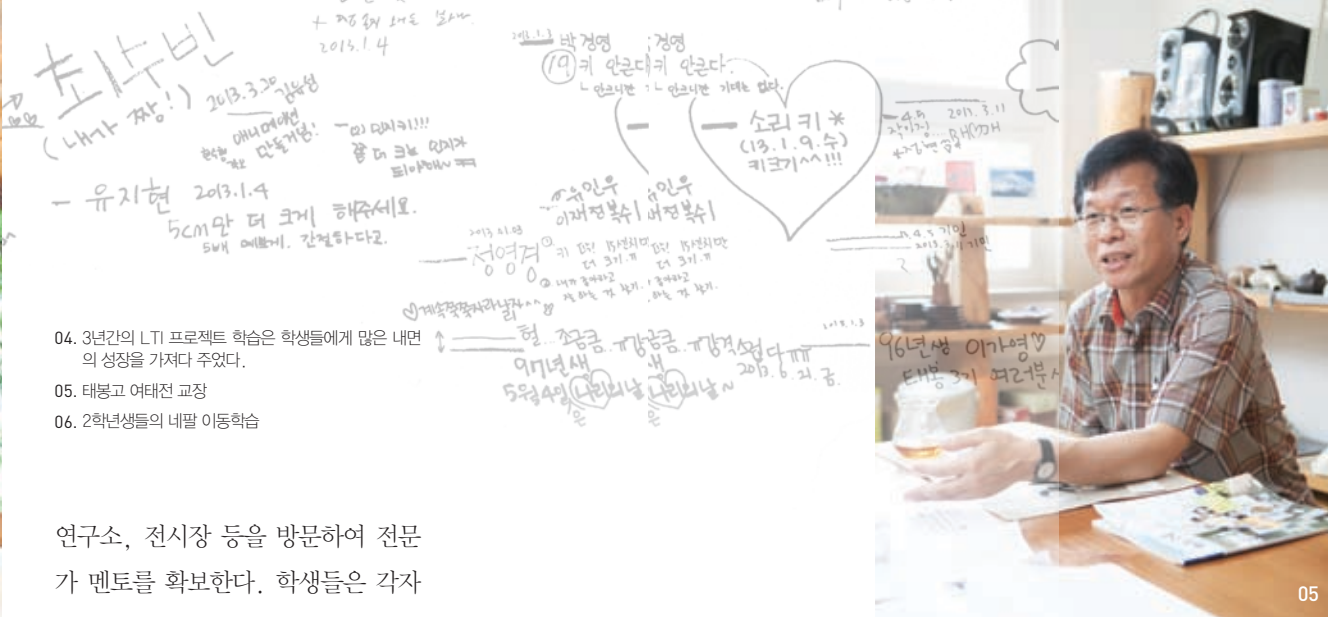
04

이들의 꿈을 헛된 꿈으로 여겼던 승욱 군의 아버지 이정주 씨는 한층 성장한 이들의 모습에 무척 대견한 듯 흐뭇한 미소를 지었다. “연예인은 무리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몸으로 성실하게 할 수 있는 일을 찾으라고 했습니다. 오늘 발표를 들으니 연예인이 먼 꿈이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날 이 씨는 “겸손함을 배울 수 있도록 선생님과 친구들이 도와줬으면 좋겠다.”고 당부한 후 장미꽃 한송이를 건네며 멋쩍은 듯 살포시 어깨를 감싸 안아주며 끈끈한 부성애를 보여줬다.

“의욕적인 평생학습자 기르는 일”

마산태봉고는 전교생이 기숙사 생활을 하는 공립 대안학교로, 일반학교의 교육과정과는 차별된 교육으로 학교에 활기를 불어넣고 있다. ‘학교를 넘어서 학교’가 될 수 있도록 교육과정 가운데 체험과 나눔(봉사) 활동을 비중있게 운영하고 있다. 3년째 진행하고 있는 LTI 프로젝트 학습(인턴십을 통한 학습)도 그 중 하나다. LTI 프로젝트 학습은 학생들이 각자의 관심에 따라 직업현장에서 멘토가 되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며 수행하는 학습으로, 정부에서 학생들의 꿈과 끼를 발견하고 키우도록 도입 중인 ‘중학교 자유학기제’의 사업 방향과도 일맥상통한다.

태봉고는 주2회 6시간을 ‘인턴십’ 과목으로 편성, 매 학기단위로 LTI 프로젝트 학습을 진행한다. 길잡이교사와 학생 간의 상담을 통해 관심 영역에 따른 직업현장을 찾아 보고, 지역사회의 대학, 기업, NGO, 관공서, 예술단체,



05

연구소, 전시장 등을 방문하여 전문가 멘토를 확보한다. 학생들은 각자 자신의 진로와 학습목표를 정하고 여기에 도달하기 위해 프로젝트 길잡이

교사와 전문가 멘토의 도움을 받아 계획을 세우고 실행해 나간다. 이때 모든 과정은 평가하고 성찰하게 된다. 인턴십을 통해 학생과 길잡이교사, 멘토 간의 역동적인 관계가 형성되고 학교교육과 학교 밖의 교육이 통합되고 확장되는 것이다. 3년간의 깊이 있는 진로고민은 자아 찾기로 이어지고 결국은 진로체험을 넘어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하는 삶에 대한 철학적인 접근으로 이어진다.

“LTI 프로젝트 학습, 즉 인턴십은 무기력하게 학교를 다니는 아이들에게 끼를 키울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주는데 의미가 있습니다. 자신의 꿈과 배움을 스스로 디자인하는 훈련을 하는 거죠. 궁극적으로는 의욕적인 평생학습자를 길러내기 위한 활동입니다.”

여태전 교장의 설명이다. 3년간의 LTI 프로젝트 학습은 학교에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수업시간에 무기력했던 아이들은 원하는 일을 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면서 얼굴에 생기가 돌았고, 약속을 쉽게 생각하고 지키지 않던 아이는 멘토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운동복에 슬리퍼 차림으로 멘토를 섭외하러 가던 아이들은 여러 번 거절당하면서 자신이 가진 문제가 무엇인지 되돌아보고, 옷차림을 고치기도 했다. 특히 자신이 존경하는 멘토와 만나면서 꿈을 눈으로 확신한 아이들은 배움에 열의를 보이기 시작했다. 서용수 교사는 “방황하고 흔들리는 아이들도 예외없이 참여한다. 내면의 성장을 수치로 표현할 수는 없지만 아이들의 변화와 발전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고 설명한다.

‘나를 깨운다’ 네팔로 떠나는 이동학습

태봉고의 여태전 교장과 교사들은 학생들을 바라보는데, 편견과 오해를 없애기 위해서 문제의 원인, 배경에 주목한다. 왜 대안교육이 필요한지, 공교육 속에서 그 해답을 찾으려고 노력하고 있다.

“왜 힘든 아이들이 생겨났는지 교육의 본질적인 측면에서 접근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여태전 교장은 대안교육 현장에서 끊임없이 고민하고 갈등하는 교사들에게 드러난 현상이나 결과부터 보지 말고, 그 동기와 과정부터 이해할 때 아이들을 온전히 이해할 수 있다고 말한다. 학생을 온전히 이해하기 위해서 많은 기다림과 내려놓기를 반복하고 있다. 그 중심에는 ‘학생’이 있다.

이 학교는 매주 3시간씩 수업사례연구회를 통해 ‘배움의 공동체’ 수업을 이끌고 있다. 학생과 교사 간의 관계 맺기가 이뤄지고, 학생의 변화를 발견하고 의외의 모습을 알아가는 것도 수업에서 이뤄지기 때문이다. 수업사례연구회의 특징은 교사의 ‘수업기술’보다는 학습자의 ‘배움’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것이다. ‘어떻게 가르쳐야 하는가’보다는 학습자가 ‘어디에서 배우고 어디에서 주춤거리는가’에 주목한다. 그리고 수업에 대한 조언보다는 수업관찰 후 본인이 배운 것을 이야기한다. 오롯이 학생의 배움에 초점을 두고, 학생을 이해하는 과정이다.

한편, 태봉고는 학년별로 이동학습을 진행해, 학교밖의 세상에서 자신을 돌아보는 또 다른 계기로 삼고 있다. 1학년은 제주도로 자신을 찾아 떠나는 도보여행을, 2학년은 네팔 이동학습을, 3학년은 진로체험을 위한 이동학습을



06

진행 중이다. 올 4월에 2학년생 47명과 교사 4명이 15박 16일 일정으로 네팔로 이동학습을 다녀왔다. 네팔은 4만 명 정도의 한국인이 히말라야 트레킹을 위해 찾지만 학생들은 네팔의 교육문화 체험과 봉사활동을 목적으로 간다.

여 교장은 “우리 아이들이 자존감이 낮고 불평불만이 많다. 비교에 따른 열등의식도 높은 편이다. 무기력한 이 아이들에게 가난 속에서도 꿈을 꾸고 눈빛이 초롱초롱한 네팔 아이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다.”고 말한다. 네팔로 이동수업을 다녀온 조다인 학생은 “네팔의 학생들은 교복을 못 입었거나, 신발 없이 맨발로 운동장을 뛰기도 했다. 끼니를 해결하기 위해 구걸하는 길거리의 아이들을 보면서 눈시울이 붉어졌다. 내가 들고 있는 스마트폰, 애플리기가 모두 사치스럽고, 자신이 부끄러웠다.”고 회상했다.

네팔 이동학습에 소요되는 경비는 1인당 평균 180만 원 수준.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학생의 경우에는 학교측에서 지역사회 후원금으로 이동학습 경비를 충당하고 있다.

태봉고는 그동안 ‘담쟁이 정신’으로 무장해왔다. ‘넘을 수 없는 벽이라고 고개를 떨구고 있을 때/ 담쟁이 잎 하나는 담쟁이 잎 수천 개를 이끌고/ 결국 그 벽을 넘는다’는 도종환 시인의 ‘담쟁이’처럼 현실의 벽을 만날 때 ‘한 뼘이라도 꼭 여럿이 함께’ 그 벽을 넘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다. 올해 첫 졸업생을 배출한 태봉고는 44명의 학생 모두 각자의 진로를 찾아 떠났다. 태봉고 141명의 학생들 중, 여전히 방황의 길에서 흔들리는 학생들도 있다. 그렇지만 담쟁이 정신으로 무장한 교사들이 있기에 꿈은 진행형이다. ②

김태완 서울예일초 교사의 ‘스토리텔링 수학’ 수업

하나의 이야기로 연결하는 ‘맥락’이 핵심

수학 흥미 높이며 도전적 참여 이끈다



01

김태완(36) 서울예일초 교사의 ‘스토리텔링 수학’ 수업의 핵심은 ‘맥락’에 있다. 수업 40분간 모든 활동은 하나의 이야기 틀 속에서 긴밀히 연결되어 이어진다. 김 교사는 ‘스토리텔링 수학’에 대해 “수업 자체가 하나의 이야기로 구성돼 있다. 스토리 안에 재미와 학습이 긴밀하게 균형을 이뤄 아이들이 흠뻑 빠져들도록 하는 수업”이라고 정의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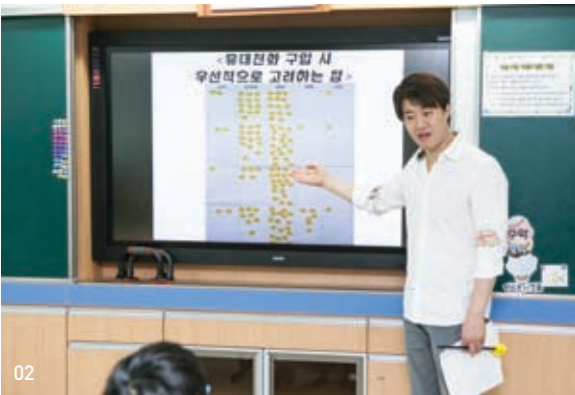
과거에도 수학 수업에 스토리를 활용한 예는 많다. 수식 계산 등의 문제를 풀 때 이야기를 접목하거나 학생들의 학습 동기를 유발하기 위해 수업 도입부나 활동 초반에 이야기를 제시하는 형태가 일반적이었다. 김 교사는 “그동안에는 이야기로 흥미를 유도한 후에 활동1, 활동2가 개별적으로 이뤄졌다. 스토리텔링 수학은 모든 활동을 하나의 이야기로 묶는 것이 가장 큰 차이”라고 설명한다.

수업 도입부터 정리까지 한 가지 이야기로 연결

지난 7월 11일 예일초 6학년 2반 교실. 이날의 수학 수업 주제는 ‘비율 그래프를 활용해 제품 디자인하기’다. 수업의 시작은 휴대폰 회사 사장의 고민에서부터 시작된다. 김 교사는 수업 전 학생들에게 나눠 준 활동지를 통해 하나의 이야기를 들려준다.

“여러분, 휴대폰 전자 사장님이 큰 고민이 있다고 합니다. 새로운 휴대폰을 개발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만들어야 할지 6학년 2반 친구들에게 물어보고 싶다는데요. 사장님과 비서가 나누는 대화를 들어봅시다.”

6-2반 학생들은 지난 수업시간 휴대폰화를 살 때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점을 주제로 설문조사에 참여했다. 가격, 디자인, 기능, 유행, 기타 등 각 요소에 중요도를 투표하고 그 결과를 백분율로 구하는 활동을 진행했다. 이번 시간에는 백분율 결과를 비율그래프로 그리고 휴대폰을 개발할 때 먼저 고려해야 할 점을 추출해 냈다. 인터넷·SNS 기능(45%), 게임(20%), 카메라·영상(15%) 순으로 중요도를 고려해 휴대폰을 개발해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한 아이들.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비율그래프를 활용하고 개념을 이해해 간다. 우동균 군은 “인터넷 등 기능이 뛰어난 제품이 소비자에게 잘 팔릴 것



02



03

01. 스토리텔링 수학 수업은 스토리 안에 재미와 학습이 균형을 이루며 아이들이 수업에 흠뻑 빠져들 수 있도록 이끈다.

02. 03. 수업 초기 휴대폰 사장의 이야기로 시작한 수업은 최종 ‘디자인 설계’ 활동으로 연결된다.

이다. 전체에 대한 각 항목의 크기를 비율그래프로 나타내 보니 먼저 고려해야 할 점이 한 눈에 보인다.”고 말한다.

교과단원 재구성 노력… 수업활동지 적극 활용

수업 초기 휴대폰 사장의 이야기로 시작한 수업은 최종 ‘디자인 설계’ 활동으로 연결된다. 김 교사는 휴대폰 기술의 발전상을 설명한 후 비율그래프 결과를 고려해 차세대 휴대폰 디자인을 그리는 것을 활동과제로 제시했다.

“1990년대 핸드폰은 크고 무거워 보이죠? 흔히 ‘아령 폰’이라고 불렸어요(하하). 1999년에 처음으로 폴더형이 출시됐구요. 2008년에는 DMB로 TV를 시청할 수 있었지요. 카메라 기능도 장착됐어요. 2010년에는 여러분이



04. 05 아이들이 졸업할 때 “수학, 도전해 볼만하다.”는 말을 듣는 게 목표라고 말하는 김 교사와 6~2반 아이들
06. 스토리텔링 수학 수업활동지
07. 스토리텔링 수학 수업에서 아이들은 수학에 흥미를 갖고 수업에 도전적 자세로 임한다.



잘 아는 스마트폰이네요. 이때부터 휴대폰으로 인터넷 사용이 가능해졌는데요. 그렇다면, 앞으로 등장할 휴대폰은 어떤 모습일까요?”

김 교사의 설명이 끝나고 아이들은 10분간 자신만의 휴대전화를 그리기 시작했다. 모델명을 정하고 제품의 특징과 가격도 나름대로 정해본다. 배군우 군이 고안한 제품명은 ‘손목 to you’. 손목에 찰 수 있도록 편리성을 강화하고, LTE보다 2~3배는 빠른 인터넷 속도를 구현한 휴대폰이다. “비율그래프에 나타난 게임·영상 기능을 강화해 이미지를 3차원 영상으로 보여주는 액정을 고안했다.”는 배 군은 1억 5천만 원의 가격을 책정해 친구들의 웃음을 샀다. 충전할 필요가 없는 휴대폰을 선보인 허정석 군, 홍채인식으로 보안 기능을 강화한 우동균 군을 비롯해 종이처럼 접히는 ‘i-paper’폰을 선보인 주상현 군도 주목을 받았다. 고하나 양은 “수학 시간이 재미있다. 백분율을 계산하고 비율그래프로 그리는 게 흥미롭다.”고 말한다. 조영준 군은 “수학시간에 상상할 거리가 많다.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이 재미있고, 배운 내용을 활용할 수 있어 뿌듯하다.”고 웃는다.

이야기 ‘맥락 짜기’ 가장 중요

김 교사 수업의 특징은 수업이 이야기의 흐름으로 진행된다는 점이다. 휴대폰 사장의 고민에서 시작해 새로운 휴대폰 모델을 디자인하는 것으로 1차시가 진행된다. 김 교

사는 “스토리텔링 수학은 어떻게 보면 이전부터 해오던 수업방식에서 이야기 구조가 강화된 형태다. 하나의 단원이 혹은 수업이 이야기로 맥락을 갖는 것”이라고 말한다.

교육부는 올해 새 학기부터 초등학교 1, 2학년과 중학교 1학년에 스토리텔링을 적용한 수학교과서를 도입했다. OECD 국제 학력평가프로그램(PISA)에서 보듯 수학 성적은 높은 데 반해 흥미는 낮다는 점을 개선하기 위한 수학교육선진화 계획의 일환이다. 김 교사는 “스토리텔링 수업을 하면 학생들이 우선 재미있어 한다. 흥미를 갖고 수업에 도전적 자세로 임한다.”고 말한다. 이어 “스스로 학습하려는 동기도 강해져 자기주도적 학습 능력이 향상된다. 초등학교에서는 수학에 흥미를 느끼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 흥미를 갖게 되면 중·고등학교로 진학해도 ‘수학 포기자’가 생기지 않기 때문”이라고 덧붙인다.

문제는 스토리의 개발. 스토리텔링 수학 수업을 하기 위해서는 교사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한 차시 혹은 한 단원 전체를 아우르는 큰 이야기 줄거리를 잡아야 하고, 각 학습내용이 이야기의 ‘흥미’와 ‘재미’를 깨지 않도록 잘 접목시켜야 한다. 아이들과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 ‘맥락 짜기’가 쉽지 않은 이유다. 올해로 교직경력 12년 차인 김 교사는 아이디어를 얻기 위해 항상 메모장을 들고 다니는 습관도 생겼다.

“수학은 타 과목보다 이야기 짜기가 어려워요. 수학사 등 관련 서적도 별로 없을 뿐더러 수리 연산 학습과 딱 맞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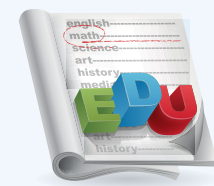
아떨어지는 이야기를 만들기란 무척 힘든 일이지요. 어린 딸에게 동화책을 읽어주면서도 이야기 거리를 찾아요. 재미나고 참신한 소재가 있으면 학습내용과 연관 지을 수 있는 스토리를 계속 고민하지요. 신문이나 방송도 꼼꼼히 챙겨보면서 아이디어가 생길 때마다 메모장에 기록해요.”

스토리텔링 학습자료 개발 필요

김 교사는 ‘스토리텔링 수학’ 수업이 학교 현장에 정착하기 위해서는 학습자료(스토리가 가미된 보조학습 자료) 개발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그는 현재 대학원에서 수업 연구팀으로 참여하며 수업자료를 개발하고 있다. 그리고 8년 전부터 수업에 적용하기 시작한 이야기 자료들을 활용해 ‘스토리텔링’ 수업활동지를 만들어 활용하고 있다. 활동지 결과물은 연간 포트폴리오로 만들고 수행평가에 반영한다. 예일초는 반별 시험 평가체제로 운영되는데 시험 50%, 포트폴리오 40%, 수업태도 10%가 반영된다.

한편, 김 교사는 올해 EBS 여름방학생활 신규부록인 ‘창의수학’ 2학년 집필에 참여했다. ‘스토리텔링’과 ‘STEAM(융합)’이 이 책의 특징이라고 밝힌 그는 만화와 생활 사례를 활용해 수 연산, 도형, 측정 등의 수학 개념을 재미있게 설명하는 데 목적을 뒀다. 올해는 『스토리텔링 수학』 서적도 출간할 예정. 아이들이 졸업할 때 “수학, 도전해 볼만하다.”는 이야기를 듣는 게 목표라는 그는 스토리텔링 수학 수업이 그 목표를 달성하는 수단이 될 것이라고 전한다. ②

김태완 교사가 전하는 ‘여름방학 수학공부’ 전략



방학기간 수학공부는 대부분 선행학습으로 이뤄진다. 그러나 선행학습은 학교 수업에 대한 흥미를 떨어뜨리고 스스로 학습하는 능력을 키워주지

못한다. 방학기간에는 오히려 지난 학기에 배운 내용을 복습하고 보다 깊게 파고드는 심화학습이 학습효과가 더욱 크다. 특히나 창의적이고 탐구할 수 있는 문제면 금상첨화다.

시중에 출판된 다양한 학습지를 활용해도 되지만, 교과서만 충분히 활용해도 심화학습 목표를 충족시킬 수 있다. 특히 초등학교 1, 2학년과 중학교 1학년은 2009 개정교육과정의 ‘스토리텔링 수학’ 교과서를 활용하면 안성맞춤이다. 교과서를 보면 창의·놀이·이야기 마당 등 각 단원마다 심화학습 활동이 다양하게 제시돼 있는데 방학기간에 꼼꼼히 풀어보면 좋다. 또한 EBS에서는 여름방학을 맞아 ‘창의수학’ 등 다양한 부록교재들을 출판하고 있다. 사고력이 필요한 탐구 문제를 풀면 수학적 사고력을 높일 수 있다.

※ 『행복한 교육』 웹진(<http://happyedu.moe.go.kr>)에서 기사에 소개된 김태완 교사의 ‘비율그래프’ 교수·학습 과정안과 수업활동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8월 15일 광복의 그날



‘금일 정오 중대 방송, 1억 국민 필청(必聽)’

1945년 8월 15일 아침, 위와 같은 내용의 벽보가 경성 거리 곳곳에 나붙었다. 그 벽보를 본 사람들은 기대감보다는 두려움에 긴장한 표정을 지었다. 전시 상황이라 또 무엇을 강요할지 모르기 때문이었다.

드디어 정오가 되자 모든 사람들이 라디오에 귀를 기울였다. 시보에 이어 일본 국왕의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전략) 아메리카합중국, 영국, 중국 및 소련 정부에게 우리 제국이 이들 여러 나라 정부의 공동성명 조건을 수락함을 통고시켰노라…….”

연합군의 포츠담 선언을 받아들인다는 얘기였다. 일제의 항복 선언이 방송되자, 일순간 한국인들은 귀를 의심했다. 그것도 잠시 누군가의 “만세!” 소리를 시작으로 사람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왔다. 1945년 당시 서울 인구는 90만 명이었다. 백만 명이 채 안 됐으나 만세 함성은 천만 명 소리보다 컸다.

1945년 8월 15일, 해방을 맞이하다

“애국가 가사가 뭐였더라?”

“태극기는 어떻게 생겼지?”

안타깝게도 당시 대부분 한국인들은 일제 강압통치 아래 민족문화를 말살 당했기에 애국가를 제대로 기억하지 못했다. 국민들은 서로 다른 가사의 애국가를 부르며 거리를 행진했다. 태극기 모양도 가지각색이었다. 물감과 흰색 천이 귀해서 일본 일장기의 빨간 부분 중 절반을 먹물로 칠했고 흰 바탕에는 4괘 또는 8괘를 그려 태극기로 사용했다. 하여 한동안 사람들은 김정과 빨강 태극무늬의 깃발을 들고 사진을 찍었다.

총독부에 근무하던 조선인 몇 명이 서대문 근처 독립문으로 달려가서 태극기 모양을 그대로 옮겨 그린 다음 총독부 국기계양대에 매달았다. 해방된 서울 하늘에 가장 먼저 태극기가 게양된 것이다.

오후 3시쯤 되자, 거리는 ‘뽀뽀’와 국민복 대신 하얀 한복 차림에 태극기와 ‘축 해방’, ‘방선(放鮮)’



지금의 대한민국은 힘들게 나라를 되찾았지만, 민족과 땅은 남북으로 갈라져 있고 주변 나라들의 영향에서 자유롭지 않은 게 현실이다. 일제강점기에 귀한 목숨과 소중한 재산을 아낌없이 바친 독립운동가들에게 부끄럽지 않도록, 광복의 의미를 새삼 되새겨 볼 일이다.

피켓을 손에 든 시민들로 붐비기 시작했다. 전쟁 내내 방공 훈련이다, 물자 배급이다 해서 신분 귀천 없이 모두 동원되어 서로 어깨를 비비대고 행동해왔던 터라, 거리 행진에 남녀노소 거리낌이 없었다.

♪궁짜라작작 궁짜♪

해방된 느낌은 악극(樂劇)을 통해서 거듭 확인되었다. 크고 작은 극단들이 전국 시장에서 국민과 함께 해방의 기쁨을 나눴다. 예컨대 김성택(가수 해은이의 아버지)도 〈건국좌〉극단을 이끌고 광복에 관련된 공연을 펼쳤다. 사람들은 공연 줄거리를 잘 알면서도 해방의 감격을 확인하고 또 확인했다.

해방인가, 광복인가

그러나 해방이되, 완전한 광복은 아니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 요인들의 환국에서 그런 현실이 여실히 드러났다. 중국에서 임시정부 요인들은 환국을 결정하고도 무려 석 달이나 기다려야 했다. 미 군정이 한반도의 권력을 차지하고 있었던 까닭이다. 1945년 11월 21일에야 맥아더 장군이 김구 주석의 입국을 승인했다. 조국 땅을 밟기 위해 외국인 승인을 받게 될 줄이야 누가 짐작이나 했을까?

그나마 개인 자격 환국에, 귀국 인사도 단 2분이라는 단서가 달렸다. 백범 김구는 짧은 방송을 통해 “앞으로 전국 동포가 하나 되어 국가 독립 시간을 최소한도로 단축합니다.”라고 호소하고는, 죽점장으로 향했다. 앞서 귀국해 돈암장에 머물던 이승만이 김구를 예방했다. 두 사람은 뜨겁게 손을 잡았지만 이후의 운명은 돌을 갈라놓았다.

1945년 8월 이후의 한반도는 어찌 보면 ‘해방(解放)’과 ‘광복(光復)’, 두 단어 사이에서의 줄타기 같은 느낌이 든다. 해방은 속박에서 벗어남을 의미하고, 광복은 빼앗긴 주권을 다시 찾음을 뜻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더욱 그렇지 않을까. 그래서 일각에서는 1948년 8월 15일 독립국가로서 대한민국 정부 수립을 선언한 날을 진정한 ‘광복’으로 보기도 한다.

지금의 대한민국은 어떠한가? 힘들게 나라를 되찾았지만, 민족과 땅은 남북으로 갈라져 있고 주변 나라들의 영향에서 자유롭지 않은 게 현실이다. 일제강점기에 귀한 목숨과 소중한 재산을 아낌없이 바친 독립운동가들에게 부끄럽지 않도록, 광복의 의미를 새삼 되새겨 볼 일이다. ②





제2의 삶으로 '봉사'를 선택한 이한규 들꽃도서관장

미국의 석유 재벌이자 최고 부자였던 존 D. 록펠러의 삶에 관한 이야기가 있다. 53세에 최고 부자 타이틀을 거머쥔 록펠러는 55세 되던 해에 암으로 인해 1년밖에 살지 못한다는 진단을 받게 된다. 병원을 나오던 그는 병원비가 없어 간호사에게 애원하는 아주머니를 보게 되고 자신의 돈을 기부하여 아주머니를 구제한다. 이후 봉사를 통해 보람을 느낀 록펠러는 자선사업가로 여생을 보내며 90세까지 장수하게 된다는 실화다.

“위 이야기가 뜻 깊은 것은 록펠러가 남을 돕는 삶에 대한 행복을 느끼고 있었고 그것이 스스로에게도 도움이 되었기 때문”이라고 이한규 들꽃도서관장(이하 관장)은 말했다.

전 공무원 간부이자 시인·목사·강사교육단장·자원봉사자 등 다양한 활동분야에 몸담고 있는 이한규 관장은 안정된 직업인 공무원을 42세 때 과감히 포기하고 자원봉사자의 길로 입문했다. 주변의 우려와 만류 속에서도 그가 굳은 결심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제2의 삶'을 준비하겠다는 의지였다. 그는 “지금 이 순간에도 많은 한국인들이 제2의 삶에 대해 준비 없이

나온다. 눈여겨 보는 이는 많지 않지만 삶의 질에 있어 중요성은 크다.”고 말했다.

그가 제2의 삶으로 택한 일은 봉사였다. 그가 고려한 최우선적인 덕목은 행복과 가치, 그리고 보람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삶이었고, 자원봉사자는 이런 덕목에 매우 부합했다. 이제는 헛바퀴처럼 자신의 삶과 맞물려 돌아가는 봉사활동을 보고 그는 이렇게 정의했다. “봉사는 내가 행복해지고, 남이 행복해지고, 우리가 행복해지는 것”이라고.

그에게 행복을 실현하는 봉사 중 하나는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점자책을 타이핑하고 인쇄하는 일이다. 인연이 있는 시각장애학생 등을 위해 동료 자원봉사자와 함께 짬짬이 타이핑하고 인쇄해서 이미 상당수가 점자책으로 나오게 되었다. 그는 “앞으로도 점자책을 만들기 위한 봉사를 활발히 하여 시각장애학생들이 뒤처지지 않고 공부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다.”고 말했다.

봉사를 삶의 중심에 놓고 산다는 건 참으로 쉽지 않은 일이다. ‘나’보다는 ‘우리’를 위해 살아가겠다는 결심이 얼마나 어려운가. 이한규 관장은 남들이 잘 가지 않는 길을 가면서도 ‘행복하다’고 말한다. 아마도 ‘내’가 느끼는 행복의 크기보다 ‘우리’가 느끼는 행복의 크기가 훨씬 크기 때문인가 보다. ②

글_ 나상호 전남대학교 대학생



이한규 도서관장



독자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주위에 칭찬하고 싶은 아름다운
사례가 있으면 편집실로 보내주세요.
보내실 곳 eduzine@hanmail.net



김윤기 연구사의
살리는 생활지도

Q

“공부 1등 친구에게 매사에 열등감을 느끼는데..”

학급 내에 성적도 좋고 성실하게 공부하는 잘난이(가명)가 있는데, 자기 자신을 늘 1등인 친구와 견주어 보고 자괴감에 빠져있습니다. 최선을 다한 결과이니 자랑스럽게 받아들이라고 조언을 해주어도 필요 이상 낙담하고 괴로워하는 모습을 보면 답임으로서 참 안타깝습니다. 성적이 상위권인데도 스스로 열등감에 사로잡혀 있는 아이에게는 어떤 지도가 필요할까요.

A

사람마다 삶의 목적이 있지요. 어떤 사람들은 부자가 되는 것을, 또 어떤 사람들은 높은 지위를...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명예를 얻는 것을 살아가는 목표로 삼고 있지요. 그러나 학창시절에 한정한다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공부를 잘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왜 공부를 해야 하는가보다 결과로서 공부를 잘하기만 하는 것에 집중하고 강요해온 것이 사실이지요.

1등. 매력적이고 달콤하며 희열을 주는 말임에 틀림없습니다. 하지만 이 1등 뒤에는 수많은 아픔과 고통 그리고 좌절이 따라옵니다. 때로는 1등을 하고도 기뻐하기보다 불안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최근에 와서야 결과로서 1등보다 과정으로서 공부를 즐길 것을 강조하는 분위기로 바뀌고는 있지만, 아직도 1등이 아니면 만족할 줄 모르고 실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위에서 말하는 잘난이(가명)처럼 공부도 잘하고 운동실력도 뛰어나며 다방면에 재주가 많으면서도 꼭 최고인 친구와 견주어 보면서 실망하는 친구들도 있지요.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다보면 간혹 모차르트처럼 어떤 분야에 탁월한 능력을 가진 아이들을 볼 수 있습니다. 조기교육 때문인지, 선천적으로 타고난 것인지 모르겠지만, 도저히 동료 친구들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뛰어난 능력을 보여주는 아이. 그런 아이를 보노라면 모차르트와 동시대에 살았던 살리에리가 모차르트에게 느꼈던 마음—**살리에리 증후군**—도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살리에리는 영화 속에서처럼 모차르트에게 열등감도 비굴함도 느끼지 않았다고 합니다. 긍정 음악가로 자신의 길을 걸어갔던 거죠.

그럼 잘난이같은 아이들이 생기는 이유는 뭘까요. 처음부터 잘난이가 최고인 아이와 비교하고 실망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잘난이가 살리에리 증후군에 빠진 것은 부모님이나 주위 어른들의 영향이 클 겁니다. 형과 동생을 비교하고, 사촌지간 또래와 비교하고 더 나아가 옆집아와 같은 옆집아와 끊임없이 비교하면서 열심히 하라고 말하기보다 더 좋은 결과를 얻으라고 말했기 때문일 겁니다.

선생님 만약 잘난이와 같은 아이가 있다면 아이를 바꾸려고 하기보다 부모님을 먼저 설득해보세요. 잘난이가 지금도 충분히 잘하고 있기에, 지금 하는 공부와 각종 활동을 즐기면서 할 수 있도록 끊임없는 칭찬하도록 부탁해 보세요.

8월. 강렬한 태양만큼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고 자기가 좋아하는 책을 원 없이 보아 방학이 끝나면 한 뼘씩은 성장했으면 좋겠네요.

바다가 비에 젖지 않듯이, 시련에 굴하지 않는 아이들이 되도록. 선생님! 오늘도 파이팅입니다. ②

〈생활 속 교육심리〉
코너에서 자세히
소개해 놓았습니다.

경쟁자에게 느끼는 열등의식, 살리에리 증후군

살리에리 증후군이란 나와 경쟁 관계에 있는 상대방에게 천재적인 뭔가가 존재해서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따라가지 못할 경우, 그에 대한 열등의식이나 질투심을 느끼는 증후군을 말한다. 19세기 당대의 모차르트(Wolfgang Amadeus Mozart, 1756~1791) 못지않게 잘 나갔던 음악가 안토니오 살리에리(Antonio Salieri, 1750~1825)가 모차르트에게 열등감을 느꼈다는 데서 유래되었다.

사실 살리에리는 이탈리아 출신으로 유년기부터 음악에 재능을 보여, 1766년 빈 궁정에 초빙되어 궁정작곡가로 활동한 뛰어난 음악가다. 베토벤, 슈베르트, 리스트 등도 살리에리에게 음악을 배웠으며, 베토벤은 자신이 작곡한 3곡을 살리에리에게 헌정하기도 했다. 실제로 살리에리가 모차르트를 질투하고 독살했는지에 대해선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다. 하지만 질투의 화신으로 나오는 영화 '아마테우스'의 원작이기도 한 푸시킨의 '모차르트와 살리에리(1831)'에서 살리에리는 보통사람으로서 아무리 노력해도 천재를 따라가지 못해 스스로 좌절하고 결국엔 상대를 시기하고 미워하는 인물로 설정되었고, 이로 인해 살리에리 증후군이란 말도 생기게 되었다.

보통사람이라면 누구나 아무리 노력해도 극복할 수 없는 상대가 있다는 걸 받아들이는 일이 쉬운 일은 아니다. 삼국지에서 주유가 제갈량과의 싸움에서 번번이 지고, “왜 하늘은 나를 내시고 또 제갈량을 내셨습니까?” 하고 하늘을 원망했다는 것도 같은 이치다. 이번만은, 이번만은 하면서 노력했는데 한 번도 결과가 좋지 못했다면...

하지만, 세상은 수학처럼 열심히 노력하면 열심히 노력한 만큼 정확하게 보상해주지는 않는다. 열을 노력해서 열을 얻으면 좋겠지만, 열을 노력하고 여덟이나 일곱을 얻을 수도 있고, 때로는 반도 얻지 못할 때도 있다. 반대로 노력은 열을 했는데, 운(?) 좋게도 열다섯, 스물의 성과를 얻을

때도 있다. 그래서 유학에서는 ‘誠者天之道(성자천지도) 誠之者人之道(성지자인지도)’라고 하여, 성(誠)함 즉 진실함은 인간의 수준을 넘어선 하늘의 단계요, 사람은 단지 성(誠)함에 도달하고자 노력할 뿐이라고 했다. 사람은 성(誠)하려고 노력하는 것에 만족해야지 결과가 만족스럽게 나오기를 기대해선 안 된다는 것이다. 기대하는 순간 좌절할 수 있기 때문이다.

남과 비교하는 순간 불행의 길에 들어선다

얼마 전, LA 다저스에서 뛰고 있는 류현진 선수가 3-1로 이기고 있는 상황에서 7회 다음투수에게 볼을 넘겨줬지만, 후속 투수들이 동점을 허용하여 승수를 챙기지 못했다. 한두 번이 아니다. 6월 한 달 동안 잘 던지고도 1승도 못 올렸다. 하지만, 류현진 선수는 웃으며 “못 던지고도 타선지원 덕분에 승리를 얻을 때도 있다. 살다보면 이럴 때도 있기 마련이다. 결과에 연연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정말 훌륭한 투수다.

요즘 경쟁이 치열하다보니 학교에서도 많은 학생들이 성적에 민감하게 반응한다. 일등이 아니면 만족하지 못하는 학생이 많다. 반에서 일등은 전교 일등을 향해, 전교 일등은 전국 일등을 향해 신발 끈을 풀지 못한다.

살리에리처럼 재능도 있고 주변 인정도 받지만 극소수의 천재적 인물과 비교하면서 좌절하고 실망하는 학생이 있다. 공부에서, 운동에서 심지어 외모에서까지 남들과 비교하여 스스로 좌절하는 건 심각한 문제다.

그러나 대부분의 학생들은 처음부터 경쟁의 화신이 된 건 아니다. 부모나 주위에서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경우가 대부분이다. 끊임없이 불안감을 조성하여 숨이 넘어갈 듯 힘든 상황에서도 전력질주하지 않으면 실패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는 공포감을 조성하고, 저 친구를 이기지 못하

살리에리 증후군이란 나와 경쟁 관계에 있는 상대방에게 천재적인 뭔가가 존재해서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따라가지 못할 경우, 그에 대한 열등의식이나 질투심을 느끼는 증후군을 말한다. 19세기 당대의 모차르트 못지않게 잘 나갔던 음악가 안토니오 살리에리가 모차르트에게 열등감을 느꼈다는 데서 유래되었다.

면 낙오자가 된다는 경쟁심을 심어주기에 현실에 만족하지 못하는 기형적 성격의 학생이 양산되고 있다.

죽자고 뛰고 있는데 웃으며 설렁설렁 앞에서 뛰어가는 사람의 뒷모습을 바라보는 것은 분명 기분 좋은 일은 아니다. 그렇지만 그런 사람이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 누구나 차두리처럼 뛸 순 없다. 차범근같은 아버지를 둔 사람도 있고, 작은 키에 운동신경이 쥔병인 아버지 덕분(?)에 죽어라 뛰어도 100M를 15초에도 뛰지 못하는 사람도 있다. 나는 왜 차두리처럼 100M를 11초대에 뛰지 못할까 고민할 필요가 없다. 고민하는 순간 인생은 불행해진다. 차두리와 비교하기보다 자신의 상황을 인정하고 긍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나의 인생에 집중하라

전 세계 43개국 400만 명 이상에게 꿈과 희망을 전하는 ‘닉 부이치치’도 팔 다리 사지가 없지만, 다이빙과 테니스, 승마, 서핑과 같은 스포츠와 전자드럼, 키보드 연주를 즐기고 있다. 그는 “나는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내 한계를 정하고 싶진 않았다.”며 남과 비교하기보다 자신의 인생에 충실한 삶을 살고 있다.

‘닉 부이치치’처럼은 아닐지라도 우리도 남과 비교하며 스스로 좌절을 찾아가기보다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하면서 만족하는 것이 중요하다.

사실, 지금 천재처럼 보이고 타고난 재능으로 손쉽게 현재의 위치에 오른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도 피나는 노력의 산물인 경우가 많다. 음악의 신동이라 불리는 모차르트도 “다른 사람들은 내가 신(神)처럼 쉽게 작곡한다고 말한다. 하지만 그건 착각이다. 아마 나처럼 많은 시간과 생각을 작곡을 위해 투자한 사람도 없을 것이다.”고 말했다(볼프강 아마데우스 모차르트). ②





서남수 장관의 행복한 교육이야기



“희망의 새 시대를 여는
교육이 되겠습니다.
아이들의 잠재력을 찾아내고
키워주는 창의교육,
사람됨을 길러주는 인성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는 공교육 체제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서남수 장관의 페이스북 <https://www.facebook.com/nsseomoe>



01 서남수 장관은 지난 7월 4일 고려대에서 주요 보직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창조경제 구현을 위한 대학의 역할과 협력방안'이라는 주제로 간담회를 열었다. 서 장관은 이날 간담회에서 대학이 창의적인 융합형 인재를 길러내고 창업과 산학협력이 더 활성화돼야 한다고 전했다. **02** '새 정부, 대구교육의 미래는?'이라는 주제로 대구KBS 일요진단 프로그램을 녹화한 서남수 장관(7월 5일) **03** 서남수 장관은 지난 7월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요한 슈나יד어 암만 스위스 경제교육연구부 장관과 면담을 가졌다. **04** 지난 7월 9일 EBS와 함께하는 현문즉답 '특집 2013 행복교육 공감'을 녹화한 서남수 장관. 현문즉답은 교육부의 현장 소통 프로그램인 공감토크쇼로 서 장관은 이날 교사, 학부모 등 100명과 학교교육을 살리는 해법 등을 논의했다. **05** 서남수 장관은 지난 7월 11일 학교폭력 피해학생 전담지원기관인 '해맑음센터' 개소식에 참석했다. 이날 개소한 해맑음센터는 대전시교육청과 (사)학교폭력피해자가족협의회의 업무협약으로 위탁 운영되는 전국단위 학교폭력 피해자 전담지원기관으로, 학교폭력으로부터 아픔을 겪는 피해학생과 가족의 치유, 상담, 교육을 위한 기숙형 종합지원센터이다. **06** 지난 7월 11일 충북 진천군 충북청명학생교육원을 방문한 서남수 장관은 학생, 학부모, 교사 등 10여 명과 간담회를 갖고 의견을 나눴다. 청명학생교육원은 충북도교육청이 학교 부적응학생을 위해 설립한 대안교육기관으로 2010년 9월 개원했다. **07** 서남수 장관이 지난 7월 12일 경기도 고양시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2013 대한민국 행복 교육기부 박람회'에서 참가 기관의 교육기부를 체험해 보고 있다. **08** 서남수 장관은 지난 7월 22일 경제5단체장과 간담회를 열고, 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창의인재 육성 방안에 대한 의견을 논의했다. **09** 지난달 18일 서남수 장관은 성남방송고등학교 특수학급에서 '장애학생 행복교육을 위한 현장토론회'를 열었다. 서 장관은 장애학생, 학부모, 일반 학생, 교사 등 200명과 함께 장애학생의 통합교육, 진로·직업교육, 특수교육교원의 법정 정원 확보 방안 등을 논의했다. **10**





기획 II

교육으로 ‘독도’ 지킨다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은 1990년대 중반부터 시작해 2000년대 이후 거의 매해 되풀이되고 있다.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독도가 대한민국의 영토임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도발은 계속되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교육을 통해 독도가 왜 우리의 영토인지 확실히 인지하고 차분하게 대응해 나갈 필요가 있다. 정부는 동북아역사재단을 중심으로 독도 연구에 매진하고 있으며 독도교육을 위한 ‘독도지킴이거점학교’를 선정하는 등 학교 현장에서 주권인식 향상에 힘쓰고 있다. 그간의 독도 연구 성과와 우수학교 현장을 소개한다.

- 독도를 말하다
- 역사가 말해주는 우리땅 독도
- “독도 우리 손으로 지켜요!”_ 독도지킴이거점학교
- “생활 속으로 스며들어야 진짜 독도교육”_서울 서초고

사진 제공 : 문화재청, 울릉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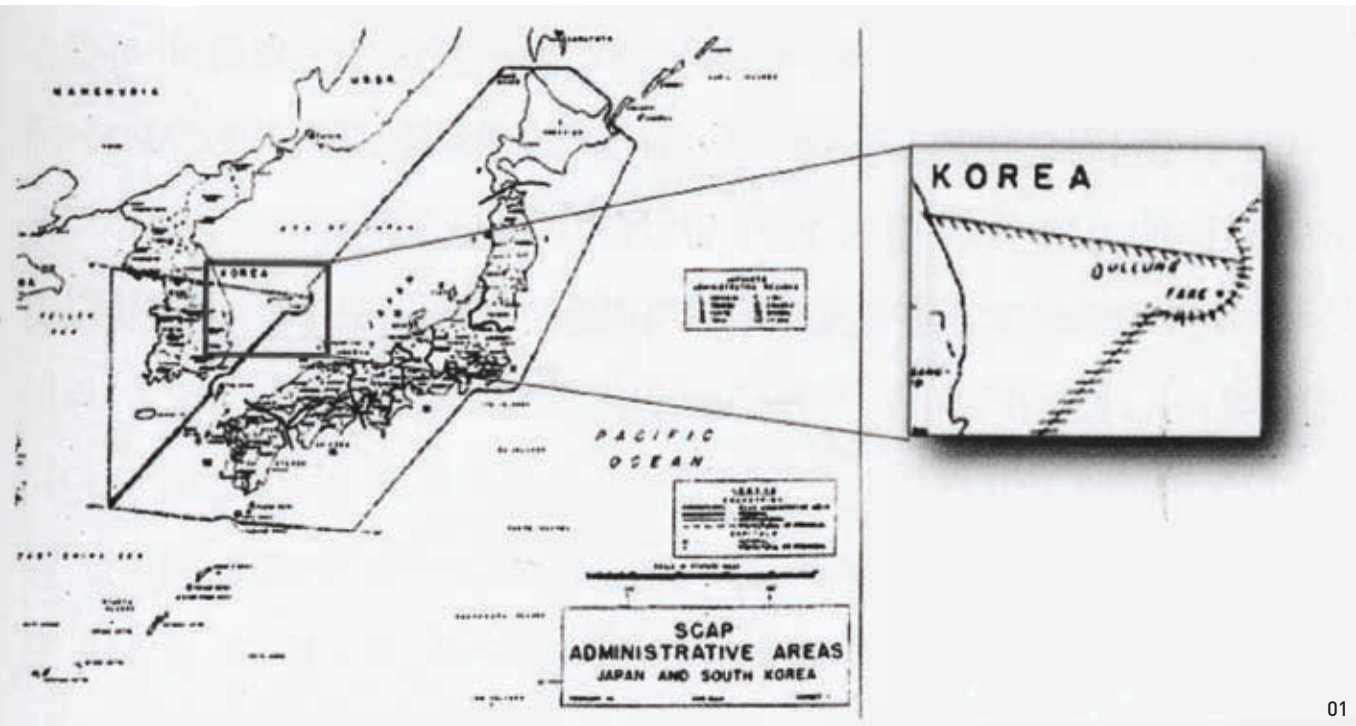
독도를 말하다

구성 2개의 큰 섬인 동도와 서도, 그리고 주변의 89개 부속도로 구성(총면적 187,453㎡) **위치** 경상북도 울릉군 울릉읍 독도리 1~96번지 **기후** 독도의 기후는 전형적인 해양성 기후로 연평균 기온이 약 12℃로 비교적 온난한 편이다. 연중 흐린 날이 160일 이상이며, 안개가 잦고 강우일수는 150일 정도로 연중 85%는 흐리거나 비·눈이 내려 비교적 습하다. **지형과 지질** 독도는 해저 약 2,000m에서 솟은 용암이 굳어져 형성된 화산섬으로 산생대 3기 플라이오세 전기부터 후기 약 460만 년 전부터 250만 년 전 사이에 형성됐다. 지질은 알칼리성 화산암으로, 현무암과 조면암으로 구성돼 있다. **자연생태** 독도는 역사성과 더불어 자연과학적 학술가치가 매우 큰 섬이므로 천연기념물로 지정해 보호하고 있다. 현재 60여 종 내외의 식물이 자생하고 있으며, 동해를 건너는 조류의 중간 서식지로 중요한 구실을 한다. 이중 바다제비, 습새, 갯이갈매기는 천연기념물 제 336호로 지정돼 있다. **주민과 생활** 울릉도 주민인故 최종덕 씨가 1965년 3월 최초로 거주했으며, 현재 김성도 씨 부부가 독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어업을 생계로 거주하고 있다. 이 외에도 독도경비대원 30명과 등대관리원 3명, 울릉군청 독도관리사무소 직원 2명이 근무한다. 1999년 일본인 호적등재 보도 이후에는 '범국민 독도 본적 옮기기 운동'이 전개돼 2,788명(2012.12월)이 독도에 본적을 두고 있다. **독도지명의 유래** 옛날에는 독도가 삼봉도(三峰島), 가지도(可支島), 우산도(于山島), 자산도(子山島) 등 여러 가지로 불리어져 왔으나, 1981년 '독도'로 개칭되었다. **입도** 독도는 문화재보호법 제25조에 의한 '독도 천연 보호 구역'(천연기념물 제336호)으로 지정되어 공개 제한 지역이었으나 일반인의 출입이 가능하도록 공개 제한이 해제(2005.3.24)되어, 신고로 입도 가능하다. 울릉군은 독도의 위상을 강화하고 애국심을 고취하고자 독도 방문객을 대상으로 '독도명예주민증'을 발급해 주고 있다. **독도의 가치** 어장으로서의 가치 : 독도 주변해역은 난류와 한류가 교차해 다양한 어종이 모여드는 황금어장으로 유명하다. 대표적인

어류는 오징어, 공치, 방어, 복어, 전어, 가자미 등이 있다. 특히 국내 전체 오징어 어획량 중에서 독도 연안과 대화퇴어장의 어획고가 60%를 차지하고 있다. 군사적 가치 : 정부는 독도에 고성능 방공레이더 기지를 구축해 군사전략적 기지로 관리하고 있으며, 이곳 관측소에서는 러시아의 태평양함대와 일본, 북한 해·공군의 이동상황을 손쉽게 파악해 국가안보에 필요한 군사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지질학적 가치 : 몇 십만 년 동안 파랑에 의한 해식작용이 이뤄진 독도는 지질학적으로 큰 중요성을 갖고 있다. 독도는 해저 밑바닥에서 형성된 벼개용암과 물 위로 솟은 조면암, 안산암, 관입암 등으로 구성된 '암석학의 보고'라 할 만하다. 해저산이 수면위로 모습을 드러내는 경우는 드문 예로, 독도는 해저산의 진화과정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세계적인 지질유적이다. 지하자원으로서의 가치 : 독도주변 해역에 천연 가스층이 존재한다는 사실이 밝혀지고 있다. 현재 존재한다고 추정되는 '하이드레이트'는 메탄이 주성분인 천연가스가 고체화된 상태로서, 그 자체가 훌륭한 에너지 자원이며 석유자원 여부를 가늠하게 하는 척도다. 독도주변 해역의 해양 석유자원의 보유 가능성은 점차 주목받고 있으며, 그 경제적인 가치 또한 매우 높은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❷

역사가 말해주는 우리땅 독도

글 | 이 훈 동북아역사재단 독도연구소장 사진 제공 | 울릉군



01

러·일 전쟁이 진행 중이던 1905년, 일본은 우리의 고유영토인 독도를 시마네현 고시로 일본에 불법 편입시켰다. 그리고 우리가 1945년 독립과 더불어 독도를 되찾은 이후에도 일본은 끊임없이 독도를 일본 영토라고 주장하면서 독도영유권 침탈을 시도하고 있다. 일본의 독도 도발은 1990년대 중반부터 증가하기 시작하여 2000년대 들어서는 거의 매해 되풀이되고 있다. 2005년 3월 시마네현 의회의 '다케시마의 날' 조례 제정을 계기로 2012년 8월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 방문 이후에는 아예 노골적으로 도발하고 있다. 특히 아베 정권 출범 이후에는 정부 안에 '영토주권 대책 기획조정실'을 신설하고 영토담당 대신 산하에 전문가 간담회를 두어 독도 도발을 구체화하고 있는데, 안으로는 자국 국민을 상대로 독도영유권의 정당성을 교육하고, 밖으로는 국제사회를 상대로 독도가 분쟁지역임을 홍보한다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그리고 해마다

4월과 7월에 「외교청서」와 「방위백서」를 발표하면서 독도가 일본 고유영토라는 주장을 명기함으로써 한일관계를 한층 경색시키고 있다.

일본 자민당은 7월 참의원 선거 공약으로 영토·주권·역사문제에 대한 연구기관의 신설과 시마네현 '다케시마의 날' 행사를 정부행사로 승격할 것 등을 약속한 바 있다. 이번 참의원 선거에서 일본 자민당이 승리함에 따라 영토 관련 계획이나 공약들을 정부정책으로 구체화할 가능성이 크며, 일본 정부의 독도 도발은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일본의 도발에 대처하는 자세

그렇다면 독도에 대한 일본 정부의 주장은 무엇일까?

“일본은 이미 17세기 중반에는 독도영유권을 확립하였고, 1905년에는 각의 결정으로 영유의사를 재확인하였으며, 한국이 일본보다 빨리 독도에 대해 실효 지배하였다는



02

01. 전후 일본을 통치했던 연합국 최고사령부는 훈령(SCAPIN) 제677호를 통해 독도를 일본의 통치적, 행정적 범위에서 제외했다. 1946년 연합국 최고사령부 제작 한·일 양국의 행정관할 지도

02. 우리는 독도가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우리 고유 영토이고, 우리가 영유권을 행사하는 현실은 변하지 않는다는 자신감을 가질 필요가 있다.

1952년 1월 18일 이승만 대통령이 평화선을 선포한 이후 일본과 구술서를 주고받는 과정에서 구축된 독도영유권 논리는 독도가 역사적으로, 지리적으로, 국제법적으로 우리의 영토라는 것이었다. 현재까지 이를 입증하는 문헌 기록과 인문·자연과학적인 연구 성과는 이미 많이 축적되어 있으며, 최근에는 새로운 관점에서 한국의 논리를 뒷받침하는 연구가 동북아역사재단(이하 재단)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독도 연구 60년 성과와 업적

몇 가지를 소개하자면, 먼저 역사·지리적 관점에서 본 일본 측 연구의 특징으로는 독도를 되돌려 울릉도에서 떼어내 울릉도와는 무관한 별개의 섬으로 취급하려는 논리가 있다. 독도를 울릉도의 생활권 안에서 검토하는 것이 울릉도와 독도 연구의 첫걸음이라 할 수 있는데, 최근 재단에서는 독도에 대한 역사, 지리, 문화, 지정학적 연구 성과를 『독도·울릉도 연구-역사·고고·지리학적 고찰』(2010), 『한반도 고대 문화 속의 울릉도』(2010), 『역사와 지리로 본 울릉도·독도』(2011)로 발간하였다.

또 독도는 울릉도에서 육안으로 볼 수 있다는 지리적 특성 때문에 울릉도의 일부로 인식되어 왔으며, 『세종실록』 「지리지」(1454)에는 '우산(독도)과 무릉(울릉도) 두 섬이 서로 거리가 멀지 않아 날씨가 맑으면 바라볼 수 있다.'고 기록되어 있다. 그런데 이를 입증하는 실증 자료는 몇 장의 사진과 울릉도 주민들의 목격담이 전부였다. 재단은 2008년 7월부터 2009년 12월까지 1년 6개월 동안 '독도가시일수'를 조사하는 한편, 55일간 독도를 촬영하여 문헌 기록이 사실임을 밝힘으로써 독도가 울릉도에서 보인다는 것이 역사적·국제법적·기상학적으로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를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는 『독도! 울릉도에서는 보인다(2011)』로 간행되었다.

것은 문헌적 근거가 미약하다.”는 것이다. 이는 삼국시대 이래 역사적으로 우리의 영토로서 관리해 왔고, 1900년 고종황제의 「칙령 제41호」로 독도를 울도군에 포함시킨 후 관보를 통하여 대내외에 알림으로써 국제법적 근거를 마련했던 대한제국의 조치를 전면 부정하는 것으로, 일본 정부의 주장이 아무런 여과 없이 외무성과 교과서, 해외홍보를 통해 세계로 확산되고 있는 만큼 우려가 되지 않을 수 없다.

한일 간에 독도영유권 갈등의 속도가 그 어느 때보다 빨라진 지금, 우리는 앞으로 일본의 억지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우선 일본의 독도 도발에 일회일비하는 식으로 대응하다 보면 국제 사회에 분쟁 지역으로 비춰져 일본의 의도에 말려들 수 있다. 따라서 일본이 아무리 독도를 자기 영토라고 주장한다 하더라도 독도가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우리 고유 영토이고, 우리가 영유권을 행사하는 현실은 변하지 않는다는 자신감을 가질 필요가 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독도 연구 60년 성과 속에서, 독도가 우리 영토라는 것을 입증하는 연구 성과도 충분하다는 점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한국의 독도영유권 관련 연구는 일본의 식민지 지배에서 해방되면서 바로 시작되었다.



03

독도 연표

- 512년 • 신라 지증왕 13년 이사부 군주 우산국 정복
- 1963년 • 안용복은 일본 에도 막부에게 울릉도 · 독도가 조선 영토임을 서게 받음 「속중실록」
- 1900년 • 광무 4년 고종은 「칙령 제41호」 제정반포로 독도를 울도군(울릉도) 관할로 편입
- 1905년 • 일본이 독도를 다케시마(죽도)로 칭하고 일본 영토로 편입(11월 을사보호조약으로 국권 상실)
- 1946년 • GHQ(연합국 최고사령부)에서 독도를 일본통치권에서 제외
- 1954년 • 독도 주민증 최초 전입(최종덕)
- 1981년 • 경북경찰 경비 시작
- 1982년 • 국가지정 문화재로 지정 천연기념물 제336호
- 2005년 • 일본 시마네현 의회 다케시마 날 제정
- 2007년 • 독도에서 대통령 부재자 투표 사상 첫 실시

여기에 지금까지 한국 측 독도 연구의 가장 큰 과제로 남아 있던 석도 지명 문제에 있어서도 진전이 있었다. 이는 1900년 고종황제 「칙령 제41호」에 나오는 석도가 독도라는 것을 입증하는 문제로, 독섬=석도=독도라는 언어학적인 추론이 아니라 지명학적인 관점에서 검토가 이루어졌다. '우산도', '석도', '량코도(Liancourt Rocks)' 등 독도에 명칭이 붙고, 그 이름이 변화 · 소멸하는 과정을 분석하는 것은 독도의 역사적 · 국제법적 권원을 입증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 지명은 입으로 부르던 소리 명칭이 문헌상의 한자 지명으로 정착될 때 어떤 원칙이 적용되는지, 명명의 주체와 지역, 당시 조선사회의 관행을 아는 것이 관건이라 할 수 있다. 재단에서는 우산도와 석도가 독도라는 사실을 지명학적인 관점에서 검토하여 그 결과를 『근대 이행기의 한 · 일 경계와 인식에 대한 연구-‘독섬(石島)’과 ‘Liancourt Rocks’를 중심으로』(2012)라는 책으로 간행하였다.

마지막으로 독도 관련 국제정치와 국제법 연구에서도 진전이 있었다. 제2차 세계대전 후 국제질서를 미국이 주도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미국의 대일 정책이 독도에 미친 영향에 관한 연구는 독도 문제를 풀기 위한 중요한 열쇠이다. 재단은 전후 미국의 대일 정책과 독도 연구를 위해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관련 공식 문서는 물론, 당시 언론 자료, 개인 기록 등을 함께 조사 · 수집하여 연구의 저변을 확대하고 있다.

국토수호 위한 독도교육 강화

그런데 일본의 최근 영토 관련 동향을 보면, 앞으로 교육 분야에서 독도 도발이 심각해질 가능성이 크다. 지난 2008년 7월, 일본의 『중학교 학습지도요령 해설서』 개정 후 발간된 초 · 중 · 고등학교 교과서를 보면 독도에 대한 영유권이 일본에 있다는 억지 주장이 고스란히 반영되어 있다. 또 2010년 검정을 통과한 초등학교 사회(5학년)와 2011년 검정을 통과한 중학교 지리와 공민, 2012년 검정을 통과한 고등학교 지리 교과서에도 모두 독도는 일본 땅이라는 영유권 주장을 하고 있는데, 심지어 독도가 행정구

역상 시마네현 소속으로 기술되어 있는 교과서까지 있다.

따라서 우리는 독도가 왜 우리의 영토인지를 설명할 수 있다면 일본의 독도 도발에 차분하게 대응할 수 있으며, 이것 역시 교육을 통해서 가능하다고 본다. 우리 정부는 일본의 독도교육에 대한 대응으로 독도교육 강화를 골자로 하는 2010년 개정 '초중등학교 교육과정'을 발표하였다. 이 교육과정에 따라 중학교는 2011년부터 사용하는 『역사』와 『사회』, 고등학교는 『한국사』에 독도 관련 내용이 기술되었다. 그리고 초등학교는 2011년 개정 사회과 교육과정을 반영하여 6학년 『사회』교과서에 독도 관련 내용이 기술되었다. 따라서 초 · 중 · 고등학교 모두 수업시간에 독도에 대해 배우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그 기술 내용이 충분하다고는 할 수 없기 때문에 학생들이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교사가 얼마만큼 노력하느냐에 달린 실정이다.

이러한 교과서 기술을 보완하기 위해 재단에서는 한국 측의 연구 성과를 충분히 반영한 독도 부교재를 만들어 초 · 중 · 고등학교에 배포함으로써 독도교육에 힘쓰고 있다 2011년에는 초등학교와 중학교 부교재로 각각 『독도 바로알기』와 『영원한 우리땅 독도』를, 2012년에는 고등학교용으로 『독도 바로알기』를 제작하여 각 학교에 배포하였다. 또 2013년부터는 교육부가 수업 시간 이외에도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을 활용하여 독도교육을 할 수 있도록 권장하고 있으므로 학교 현장에서 교사들이 독도 부교재를 교육하기 쉽도록 교사용



04

03. 1900년 고종황제는 「칙령 제41호」로 독도를 울도군에 포함시킨 후 관보를 통해 대내외에 알림으로써 국제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04. 현재 독도에는 한국의 경찰, 공무원 그리고 주민이 40여 명 거주하고 있고, 매년 10만 명이 넘는 국내외 관광객들이 독도를 평화롭게 드나들고 있다. 독도의 대한민국 영토 표시(한국령)

지침서인 <학습지도안>도 만들었다. 여기에 교육의 기회가 없는 어른들을 위한 독도 교재도 개발 중이다.

독도에 대한 영유권을 강화할 수 있는 연구와 교육이 차분하게 진행되고 있으므로 일본의 도발에 일일이 불안해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 ㉠

독도체험관

독도체험관은 독도 관련 역사 자료를 수집 · 보존 · 연구하고 전시하는 수도권 내 최초 박물관이다. 동북아 역사재단 주도로 설립된 이곳은 독도의 역사 · 자연을



첨단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직접 경험할 수 있는 체험관으로 1500년 독도 역사를 소개한 '역사 · 미래관', 지리 · 지질 · 기후 · 해양 · 생태계 정보 등을 소개한 '자연관', 가상체험을 할 수 있는 '4D영상관'으로 구성돼 있다. 관람료는 무료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미근동 267 / ☎ 02) 2012-6100

독도 정보 사이트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 독도 지리넷 <http://dokdo.ngii.go.kr>
 경북지방경찰청 독도경비대 <http://dokdo.gbpolic.go.kr>
 경상북도 사이버독도 www.dokdo.go.kr
 동북아역사재단 독도연구소 www.dokdohistory.com
 울릉군 독도관리사무소 www.ulleung.go.kr
 울릉군 독도박물관 www.dokdomuseum.go.kr
 외교부 독도 <http://dokdo.mofa.go.kr>
 한국해양연구원 독도종합정보시스템 www.dokdo.re.kr
 해양수산부 국립해양조사원 우리 땅 독도 <http://dokdo.nori.go.kr>
 사이버외교사절단 반크 www.prkorea.com
 영남대학교 독도연구소 <http://dokdo.yu.ac.kr>



독도지킴이거점학교

“독도 우리 손으로 지켜요!”

글 ¹ 이혜민 객원기자(주간동아)

정부는 지난 3월 12일 ‘독도지킴이거점학교’를 응모한 302곳 중에서 우수한 학교 60곳을 선정해 발표했다. 이들 학교는 활동비, 교수학습 자료를 제공받고 담당교사와 학생들에게 2박 3일 독도 탐방 기회 등을 지원받아 독도수호 운동을 활발히 펼치고 있다. 독도 동아리를 중심으로 ‘영토 주권의식’을 기르는 독도지킴이거점학교 활동상을 소개한다.

교육부(당시 교육과학기술부)와 동북아역사재단은 지난 3월 12일 ‘독도지킴이거점학교’를 응모한 302곳 중에서 우수한 학교 60곳을 선정해 발표했다. 독도지킴이거점학교 선정 사업을 통해 독도지킴이거점학교로 뽑힌 학교의 독도동아리는 1년간 활동비, 교수학습 자료를 제공받고, 담당교사 1명과 학생 1명의 2박3일 독도 탐방 기회 등을 지원받는다. 학교는 동해·독도 표기 홍보, 독도 모형 만들기, 독도 수호 캠프 등 다양한 독도 관련 활동을 하면서 ‘독도 영토 주권의식’을 기를 수 있다. 독도지킴이거점학교의 활약상은 동북아역사재단의 독도연구소 웹사이트에 소개되고, 우수 학교로 뽑힌 2곳은 이듬해에도 독도지킴이거점학교로 선정된다.

독도지킴이거점학교 선정사업은 일본의 교과서를 통한 부당한 독도영유권 주장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2008년만 들어졌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2008년부터 현재까지 독도동아리 담당교사 200여 명과 학생 150여 명이 독도 탐방을 마친 상태다. 독도지킴이거점학교 선정사업을 이끌고 있는 동북아역사재단 독도연구소 박진오 연구위원은 “교사와 학생들이 ‘독도는 우리나라가 일본의 식민 지배를 받게 된 1910년보다 5년 앞선 1905년부터 일본에 강탈당했다.’는 역사적 사실을 배우면서 ‘독도는 역사문제다’는 걸 체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사진전·UCC·포럼 등 독도수호 활동 다양

“독도문제를 심층적으로 알리는 기자가 되고 싶다. 동

〈표〉 2013년 독도지킴이거점학교

구분(60)	독도지킴이거점학교
서울(7)	서울미동초, 서울오류초, 대성중, 서울사범대학 부설여중, 대진여고, 마포고, 화곡고
부산(4)	수미초, 화랑초, 주례중, 백양고
대구(4)	대구내서초, 대구 북비산초, 관천중, 학남중
인천(4)	인천신석초, 인천용현남초, 하점초, 미추홀외고
광주(1)	전남여자상고
대전(2)	대흥초, 대전자운중
울산(2)	양사초, 남창중
경기(13)	동신초, 송라초, 송우초, 조현초, 원당중, 부천중, 장안여중, 동원고, 한국외대부속용인외고, 은혜고, 율곡고, 예당고, 용인포곡고
강원(4)	계촌초, 호명초, 동명초, 영월고
충북(5)	문백초, 삼성초, 하당초, 직지초, 충주중산고
충남(2)	운곡초, 만리포고
전북(2)	적성초, 영선중
전남(6)	목포동초, 소라초, 암태초, 천태초, 고흥중, 매산고
경북(3)	저동초, 울릉중, 오천고
제주(1)	애월초

아리 활동을 하기 전에는 독도를 지켜야 하는 이유를 몰랐다. ‘당연히 우리 땅이니까 우리 땅이라고 주장할 필요도 없다.’고 생각했다. 수업시간에 독도에 천연자원이 많다는 것은 배웠을 뿐 독도에 대한 애착이 없었던 것이다. 하지만 동아리 활동을 하면서 독도의 중요성을 알게 됐다.”



올해 독도지킴이거점학교로 선정된 경기 용인외고(교장 김성기)에서 ‘HAFS(Hankuk Academy Of Foreign Studies) 독도 피스 포럼’을 이끌고 있는 주민성(17) 군은 5월에 독도를 다녀온 뒤 독도에 대한 애착이 강해졌다. 현재 그는 동아리 회원 11명과 함께 매주 금요일 경기도 용인 수지청소년문화회관에서 초등학교생을 대상으로 NIE프로그램을 진행한다. 퀴즈 등 놀이를 활용해 영어신문으로 독도의 의미를 전하는 것이다. 독도에 대해 물으면 “우리 땅이다.”라고만 답하던 초등학생들은 어느새 “독도를 수호한 조상들의 노력이 물거품이 되지 않도록 우리가 독도를 지켜야 한다.”고 말할 정도로 주권의식이 성숙했다.

이외에도 독도 피스 포럼은 수지구청, 죽전역, 대형마트 등에서 독도 사진전을 개최하고, 독도 티셔츠를 팔면서 독도에 대한 관심을 촉구하고 있다. 앞으로 독도영유권을 주장하는 UCC 동영상을 일본어, 중국어 등으로 만들어 유튜브에 올리고, 학습 포럼도 개최할 계획이다. 독도 피스 포럼 이대일 지도교사는 “학생들이 구체적인 노력을 지속해 미래의 일꾼으로서 독도 영유권에 대한 주장을 합리적으로 펴나가길 기대한다.”는 바람을 밝혔다.

교사의 열정 ‘독도 사랑’ 이끈다

한편 대전 대흥초등학교(교장 이진주)에서는 어린 학생



01. 경기 용인외고 동아리 ‘HAFS 독도 피스 포럼’은 독도 주권의식 향상을 위한 사진전, 학습포럼 등 다양한 활동을 진행한다. 서울 독도체험관을 방문한 동아리 학생들
02. 대전 대흥초 동아리 ‘독도 수문장’은 방과후시간과 창의적 체험활동을 활용해 일주일에 2~3시간 동안 활동한다. 독도 부채만들기 활동에 참여한 아이들 모습
03. ‘독도 수문장’ 활동으로 진행된 독도 광고 만들기 결과물

들이 독도 사랑을 키우고 있다. 대흥초 교장이 교내 복도에 ‘독도 환경 게시판’을 만들어 독도를 알릴 뿐 아니라 교사들을 대상으로 ‘독도 연수’를 진행할 정도로 독도에 대한 애착이 많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하지만 학급생 22명과 함께 독도 동아리 ‘독도 수문장’을 꾸린 박윤영 1학년 2반 담임교사의 노력도 그에 못지않다. 동아리는 방과후 시간과 창의적 체험활동을 활용해 일주일에 2~3시간 동안 진행한다. 박윤영 교사의 말이다.

“교과 과정에서는 통일과 안보가 강조된다. 하지만 나라



독도지킴이거점학교 선정사업은 일본의 교과서를 통한 부당한 독도영유권 주장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2008년 만들어졌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2008년부터 현재까지 독도 동아리 담당교사 200여 명과 학생 150여 명이 독도 탐방을 마친 상태다.

사랑을 가르치기에는 역부족이다. 가능하다면 나라 사랑하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가르치고 싶었다. 아이들이 어리기 때문에 깊이 있는 역사적 사실을 전하기는 한계가 있었지만 독도지킴이거점학교로 선정된 뒤 입체카드, 퍼즐놀이 등을 하면서 독도에 친숙해지도록 도왔다. 독도가 하나의 섬으로 이루어진 줄 알았던 아이들이 이제는 독도가 동도와 서도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게 됐고, 태극기 모양도 자연스레 익혔다. 그리고 독도를 지키는 안용복, 이사부에 대해 배우며 애국심을 길렀다.”

울산 남창중학교(교장 이규희) 독도 동아리 '독수리'가 만들어진 것도 열성적인 교사의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이 동아리를 이끌고 있는 심경애, 박미령 교사는 사회과 담당교사로서 평소 사회 관련 이슈에 대해 실질적인 교육을 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 갈증을 느끼고 있었다. 심경애 교사는 “독도가 우리 영토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땅이라고 주장할 뿐 그 근거를 제대로 설명할 줄 아는 사람이 없어 안타깝다.”면서 “어릴 때부터 독도에 대한 관심을 심어 주면 언젠가 이 학생들이 독도 전문가로서 활약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우리나라 교육과정 상 사회과 교사가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는 시간은 거의 없다. 특히 우리 지역은 내신 성적과 연합고사를 동시에 보기 때문에 교사가 활동할 수 있는 시간은 더욱 부족하다. 그래서 사회과 교사로서 독도에 대해 지리적, 역사적으로 접근해보고자 독도지킴이거점학교 선정 사업에 지원했다. 독도라는 영토에 대해 관심을 기울이면 역사의식과 민족성을 고취시킬 수 있다고 판단했다. 학생들에게 독도지킴이거점학교 활동이 우리나라에 대한 사랑을 키워가는 기회가 되면 좋겠다.”



04. 울산 남창중학교 독도 동아리 '독수리'는 특기적성 시간과 1학기에 2번 편성된 전일제 수업을 통해 활동한다. 전일제 수업으로 수산과학원을 찾은 '독수리' 학생들

독도 소식 전하는 신문 발행

남창중학교의 독도 동아리 '독수리'는 외로울 독(獨), 수호할 수(守), 울타리 리(籬)라는 한자를 조합한 것으로 '독도를 지키는 울타리가 되자'는 의미다. 2학년생 23명, 3학년생 22명과 2, 3학년 지도교사들이 함께하며 특기적성 시간과 1학기에 2번 편성된 전일제 수업을 통해 활동한다.

이 학교가 다른 독도지킴이거점학교에 비해 두드러지는 것은 그 활동상을 '독수리 신문'에 게재하기 때문이다. 신문은 동아리 학생들이 주체가 돼 만들며, 올 3월부터 4번 발행됐다. 신문에는 수산과학관, 독도 탐방기와 같은 동아리의 자체적인 활동을 기재하는 것 외에 '반크'의 캠페인 사이트 '사이버 독도 사관학교' 등 독도에 관한 사회적 관심을 소개한다.

독수리 활동에 적극적인 남창중학교 서민정(14) 양은 “거리에서 만난 시민들에게 부채에 독도 그림과 독도에 관한 자료를 나눠주는 것이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시민들의 반응이 좋아 뿌듯했다.”면서 “독도에 대한 공부를 하면서 독도가 우리 땅이라는 역사적인 증거를 살살이 알리고 싶다.”는 포부를 밝혔다. ②



서울 서초고등학교의 독도교육

“생활 속으로 스며들어야 진짜 독도교육”

글 | 한주희 본지 기자

서울 서초고는 일선 학교의 독도교육 모델을 새롭게 그리고 있다. 적은 예산과 짧은 준비기간에도 불구하고 교육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는 것. 비결이 뭘까. 그것은 평소에 '리더십'보다 '아이디어십'을 강조해 온 학교장의 새로운 발상과 의지에서 비롯됐다. 전국의 학교 가운데 최초로 실시간 독도 영상을 중계하는 모니터를 설치하는 한편, 본관 입구를 '독도학습관'으로 꾸몄다. 독도로 본적까지 옮긴 학교장은 자타공인 '독도맨'이다. 생활 속에서 자연스레 독도를 느끼고 배우는 삶과 하나 된 독도교육 현장을 찾아가 봤다.



01. 서초고는 전국 학교 가운데 최초로 실시간 독도 영상을 중계하는 모니터를 설치했다. 1학년 학생들에게 독도에 대해 설명하는 이대영 교장

“오늘따라 독도에 꿩이갈매기가 많이 보이네. 멋진데!”

“날씨도 화창해. 갈매기 소리 한번 들어보자.”

서울 서초고등학교(교장 이대영) 본관 입구. 대형모니터를 통해 실시간 방영되는 독도 모습이 학생들의 눈길을 사로잡는다. 독도 선착장에 정박한 보트와 그 옆으로 지나가는 사람들의 움직임까지도 모니터를 통해 생생하게 전달된다. 서울에서 430여km 떨어진 독도가 한없이 가깝게 느껴지는 순간이다. 1학년 정준서 군은 “뉴스로만 접하던 독도를 매일 보니 신기하다. 화창한 날 갈매기 떼가 날아오르는 모습은 볼 때마다 장관이다. 현관 앞을 오갈 때마다 모니터로 독도와 인사한다.”며 웃는다.

전국 학교 최초로 실시간 독도 중계 영상모니터 설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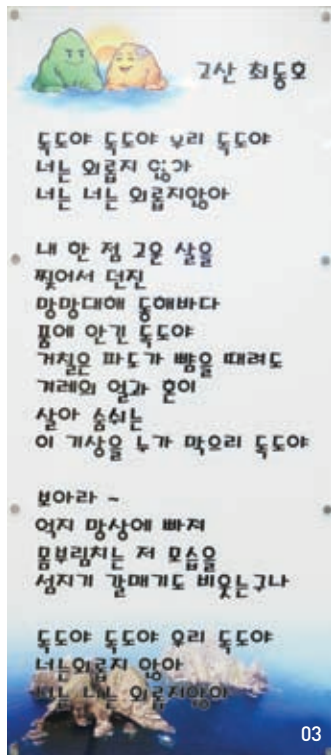
서초고는 올 초 학생들의 이동이 잦은 본관 입구를 '독도 학습관'으로 꾸몄다. 가장 눈길을 끄는 건 실시간 독도 영상. 대형모니터를 활용해 아무도 눈길을 주지 않던 학교 홍보영상 대신 전국 학교 가운데 최초로 실시간 독도 모습을 중계했다. 실시간 독도 영상을 교육 기관에서 활용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강동숙 교감은 “갈매기 소리가 재미있는지 학생들이 모

“독도교육을 위한 별도의 프로그램을 만들기보다 학생들이 독도와 친숙해지도록 하는 방법이 효과적이다. 직·간접 체험 기회를 늘리는 한편, 독도체험 소감문 작성하기, 퀴즈대회 등을 통해 독도사랑을 내면화하기 위한 지도를 병행할 것이다.”



02



03

02. 이 교장은 "독도교육은 실생활 속에서 실천돼야 한다."고 강조한다.
 03. '독도학습관'에 전시된 최동호 시인의 작품
 04. 나라사랑교육의 일환으로 서초고 정문에서 바라보이는 학교 건물 벽면에 설치된 게시물(태극기가 멀리 보이는 독도 그림과 나라사랑 다짐 글귀가 강렬하게 보인다.)

아온' 기분으로 다시 학교현장에 섰다. 그는 평소 소신대로 학교장은 '리더십'이 아니라 '아이디어십'이 있어야 한다는 생각으로 생활 속에 스며드는 독도교육을 고안해 냈다.

“학생들이 말로는 독도는 우리 땅이라고 하면서도 독도에 대한 관심과 애착은 그다지 크지 않다. 그렇다고 몇 가지 자료를 만들어 특정한 시간에만 수업하는 것은 효과가 제한적일 수 있다. 학교 내에 별도의 공간을 구성해 독도관을 꾸미는 것도 활용도가 떨어질 수 있다. 설치한 시점에만 반짝 관심을 쏟다가 이내 먼지만 쌓이는 공간이 되기 쉬운 것이다. 독도교육은 생활 속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자

연스럽게 학생들이 먼저 관심을 갖고 재미있어서 스스로 다가서야 한다.”

이대영 교장의 말이다. 그는 실시간 독도 영상이 일선 학교에서 실천하기 쉬운 '생활 속 독도교육' 자료로 손색이 없다고 권한다. 비용이 적고 준비 기간이 짧다는 점은 더욱 매력적이다. KBS 실시간 독도 영상 중계 비용은 매월 1만 6천여 원. 교내에 비치된 대형모니터를 활용하면 200여만 원에 '독도학습관'을 충분히 꾸밀 수 있다는 얘기다.

이 교장은 자타공인 '독도맨'이다. 그는 2011년 교육과학기술부(현 교육부) 대변인 시절 일본에서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터지자 우리 국민들의 안전을 지키고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환경방사선감지기를 설치하는 일에 참여했다. 당시 여러 외교문제를 걱정하는 목소리도 있었으나, 그는 환경방사선감지기를 '독도'에 설치한 것은 독도가 우리땅임을 굳이 외치지 않더라도 그 자체로서 엄중한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었다고 회상했다.

당시 이주호 장관과 함께 독도의 최정상에서 우리 국민의 안위를 위해 환경방사선감지기를 설치하던 순간의 감



04

격을 이대영 교장은 잊지 못한다. 열 번 백 번 독도사랑을 외치는 것보다 한 번이라도 독도를 느끼는 것이 더 진한 울림을 준다는 사실도 그때 깨달았다.

이대영 교장은 이후 서울시교육청 부교육감으로 자리를 옮긴 뒤에도 서울시교육청 로비에 실시간 독도영상을 중계하는 모니터를 설치했다. 또한 강원도 원주인 자신의 본적지를 독도로 옮기겠다고 마음먹었다.

바쁜 일상에 쫓기느라 독도로 본적지를 옮기는 일은 서초고로 부임하기 직전 3·1절 전날인 2월 28일에 이루어졌다. 이 교장은 교사와 학생들에게도 동참을 권한다. 강동숙 교감과 하호성 행정실장은 '독도로 본적 옮기기' 1순위 예약자. 입소문을 듣고 전국 각지에서 격려전화가 이어지고 이 교장을 따라 본적을 옮기겠다는 사람들도 늘고 있다. 학생들도 수시로 교장실을 찾아 본적 옮기는 방법을 문의하곤 한다.

이대영 교장은 “독도에 대한 자연스러운 관심이 촉발되고 우리땅에 대한 사랑으로 이어지는 과정이 바로 교육이다.”고 말한다. 조만간 이 교장은 블로그를 개설해 독도로 본적을 옮긴 사람들과의 소통도 도울 계획이다. 작지만 여럿이 만들어내는 독도사랑이야말로 우리땅 독도를 더욱 굳건히 지켜줄 원동력이 될 것이라 믿기 때문이다.

‘독도 수학여행’ 준비 중… 직·간접 체험기회 늘린다

서초고는 지난 7월 서울시교육청 지원을 받아 교사 2명, 학생 8명이 독도체험을 다녀왔다. 선정과정에서 2인 1조(계획서 작성)로 두 팀을 뽑을 때는 20:1의 경쟁률을 기록할 정도로 관심이 대단했다. 독도체험을 다녀온 학생들은 앞으로 ‘독도사랑 전도사’로 활약할 예정. ‘독도사랑 클럽(가칭)’은 독도체험을 시작으로 지속적인 독도수호 운동과 교내 학생들의 관심을 유도할 계획이다. 서초고는 직

접 보고 느끼는 체험이 ‘산교육’이라는 생각으로 ‘독도 수학여행’도 준비하고 있다. 이를 위해 숙박시설과 교통 등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 중이다.

이대영 교장은 “생활 속에서 학생들이 독도와 친숙해지도록 하는 방법이 효과적이다. 직·간접 체험기회를 늘리는 한편, 독도체험 소감문 작성하기, 퀴즈대회 등을 통해 독도사랑을 내면화하기 위한 지도를 병행할 것이다.”고 말한다. 행복교육을 ‘어떻게’ 이룰 것인가를 위해 구체적인 방안을 실천하고 있는 이 교장은 ‘독도교육’을 비롯한 ‘나라사랑교육’에도 이미 남다른 행보를 보이고 있다. ②

하호성 행정실장

"교장선생님 덕분에 독도로 본적을 옮기려고 해요. 학생들이 독도에 대해 한 번 더 생각하게 된다면 그걸로 행복하지요."



김민욱 군(1학년)

"독도 갈매기와도 친구가 됐는데요. 독도를 매일 같이 보는데 우리땅이 아니면 누구 땅이겠어요? 교장선생님께서서는 독도로 본적까지 옮기셨는데 대단해요!"



박유빈 양(1학년)

"매일 아침 독도를 봐요. 이제는 친구나게 느껴지고 독도 관련 소식에 더욱 귀를 기울이게 됐어요."

양승환 군(3학년)

"독도를 보면 이제는 심장이 뜨거워져요. 뭉클하기도 하고, 모니터로 사람들이 오가는 모습을 보면 '아! 우리나라 사람이 굳건히 지키고 있구나.' 하고 생각해요."



손동민 군(3학년)

"고1때 가족과 독도여행을 다녀왔어요. 실시간 독도 영상을 보면 그때마다 물이 참 많았던 독도가 생각나요."

국립특수교육원

행복특수교육은 ‘행복한 사회생활’로 이어져야 완성 장애학생 인권교육, 진로직업교육에 역점

국립특수교육원(원장 김은주, 이하 특수교육원)은 특수교육 발전을 위해 1994년 설립된 교육부 소속 기관이다. 특수교육 정책 수립에 기초가 되는 자료를 제공하는 한편, 수립된 정책을 현장에 착근시키기 위해 지원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정책과 현장의 가교인 셈이다. 내년이면 설립된 지 20년을 맞는 특수교육원은 최근 장애인의 인권교육과 진로직업교육에 무게를 두고 다양한 사업을 추진 중이다.

인권보호팀 신설해 우리사회 의식변화에 앞장

장애인 인권의 중요성이 ‘하이스’로 떠오른 건 영화 ‘도가니’ 이후다. 장애인에 대한 인권 의식이 전 국민들에게 빠르게 확산되면서 교육부를 비롯해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경찰청, 국가인권위원회 등 정부기관과 단체가 협력해 장애인 인권의식 개선에 발 벗고 나섰다.

때맞춰 특수교육원은 2012년 ‘인권보호팀’을 신설하고 장애학생 인권교육 강화를 위한 연구 및 사업들을 추진해왔다. 지난해에는 장애학생 스스로가 자신을 보호할 역량을 강화하도록 『장애학생용 자기보호 역량 강화 교육자료』를 장애영역별로 개발해 전국의 모든 장애학생에게 10만부 보급했다. 특수교사들에게는 『특수교사용 지침서』를 개발해 배부했다.

올해는 장애인의 인권의식이 장애인 본인뿐 아니라 비장애인에게도 확대돼야 한다는 판단으로 일반교사와 학생들을 대상으로 『장애학생 인권침해 예방을 위한 일반교사용 지침서』와 『일반학교에서의 장애학생 학교폭력 예방 동영상 교육자료』를

개발 중이다.

모니터링도 활발하다. 전국 교육지원청의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교육청 전문직, 경찰관, 성교육전문가, 학부모 등으로 구성된 상설모니터단을 마련, 장애학생 인권교육을 위한 학교 현장 점검을 매월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특수교육원도 전국 189개의 상설모니터단을 자체 운영해 1,560여 명의 위원들이 장애학생 인권교육의 현주소를 꼼꼼히 살피도록 하고 있다.

인권보호팀 최기상 교육연구사는 “장애학생에 대한 인권교육은 새로운 것이 아니다. 예전부터 학교교육 안에서 장애학생과의 통합교육 등을 통해 자연스럽게 이루어져왔다. 하지만 인권교육이라는 용어를 전면에 내세우고 추진에 속도를 내면서 일반학생을 포함해 일반인들의 의식이 상당히 변화하고 있음을 느낀다.”고 말한다.



01

올해부터 ‘장애학생 진로·직업교육지원센터’ 가동

특수교육원은 장애학생들의 행복교육은 ‘행복한 사회생활’로 이어져야 비로소 완성된다고 보고 있다. 이를 위해 진로직업교육에 한층 무게를 두고 있다.

현재 추진 중인 연구사업으로는 진로·직업교육 관련 기초연구, 교수·학습자료 및 실습교구 개발, 진로·직업교육과 관련된 평가지표 개발 등이다. 또한 진로·직업교육 담당자의 전문성 신장을 위해 각종 연수를 실시하고 있다.

장애학생들에게 풍부한 진로직업 정보를 제공하는 것도 중요한 사업이다. 특수교육원은 ‘JOBable’이라는 사이트를 열어 장애학생 누구나 손쉽게 정보를 검색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하고 있다.

진로직업교육팀 송영준 교육연구사는 “특히 진로직업교육은 ‘교육’뿐만 아니라 ‘유관기관과의 협력’이 중요하다. 한국직업능력개발원, 한국장애인개발원,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대학 등과 협력체제를 구축해 특수교육원이 허브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전한다.

일자리의 질도 문제다. 장애학생들의 취업률을 끌어올리기 위해 교육뿐 아니라 유관기관과의 협력도 활발히 추진하고 있으나, 여전히 단순 기능직에 머물러 있는 고용구

조도 극복해야 할 과제다. 이옥승 교육연구관은 “장애학생들을 양질의 일자리에 진입시키기 위해서는 양질의 교육과 더불어 고용주에 대한 장애인해 및 고용환경 개선 등이 중요하다.”며 “이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등 전문기관에서 추진할 사항이지만, 우리원에서도 전문가 의견수렴 및 유관기관과 협의를 통해 장애학생들이 양질의 일자리를 가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특수교육원은 진로직업교육을 더욱 체계화하기 위해 기존의 안산청사를 리모델링해 올해부터 ‘장애학생 진로·직업교육지원센터’로 활용하고 있다. 이 센터에서는 장애인의 사회통합 촉진을 위한 전문 직업교육 지원 시스템을 구축하는 한편, 1층과 2층은 한국선진학교 학교기업형 직업실습실로 운영한다. 또 학교기업 운영의 최적 모형 개발과 장애학생 개별 특성을 고려한 전문적인 진로·직업체험 및 상담, 연수, 장애학생 적합 직종과 직무 개발 등을 추진해나갈 예정이다. 장애학생 진로·직업교육지원센터가 가동함에 따라 장애학생을 위한 진로·직업교육이 한층 본격화할 전망이다.

01. 진로직업교육팀은 장애학생들의 학교생활이 행복한 사회생활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진로직업교육 지원에 한층 박차를 가하고 있다.
02. 지난해 개발해 현장에 보급한 장애학생 인권교육자료
03. 장애인 인권의식 개선에 앞장서고 있는 인권보호팀. 앞줄 오른쪽이 이영숙 과장



02



03



김은주 국립특수교육원장

“장애인의 표정은 그 나라의 국격”

01

김은주 국립특수교육원장은 오늘의 특수교육을 반석 위에 올려놓은 장본인이다. 장애인이 제대로 교육받을 수 있는 법적 기틀이 그의 손을 거쳐 태어났기 때문이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제정(’06~’07)으로 장애 영아교육에서부터 평생교육 및 고등교육에 이르기까지 생애주기별 교육권을 보장하는 근거가 마련됐다. 또 학급설치 기준 및 교원배치 기준을 상향 조정하는 등 특수교육 여건을 대폭 개선했다.

건강장애학생에 대한 교육권을 보장한 것도 손꼽히는 대목이다. 건강장애학생이란 소아암, 백혈병 등과 같은 질병에 걸린 아이들을 말한다. 이름도 생소한 ‘건강장애’를 특수교육 대상에 포함하도록 법령을 개정했으며(’05.2), 이들이 투병 중에도 공부할 수 있도록 병원학교를 전국적으로 확대 설치하는 한편, 화상강의를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했다. ‘병원학교’ 사업은 2006년 당시 10대 우수 정책 사례로 선정되기도 했다.

01. ‘현장의 문제는 현장에 답이 있다’고 말하는 김은주 원장
02. 김은주 원장은 오늘의 특수교육을 반석 위에 올려놓은 장본인이다.

김은주 원장은 ‘언제나 현장의 문제는 현장에 답이 있다’는 마음으로 일하는 편이다. 또한 장애학생들을 위해서는 무슨 일이든 혼자 할 수 없음을 강조한다. ‘멀리 가려면 함께 가야 한다’고 믿는 그는 특수교육원 직원들은 물론, 유관 기관과도 최대한 소통하고 화합하는 일에 정성을 쏟는 리더이다.

Q ‘행복특수교육’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특수교육에 있어서 행복교육이란 장애학생 개개인이 장애특성이나 요구에 맞는 교육을 통해 현재 행복하게 학교 생활을 하고 그것이 미래의 행복한 사회생활로 연계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특수교육은 학생 개개인의 차이를 인정하고 다양성을 존중하는 데서 출발합니다. 학생 개인의 차이 속에는 가족도 포함됩니다. 학교가, 교사가 그러한 개인

의 차이와 다양성을 인정하고 그에 맞는 교육을 제공할 때 학생도 행복하지만, 가족도 행복하게 됩니다. 교사로서는 학생 개개인에게 맞는 교육을 제공하여 행복해 하는 학생들을 보면서, 또 가족을 보면서 보람을 느끼고 행복감을 느낍니다.

장애가 심하면 심한 대로 집에서든 병원에서도 교육을 받을 수 있고, 그렇게 받는 교육이 현재 시점에서 장애학생 개개인에게 의미가 있어야 하며, 그것이 미래의 독립된 성인생활과 연계된다면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행복교육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교사들이 학생의 개별적 요구에 맞는 교육을 제공할 수 있도록 안정적인 교육여건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사회에서 중요한 영향력을 미치는 분들을 대상으로 강의를 할 때마다 장애학생들이 학교에서 밝게 웃는 모습을 보여드리면서 장애학생들이 사회에 나가서도 이렇게 웃을 수 있도록 우리 사회를 긍정적으로 변화시키는 일에 큰 역할을 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장애인의 표정이 바로 국격이기 때문이지요.

Q 선진 외국에 비해 우리나라는 아직도 장애아들이 학교에 다니고 제대로 교육 받는 일이 어렵고 힘든 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가 무엇이라고 진단하십니까.

학령기 학생들 중 약 1% 정도의 학생(’13년 4월 기준 86,633명)

이 특수교육을 받고 있는데, 그 학생들의 70%는 일반학교에 다니는 것으로 볼 때, 대부분 집에서 가까운 일반학교에 통합되기를 바라기 때문에 일반학교에 통합되어야 특수학교에서만만큼의 다양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를 위해 각 지역별로 설치된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만, 마찬가지로 이곳도 전문 인력이 제대로 배치되어 있지 않아 충분한 서비스 제공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분리된 특수학교에서만 양질의 특수교육을 일반학교에서도 제공할 수 있도록 특수교사가

일반학교에 더 배치되고, 또 각 지역별로 설치되어 있는 특수교육 지원센터에 보다 많은 전문 인력이 배치되어야 할 것입니다.

Q 통합교육이 확대 추세에 있는 지금, 통합교육의 내실화를 위해 특수교육원에서는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우선 우리원에서는 장애학생을 둘러싼 모든 구성원들의 이해가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 교육장, 교장, 교사, 직원, 일반학생, 그리고 학부모들이 장애학생을 바르게 이해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장애인식 개선을 위한 관련 사업을 다양하게 하고 있습니다. 집합 혹은 원격 연수를 통해 통합교육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있고, 장애인먼저실천운동본부 등 유관기관과 함께 통합캠프나 음악캠프 등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장애이해 사진전과 UCC공모전도 개최하고 있습니다. 또한 ‘장애이해사이트’를 운영하여 일반학생에 대한 통합교육 인식개선에 필요한 자료를 개발·발굴하고 공유하여 장애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자 꾸준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합교육의 물리적 환경에 비해 소프트웨어 측면이 조금 더 부족하다고 보고, 장애유아부터 고등학생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대상을 고려한 통합교육 교수·학습자료나 선생님을 위한 교사용 지도서를 개발하여 교수적 통합에 이르기까지 진정한 통합교육이 실현될 수 있도록 관련 사업들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02

Q 재임 중에 꼭 달성하시고자 하는 목표는 무엇인가요.

재임 중에 눈에 보이는 것을 해 놓고 나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는 잠시 지나가는 나그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가 무엇인가를 이루어 놓고 가겠다는 생각보다는 지금 함께 하고 있는 직원들이 철저히 현장 중심적인 사고를 가지고 좀 더 멀리 내다보면서 중장기적인 사업 계획을 세우길 바랍니다. 또한 이를 실천할 기틀만이라도 마련하고 나갔으면 하는 생각이 간절합니다. ②

학업중단 숙려제



교육부가 9개월간 학업중단 숙려제를 운영한 결과, 고교생 5명 중 1명이 학교로 돌아왔다. 이에 교육부는 학업을 중단하고자 하는 학생에게는 의무적으로 숙려기회를 제공하고, 숙려기간도 학생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또 학교 내 지원 시스템을 강화하고, 위탁교육(대안교육기관 등), 여행 프로그램, 사회적 멘토링, 진로캠프 등을 제공하고 학부모와 함께 하는 프로그램 등 학교 밖의 다양한 사회적 인프라를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글 김덕년 경기도교육청 장학사

진로지도 로드맵, 어떻게 짜야할까



어린 시절 누구나 한번쯤은 읽어본 적이 있는 생텍쥐페리의 『어린왕자』는 훌륭한 진로교과서이다. 진로지도에 관한 수많은 안내서가 나와 있지만 아직까지 이를 뛰어넘는 책을 본 기억이 없다. 그 책 속에는 이런 구절이 있다.

“어른들은 보아뱀의 내부인지 외부인지 따위의 그림은 집어치우고 대신 지리나 역사, 산수, 문법 같은 공부나 열심히 하라고 충고하더군요. 그게 바로 내가 여섯 살의 나이에 화가라는 멋진 직업을 가질 수도 있었던 가능성을 포기했던 이유죠.”

코끼리를 삼킨 보아뱀을 어른들한테 보여준 어린왕자에게 어른들은 모두 비슷한 반응을 보인다. 그러자 어린왕자는 자신을 그 사람의 수준에 맞추려고 노력한다. 이 한 장면은 진로교육이 중요한 이유를 단편적으로 잘 보여준다. 어른들의 틀에 맞추려고 하다보면 아이들은 창의적으로 자신의 세계를 펼치지 못한다. 아이들의 끼와 재능은 원천적으로 갇히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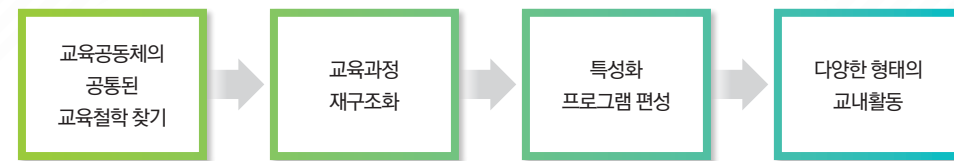
진로지도 로드맵의 출발은 여기에서 시작해야 한다. 교사·학부모의 ‘열린 사고’는 진로지도의 출발점이다. 어떠한 ‘틀’도 미리 정해놓지 않고 아이를 그대로 바라 볼 수 있는 자세가 먼저 갖춰져야 진로지도를 시작할 수 있다.

‘열린 사고’는 진로지도의 출발점

어린왕자는 ‘어른들은 모두 비슷한 반응을 보인다.’는 현실을 지적했다. 그렇다. 아무리 아이들을 대상으로 진로교육을 하더라도 어른들이 비슷한 반응을 보이게 되면 아이들은 자신의 꿈을 접을 수밖에 없다. 우리가 진로교육을 하기 위해 사회시스템 변화를 먼저 고려해야 하고, 어른을 위한 진로교육이 병행되어야 하는 커다란 이유이다.

최근에는 진로진학상담교사가 각 학교에 배정되고, 그들이 중심이 돼 각종 직업체험과 진학탐색이 원활하게 된 건 고무적인 일이다. 그러나 학교 현장에서 지나친 일회성 체험 위주 행사가 주로 이뤄지는 점은 여전히 아쉬운 점으로 남아있다. 학교에서는 인문학적 철학을 바탕으로 자신의 흥미를 찾아내고 이를 기반으로 연간 계획성을 가지고 진로지도에 체계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진로지도 로드맵을 짜는 과정은 다음 <표>와 같다.

〈표〉 진로지도의 로드맵을 짜기 위한 과정



진로지도 로드맵을 짤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공통된 교육철학’을 찾는 일이다. 학교가 꿈꾸는 비전을 공유하기 위해서는 각 구성원들의 생각을 한데 모아 ‘인재상’을 논의하는 일이 필요하다. 단순히 학교 비전이나 교육목표를 정하는 것이 아니라 소통하는 과정을 통해 ‘인재상’을 공유할 때 끼와 재능을 살릴 수 있는 ‘열린’ 학교문화가 형성된다.

학교마다 교육공동체가 함께할 인재상이 있다면, 이를 기반으로 교육과정을 재구조화해야 한다. 교육과정은 학교 교육활동의 가장 기본적인 틀이다. 창의적이고 글로벌 리더십을 지닌 학생을 키울 것인가, 학생이 지닌 감성과 인성을 키울 것인가는 이 교육과정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그 후 진로 관련 특성화 프로그램을 편성하고 다양한 교내활동이 이뤄져야 한다.

특성화 프로그램에 따라 활동 모양은 참으로 다양할 수 있다. 직업체험, 멘토링, 직업인 인터뷰 등 그 특성에 맞게 활동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짜는 게 좋다. 교사는 모든 프로그램을 완벽하게 짜고 학생들을 모집한다기보다 유기체처럼 학생들의 의견을 충분히 받아들여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다.

교사·학부모는 ‘조력자’에 머물러야

진로 로드맵은 우리 아이들이 성장 단계에 따라 자신의 가치를 찾고 다져가는 길이다. 교사나 어른들은 이 로드맵을 통해 아이들이 자신의 꿈을 현실로 만들 수 있는 ‘조력자’에 머물러야 한다. 다만, 진로지도에 대해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에 대한 이해는 함께 인식해야 할 필요가 있다. 다시 『어린왕자』를 보자.

“그들은 절대 이런 식으로는 물어보지 않을 거예요. “개 목소리가 어떻게? 개는 어떤 게임을 좋아하니? 개는 나비 수집을 하니?” 대신 이런 걸 물어 보죠. “개는 몇 살이나? 형제가 몇 명이야? 몸무게가 얼마나 돼? 개 아버지는 얼마나 벌어?” 어른들은 이런 숫자들을 통해서만 그 사람에 대해 알 수 있다고 생각해요.”

아이들이 관심 있는 것은 본질 그 자체이지만 어른들은 그렇지 않다. 물질적인 풍요에 관심을 보이거나 외모가 기준이 된다. 학벌, 재력 등으로 그 삶의 성공과 실패 여부를 재단한다. 혹시 진로교육을 담당하는 교사들이 어린왕자의 질문을 받게 되면 어떻게 대답할 수 있을까. 진로 로

드맵은 우리 아이들이 성장 단계에 따라 자신의 가치를 찾고 다져가는 길이다. 교사나 어른들은 이 로드맵을 통해 아이들이 자신의 꿈을 현실로 만들 수 있도록 해야 하지만 동시에 어른 자신의 꿈도 이루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②

진로교육 도움 사이트

아이들이 자신의 흥미, 적성, 학업능력, 기타 여건 등을 살펴보고 파악할 수 있도록 교사·학부모는 ‘조력자’로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이를 위해 다양한 직업세계에 대한 이해와 지식을 얻도록 직업 탐색의 기회를 제공해야 하며,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통해 진로계획이 현실적이고 구체적으로 수립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한다. 각종 기관에서는 건전한 직업관 형성과 적합한 직업선택을 위해 다양한 인터넷 사이트와 직업체험관 등에 대해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항목	주요 특성
진학진로정보센터 (www.jinhak.or.kr)	진로정보 : 자격증 정보, 고교 학과 정보, 진로교육 영상자료, 직업체험 프로그램
	대학진학 정보 : 대입전략 정보, 입학사정관제, 대학별 분석, 고교 입학 안내
	진로심리검사 : 홀랜드 진로심리검사, 초등학생적성검사, 간편 진로심리검사
커리어넷 (www.career.go.kr)	진학진로상담실 : 온라인 상담, 방문 상담
	직업정보 : 직업사전, 분야별 직업의 세계, 직업인 인터뷰
	학교 학과 정보 : 학교 정보, 학과사전, 우리 학교를 소개합니다!
청소년워크넷 (work.go.kr/youth)	검사 프로그램 : 심리검사(직업흥미검사, 직업적성검사, 직업가치관검사, 진로성숙도검사 등), 진로탐색 프로그램, 의사결정 프로그램
	진로상담 : 상담사례, 상담 신청, 상담기관 안내
	진로정보 : 흥미로운 직업세계, 진로관련 온라인학습, 취업 한마당
한국청소년상담원 (www.kycior.kr)	심리검사 : 직업흥미검사, 적성검사, 검사관련 사이버 상담
	진로상담 : 청소년 직장체험, 취업가이드, 직업지도 프로그램 안내
	청소년 상담 : 상담 및 심리검사, 전화 및 사이버 상담
한국청소년상담원 (www.kycior.kr)	부모교육 : 이음부모교육안내, 이음부모교육자료(자녀와 함께 성장하는 부모)
	Cyber 1388 청소년사이버상담센터
	- 청소년세상 : 만화방, 나셀프, 우리짱, 미래꿈꾸기 - 부모세상 : 부모고민해결백과, 부모지침, 부모대학, 청소년 문제별 이해

자료출처 : 서울특별시교육청

성우 강수진

“성우는 목소리로 연기하는 사람”

직업만족도가 높은 직종을 꼽으라면 단연 성우다. 일반적으로 선호되는 직업인 의사, 한의사, 판·검사 등의 직업보다 ‘만족도’에서 만큼은 타의 추종을 불허한다. 지난해 한국고용정보원이 759개 직종을 대상으로 직업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성우는 초등학교 교장 뒤를 이어 2위에 올랐다. 그간 여타 조사에서도 항상 인기 직종에 이름을 올려놓을 정도로 성우는 매력적인 직업으로 손꼽힌다. 성우 강수진 씨를 통해 직업세계를 들여다봤다.

성우는 넓게 보면 배우에 속한다. 얼굴을 드러내지 않는 ‘연기자’. 그들은 목소리를 통해 대중과 만나고 호흡하며 TV·라디오·영화 속 등장인물을 소리로 재창조한다. 성우란 직업이 급성장한 시기는 1970~80년대. 당시에는 배우 목소리를 성우가 대신하는 ‘더빙’이 일반적이었고 외화 시리즈가 큰 인기를 끌면서 성우들은 전성기를 누렸다. 특히나 집집마다 TV가 없던 시절, 라디오 드라마를 만들던 성우는 대중을 울고 웃겼다.

성우 강수진 씨는 “목소리로 세상을 그리는 사람”을 성우라고 정의한다. 목소리를 듣는 사람들이 이미지를 떠올리고 상상할 수 있도록 대사를 그려내야 한다는 것. 그는 “목소리가 좋은 사람이 성우가 아니라 목소리로 끊임없이 상상력을 유발하고 이미지를 만들어 내기 위해 연기하는 사람”이라고 설명한다.

치열한 방송사 공채 뚫어야 성우로 입문

현재 성우의 활동영역은 다양하다. 과거보다 시장성이 커졌다기보다는 활동 분야가 더 넓어졌다. 외화와 애니메이션 더빙, 오디오북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TV 예능프로그램에서도 성우들의 활약이 돋보인다. 특히나 IT 기술의 발달로 게임 캐릭터에 목소리를 입히는 등 성우들의 참여가 두드러지고 있다.

그러나 성우가 되는 길은 결코 녹록지 않다. 1~2년에 한 번씩 있는 각 방송사 공채시험에서 치열한 경쟁을 뚫어야 성우로 데뷔할 수 있다. 강수진 씨는 KBS 성우 21기로 데뷔할 당시 250:1의 경쟁률을 뚫고 4년간 전속성우로 활동했다. “지금도 방송사 공채시험 경쟁률이 평균 150:1에



01

01. 강수진 씨는 성우란 직업의 매력에 대해 “목소리를 통해 대중에게 감동과 분노 등 다양한 형태의 감정을 느끼게 한다는 점”이라고 말한다.

이른다.”는 그는 “KBS는 매년 12명씩 뽑고, EBS는 2년에 한 번 한 기수에 4명을 뽑는 등 문턱이 높아 치열할 수밖에 없다.”고 말한다.

그는 서울예술대학교 방송연예과에 진학하면서 방송 전반을 공부했다. 제작과 연출에 뜻을 두면서 연기를 공부했고, 졸업 전 성우 공채시험에 합격했다. 한 번에 합격한 비결에 대해 그는 “연기 공부가 큰 도움이 됐다. 책도 많이 읽고 영화를 자주 봤다. 중학교 방학 때는 친구와 누가 더 영화를 많이 보는지 내기할 정도로 좋아했다.”고 말한다. 그는 성우가 되려면 방송·연기 전공을 택해 연기력을 키우고, 어릴 때부터 책·영화 등을 통해 문화적 경험을 두루두루 쌓는 편이 좋다고 조언한다.

방송사 공채시험에 합격하면 전속성우가 되어 소속 방송사의 TV·라디오 프로그램을 맡게 된다. 강수진 씨는 전속성우로 근무하면서 라디오 드라마를 주로 맡았다. 역사 드라마 속 인물을 연기할 때가 많았는데, 처음엔 행인1, 2와 같은 엑스트라로 시작했다.

“당시에는 라디오 드라마의 인기가 높아서 직장시트콤, 멜로 연속극 등 다양한 작품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이어졌어요. 사람들이 목소리를 듣고 감동과 분노 등 다양한 감정을 느끼고 상상하게 된다는 점이 참 매력적이었지요.”

성우는 특히나 직업만족도가 높은 직종으로 꼽힌다. 지난해 한국고용정보원이 759개 직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서는 초등학교 교장에 이어 2위에 올랐다. 강수진 씨는 성우들 대부분이 원해서 이 길을 선택하고 일 자체를 즐기기 때문에 열정이 높다고 설명한다.

인지도 쌓기까지 10년… ‘좋은’ 목소리보다 ‘개성’ 중요

전속성우 기간이 끝나면 한국성우협회 정회원이 되어 프리랜서로 활동하게 된다. 과거에는 3~4년씩 전속성우 생활을 하기도 했지만, 현재는 만 2년 후에는 의무적으로 프리랜서가 된다. 강수진 씨는 프리랜서 이후 애니메이션 ‘탄마1/2’과 영화 ‘길버트 그레이프’에서 주인공 역을 맡으면서 주목을 받았다. 특히 정신지체 장애를 가진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 역을 훌륭히 소화했다는 평가를 받으면서 수많은

작품에서 러브콜을 받았다. 명탐정 코난, 이누야샤, 슬랩덩크, 원피스 등 애니메이션에서는 ‘A급’ 성우로 자리 잡았다.

“성우는 캐스팅되기 위해 인지도를 쌓으려면 보통 10년 안팎이 걸려요. 일반 배우들은 6개월 만에 대중성을 갖기도 하지만, 성우는 목소리만으로 대중에게 각인돼야 하기 때문에 오랜 시간이 필요하죠. 요즘은 7~8년 정도로 줄었다고 해요.”

인지도를 쌓기까지 긴 시간이 걸린다는 점과 스타의 더빙 마케팅 등으로 입지나 작업환경이 위축되는 건 성우들이 처한 어려움이다. 특히나 수입은 인기도에 따라 천차만별. 역대 연봉부터 몇 십만 원까지 다양하다. 전국 성우 700여 명 가운데 15% 정도만 높은 소득을 얻고 있다고. 앞으로 비전은 어떨까. 강 씨는 “냉정히 말해서 불확실하다. 새로운 콘텐츠를 개발하고 전문성을 키워 더 큰 시장을 개척해야 한다.”고 말한다.

수많은 성우 지원자를 만나 본 그는 성우가 되는 조건으로 ‘개성’을 꼽는다. 목소리에도 트렌드가 있는데 요즘은 좋은 목소리보다 다양성을 갖춘 개성 있는 목소리가 인정받는다는 것. 특히 아이부터 청소년, 20~30대, 노인 등 연령대별로 5개씩 목소리를 낼 수 있어야 한다고 조언한다. 여러 스타와 함께하는 공동 작업이기 때문에 원만한 성격도 중요한 자질 가운데 하나로 꼽는다. ⑦

성우가 되기 위해서는…

성우는 각 방송사의 고유재량으로 선발한다. 보통은 국어 구사와 일반회사 생활을 2년여 간 할 수 있는 대한민국 국적자로 학력과 연령에 관계없이 선발한다. 각 방송사마다 약간씩 다르지만, 보통 3차에 걸친 시험은 연기력 테스트로 이뤄지며 최종 면접으로 마지막 선발된다. 합격이 되면 방송사에서 만 2년간 회사원처럼 전속성우 근무를 하게 되고 2년 후에는 프리랜서가 된다. 전속성우를 선발하는 방송사는 현재(2012년 기준) KBS, EBS, 투니버스, 대교방송, 대원방송 등이며 각 방송국마다 선발하는 시기는 다르기 때문에 해당 방송사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면 된다.

태국 방콕한국학교

소인수 학급으로 ‘학력-인성-가정환경’까지 속속 파악 수준별 맞춤식 ‘한국교육’ 가치 알린다

포천에서 철원으로 넘어가는 43번국도 오른편 언덕 위에 조금은 생소한 이국적 모습의 와트(태국식 불교사원)가 보인다. 가파르고 높은 계단을 올라 정상에 서면 정면으로 ‘타일랜드군 참전기념비’가 웅장하게 서있다. 그 옆에는 참전 용사의 영혼을 달래기 위해 세워진 와트가 있다. 와트 앞에 멈춰서 잠시 묵념을 취해 용사들의 숭고한 죽음에 애도를 표해 본다.

태국은 6.25전쟁 당시 미국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전투 병력을 우리나라에 파병(총 인원 15,708명, 사망 136명, 부상 1,160명)해준 전통적인 우방 국가이다. 1949년 대한민국을 정식으로 승인하고, 1958년 우리나라와 외교 관계가 수립되었다. 태국과 우리나라는 무역협정, 투자정보협정, 과학기술협정 등 다방면의 경제협력을 체결하고 주요 경제협력 파트너로 상호우호를 증진시켜 나가고 있다. 특히 태국은 동남아 ‘한류’의 거점으로 태국인들의 한국 TV 드라마, 영화, 음반 및 게임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으며 최근 각 대학에 한국학 연구소 등이 설립되고 한국어 교육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2012년 기준 태국 내 우리 교민은 약 30,000여 명에 이르고 있으며, 대부분 방콕 인근에 거주하고 있고, 치앙마이, 파타야 등에도 소수가 거주하고 있다. 교민들은 한인회를 중심으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으며, 음식업, 관광업에 종사하는 교민들이 많다. 양국의 상호우호와 증진이 확대되고 있는 지금 한국인의 자부심과 긍지를 키우기 위한 방콕한국학교의 노력이 주목받고 있다.

국적있는 교육, 한국인의 자부심과 긍지를 키우다

방콕 시내에서 차로 한 시간 이상 달리면 넓은 잔디밭과 수려한 정원수들로 이루어진 아름다운 학교가 나타난다.



01



02

01. 수많은 와트(불교 사원)는 태국의 고전건축양식을 보여주는 중요한 문화유산이다.
02. 넓은 잔디밭과 수려한 정원수로 둘러싸인 방콕한국학교 전경

‘방콕한국국제학교’, 2001년 초등학교 과정 19명으로 출발하여 2013년 현재 초등~고등학교 과정에 112명(초등학교 47명, 중학교 35명, 고등학교 30명)의 학생이 다니고 있다. 이 학교를 졸업한 졸업생은 총212명(초등 121명, 중학교 66명, 고등학교 25명)으로 태국에서는 대한민국의 승인을 받은 유일한 한국국제학교이다. 올 2월에 방콕한국학교에 부임한 송의열 교장은 “심는 대로 거둔다는 소신을 가지고 맘을 흘린 만큼, 정을 쏟는 만큼 아이들은 제대로 자란다고 믿고 교육해 왔으며, 맡겨진 위치에서 최선을 다해 교육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교사의 교육활동 지원을 최우선으로 하여 학교 구성원 모두가 행복한 학교를 만드는데 역점을 두고 힘을 쏟겠습니다.”라고 자신의 교육 철학과 앞으로의 학교 경영 방침을 밝혔다. 또한 해외 한국학교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국적 있는 교육’이라고 생각한대며, “다른 국제학교도 마찬가지겠지만 한국인으로서의 긍지를 가질 수 있도록 국적 있는 교육에 최우선을 두고 있습니다. 초등의 경우 국어교육 강화와, 전 학생 태권도 교육 실시를 통해 자긍심을 고취하고 있으며, 중등의 경우 사물놀이 및 전통 국악기 교육을 통해 우리 조상들의 얼과 전통문화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개학식을 대사관이 주최하는 3.1절 행사에 다 같이 참석하는 것으로 시작함으로써 민족의식을 고취하고 있으며, 이 외에도 한민족 백일장 그림 그리기 대회에 많은 학생이 자발적으로 참가하여 대회 진행을 돕고 개·폐회식의 손길 돕기, 행사 후 주변 정리 등의 봉사활동을 통하여 한국인이라는 자부심을 기르는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라고 방콕한국학교의 민족교육 노력을 소개하였



03



04



05



06



07

다. 아이들은 이러한 민족교육을 통해 자신이 한국인이라는 긍지와 자부심을 키워가고 있었다. 박은빈 학생(9학년)은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대부분의 태국인들은 동양인들을 보면 일본인 또는 중국인이라고 생각을 하고 물어왔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한국인인지 물어보는 사람들도 많아졌고 한국인이라고 하면 굉장히 좋아하고, 반갑게 맞아줍니다. 그리고 거리를 지나다닐 때 한국 노래가 들리고, 한국 연예인들의 사진을 볼 수 있을 정도로 한류열풍이 대단합니다. 태국의 대학교에도 한국어학과가 많이 생기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 보니 태국사람들 중에 한국어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점점 늘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사실을 보면서 우리나라에 대한 인식이 점점 좋아지고 있다는 생각을 하고 한국인으로서의 긍지와 자부심을 느끼고 있습니다.”라고 자신이 한국인임을 자랑스럽게 이야기했다.

한국 교육과정 반영한 수준별 교육 실현

방콕한국학교는 한국과 거의 같은 수업일수와 수업시수,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모든 교과에서 수행평가를 30% 이상 실시하고 있으며, 예체능 교과의 경우 100% 수행평가로 학생 활동 중심의 평가를 시행하고 있다. 또한 거의 대부분의 학생들이 한국으로 대학 진학을 하고 있어, 여기에 대비한 다양한 상담 및 지원 대학 특성에 맞는 모의 면접 등을 준비하여 진로지도를 강화하고 있다. 이 학교의 장점 중 하나가 학급별 학생수가 10명 내외라는 것이다. 그렇다 보니 학생과 교사, 가정을 연계한 맞춤형 수준별 교육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송 교장은 “1학년부터 12학년까지 매 학년의 학습 결과

가 차기 학년과 연계되어 학생별로 맞춤식 수준별 교육이 실시되고 있습니다. 학력은 물론 가정환경, 인성까지도 정확히 파악되어 학생들이 바람직한 인간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책임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라고 방콕한국학교의 맞춤식 수준별 수업에 대해 소개하였으며, 교사들 또한 가정과의 연계 교육을 중요시 하여 부모님과의 상담 기회를 열어 두고 가장 일순위로 시간을 안배하고 있는 열정을 보여주고 있다. “부모님께 아이들이 배워야 할 학습내용을 각 과목별로 단원별 안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교육 내용뿐만 아니라, 왜 그것을 배워야 하는지, 지향하는 가치는 무엇이며 가정에서 실천해야 할 일은 무엇인지를 적어드립니다. 어떤 부모님들은 아이들의 교육에 대해서 한국에 비해 다양한 정보와 안목을 갖추기가 어렵기 때문에 가정에서 어떻게 지도해야 할지 난감해 하시기에 제가 갖고 있는 책을 입도록 권유하였고, 『생각공유』라는 학급편지를 발행하여 보내드렸습니다. 이와 함께 보다 긴밀한 연계를 위해 가정을 방문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부모님과 대화를 나누고 난 후 아동에 대해 더 깊은 책임감과 애정을 갖게 되었습니다.”라고 서혜미(3학년 담임교사) 교사는 자신의 가정연계 교육 활동에 대해 소개하였다. 이러한 맞춤형 교육은 아이들의 학력 신장뿐 아니라 인성 발달에도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

“이곳 아이들은 비스킷 한 개를 5조각으로 나누어 주어도 ‘감사합니다.’라고 허리 숙여 인사합니다. 어른들에 대한 예의를 지킬 줄 알며, 나누고 아끼는 것이 몸에 배어 있습니다. 지난 번 우리 반 아이 한 명이 전학을 가게 되었는데 9명의 친구들이 눈이 빨갛게 붓도록 울었습니다. 어

떤 아이가 다치거나 아프면 자기 일인 것처럼 아파하고, 반 아이가 상을 받으면 마치 자기 일인 양 기뻐하며 박수를 쳐 줍니다. 동고동락이 몸으로 배어 있습니다.” 서혜미(3학년 담임) 교사의 말이다. 이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은 너나할 것 없이 방콕한국학교에 다니면서 가장 좋은 점을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모두 한 학교에서 생활하며 친구, 선배와 후배가 오랜 시간 동안 친하게 지낼 수 있습니다. 덕분에 전교생이 모두 함께 사이좋고 가족같이 지낼 수 있다는 점이 행복하고 행운인 것 같습니다.”라고 이야기 할 정도로 학교에 대한 애정과 신뢰가 두텁다.

글로벌인재 키우는 방콕한국학교의 도전은 계속된다

방콕 등 태국 내 주요도시에는 영미계 등 80여 개의 초·중등 국제학교가 운영 중에 있다. 이들 국제학교 중에 대한민국정부의 인가를 받은 유일한 한국국제학교는 방콕 한국학교뿐이다. 하지만 태국에 있는 한인들의 자녀 중에 1/10 정도만이 방콕한국학교에 다니고 있는 실정이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슴 아픈 현실이 아닐 수 없다.

송 교장은 자신이 학교장으로 재직하고 있는 동안 꼭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에 대해 “우리 학생들이 자랑스럽게 방콕 한국학교의 교복을 입고 방콕 시내를 활보할 수 있는 학교를 만드는 것입니다.”라고 자신의 포부를 밝혔다. 우수한 교사진의 확보, 쾌적한 주변 환경에 걸 맞는 교실 현대화 사업 등 타 국제학교와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교육환경 개선 추진이 시급한 실정이다. 학교 자체에서도 다른 국제학교에 뒤처지지 않도록 영어와 태국어 시간을 풍부하게 확보하여 글로벌 시대에 적응할 수 있는 인재 양성을 위해 외국어 교육에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있으며, 다양한 방과 후교육 활동을 통해 학생들이 1인 1악기, 1인 1자격증 갖기 교육의 일환으로 골프, 검도, 미술, 가야금 등 특기를 살릴 수 있는 지원을 하고 있다. 또한 매달 영어경시대회, 모의토플시험 실시 등을 통해 학생들의 어학 관련 자격증 취득에도 도움을 주고 있다.

한국과 태국의 우호관계가 강화되고, 태국 내 한류열풍이 확대되고 있는 지금 태국 속에 한국을 알리는 방콕한국학교의 땀과 열정이 식지 않고 계속되기를 기대해본다. ㉠

친구야, 우리 같이 놀래?

교사라면 새 학년이 되어 담임을 맡게 되었을 때 올해는 아이들과 무엇을 하면서 재미있게 지내볼까하는 고민을 하게 마련이다. 새내기 교사는 물론이고 노련한 교사도 새로운 아이들을 만날 때 마다 드는 걱정일 것이다. 그래서 이것저것을 해 보는데 그리 실통치 않아 ‘뿌린 대로 거둔다.’라는 말이 맞나 싶을 때가 있다.

필자도 발령 초기에는 아이들과 레크리에이션(게임)을 주로 하면서 나름 재미있게 보냈는데 갈수록 회의가 들기 시작했다. 교사가 주체가 되어 게임을 이끌다보니 지치기도 할 뿐더러 소재도 바닥이 나고 재미가 없어진 것이다. 그러던 중 전래놀이를 접하게 되었는데 그때 뒤통수를 한 대 얻어맞은 것 같은 충격(?)을 받았다. 윷놀이, 제기차기 같은 것만 생각하고 있었는데 어릴 적에 “정자야, 밥 먹어라” 하고 엄마가 부를 때까지 친구들과 줄기차게 놀았던 놀이들이 어느새 내 몸을 움직이고 있었다. 아, 그래 이런 놀이들이 있었지! 그 후 학급 운영의 중요 꼭지를 ‘전래놀이’로 하고 지금까지 담임 할 때마다 아이들과 노는데, 항상 뿌린 것보다 더 많은 것을 거두게 된다. 그 중에서 몇 가지를 소개해 보고자 한다.

뿌린 것보다 더 많은 것을 거두는 ‘전래놀이’

우선 쿵각지 놀이는 고학년을 맡을 때마다 하는 놀이로 ‘마니또’ 놀이라고도 한다. 놀이 방법은 반 전체 이름을 쪽지에 써서 통에 넣고 한명씩 다른 친구 이름을 뽑는다. 이때 뽑힌 사람은 ‘쿵’이 되고 뽑은 사람은 ‘각지’가 된다. 모두가 참여하기 때문에 나는 ‘각지’인 동시에 누군가의 ‘쿵’이 되는 것이다. 일주일 동안 쿵이 모르게 도움을 주고 일주일 후 이야기를 통해 누구인지 밝히면 놀이가 끝난다. 이 놀이 핵심은 내 쿵이 누구인지 놀이가 끝날 때까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알게 되더라도 모른 척 해준다는 것이다.

고학년이 되면 학급에 따돌림 문제가 있기 마련인데, 쿵각지 놀이가 이 문제를 스스로 사라지게 만든 적이 많다. 한번은 쿵각지 놀이의 마지막 날, 공부 잘하고 리더십도 있는 한 여학생이 그동안 감기에 걸려 힘들었는데, 각지가 14통의 안부 편지와 비타민을 보내주고, 서랍도 정리해주어 고마운데, 누구인지 모르겠다고 했다. 그 각지는 바로 따돌림 당하고 있는 남학생이었다. 그 여학생뿐 아니라 필자와 아이들 모두 놀라서 ‘어머나!’를 연발했었다. 이후 그 남학생은 친구들과 잘 어울리게 되었고, 아



01. 전래놀이를 통해 즐거운 학급을 이끌고 있는 양정자 교사



02. 교과서에 자주 등장하는 고누놀이는 종류에 따라 난이도가 달라 저학년 부터 고학년까지 모두 즐길 수 있다.

사람들과 가장 쉽게 친해지는 방법은 함께 노는 것이다. 놀이라는 소통의 장을 열어 주면 우리 아이들은 어른들이 걱정하는 문제들을 그들 스스로 해결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믿는다.

이들이 원해서 쿵각지 놀이도 학년말까지 계속되었다. 교사가 따돌림 시키면 안 된다고 귀에 딱지가 앉도록 부르짖어도 쉽사리 해결되지 않던 문제를 아이들이 놀면서 자연스럽게 해결한 것이다.

다음으로 한번 빠지면 헤어내기 힘든 진놀이가 있다. 두 편(한 편에 8~10명)이 진(나무, 기둥 따위)을 정하고 10m 정도 거리를 두고 선다. 진에서 늦게 나온 아이는 먼저 나온 아이를 잡을 수 있고 잡힌 아이는 포로가 되어 상대편 진지에 잡힌다. 잡힌 아이를 손으로 쳐 주면 그 아이는 자기 진지로 돌아올 수 있고 상대편을 모두 포로로 만들거나 상대편 진을 치면 이기게 된다.

편을 가르는 놀이를 할 때, 아이들은 친하거나 잘하는 친구들끼리 하려고 실랑이를 한참 벌인다. 평소 얌전하고, 못 어울리고, 움직임이 둔한 친구들은 별로 의욕도 없이 멀뚱히 서 있는 경우가 많다. 자기편이 질까봐 어느 편에도 끼워주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다. 진놀이는 수비, 공격 등의 역할이 있기 때문에 적극적인 사람은 주로 공격을 하고 조금 소극적인 사람은 수비를 하면 된다. 모두 저마다의 역할이 있어서 그 역할을 잘 수행하면 이길 수 있다. 처음에는 놀이 규칙을 잘 몰라 헤매던 아이들이 점점 이 놀이에 빠지게 되면 누구 하나 소외되지 않고 하나되어 치밀하게 움직이는 것을 볼 수 있다.

천안의 독립기념관으로 체험학습을 간 적이 있다. 휴식시간에 우리 반 전체가 기념관 입구의 큰 기둥을 진 삼아 진놀이를 했었다. 딱히 할 게 없어 몰려든 다른 반 아이들과 선생님들의 부러움을 사서 내심 흐뭇했던 기억이 생생하다.

모두가 하나되어 놀이에 빠진다

놀이방법이 어렵지 않고 3~4학년이 즐겨할 수 있는 놀이로 8자, 삼팔선, 산가지 등도 아이들이 좋아하는 놀이들이다.

교과서에도 자주 등장하는 고누는 호박고누, 바퀴고누, 줄고누, 꽃고누 등 다양한 종류가

있는데 인터넷에서 게임으로 접할 수 있을 만큼 많은 이에게 익숙하다. 이 놀이는 종류에 따라 난이도가 달라 저학년부터 고학년까지 모두 즐길 수 있다.

학교라는 곳에 처음 들어와서 아직 규칙의 필요성보다는 자기중심적 사고가 강한 1학년들은 우기기, 고집 부리기, 떼쓰기 등의 자기 감정에만 충실해 다른 친구와 다룰 때가 종종 있다. 그 때마다 선생님은 타이르기, 혼내기, 겁주기 등으로 응대하는데 아직 어린 아이들인지라 선생님의 말씀에 대한 이해보다는 감정이 앞서 돌아서면 그만인 경우가 많다. 그래서 1학년을 맡으면 어려움을 호소하는 선생님을 자주 본다. 물론, 필자도 처음 1학년을 맡았을 때 꼬맹이들이 버겁고 힘에 부쳤다. 호박고누와 바퀴고누, 줄고누는 방법이 어렵지 않아 1학년도 곧잘 한다. 처음 고누를 할 때 상대방에게 말(바둑알)을 따 먹혔는데도 안 주겠다고 우기는 아이, 졌다고 우는 아이, 말을 던지는 아이 등 아이들의 반응이 다양하다. 규칙을 아는데 인정하지 못해서 나오는 행동이다. 그러나 고누 놀이를 계속 하다보면 진 것을 인정하고 고누판을 들여다보면서 침착하고 신중하게 말을 움직이는 것을 볼 수 있다. 주기적으로 고누대회를 열면 아이들의 실력도 좋아지고, 놀이도 지속적으로 이뤄지는 효과가 있다. 놀이할 때의 긍정적인 태도가 점점 생활 속에 자연스럽게 스며들어 평상시에 우기거나 떼쓰는 경우가 현저하게 줄어들게 되었다.

고누 놀이뿐만 아니라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얼음땡’, ‘색깔 찾기’, ‘달팽이 놀이’ 등도 놀이 규칙이 간단하고 움직임이 많아 저학년 아이들이 무척 좋아한다. 실 하나만 있으면 미술사가 되는 실뜨기 놀이 역시 아이들이 열광한다. 지금 대한민국의 30대 이상의 여성에게 실 하나를 건네면 저절로 돌이 하는 실뜨기를 할 수 있을 것이다. 서로 모르는 사람끼리 해도 방법은 같다. 그만큼 전국적으로 잘 알려진 놀이다. 요즘은 창의력 신장 등의 이유로 실뜨기 놀이 책이 시중에 나와 있는데 순서에 따라 연습하면 혼자서도 척척 할 수 있다. 실뜨기는 혼자서 할 수 있는 종류가 훨씬 많은데 아이들은 마치 미술사가 된 것 마냥 좋아한다.

함께 놀며 성장하는 아이들

우리가 어떤 것을 알게 되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잊어버리기 쉽다. 그러면 내가 아는 것을 더 오래 잘 알고 싶으면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 바로 다른 사람에게 내가 알고 있는 바를 가르쳐 주는 것이다. 어려운 수학 문제 푸는 방법을 다른 친구에게 여러 번 가르쳐 주다 보면 그 문제만큼은 나중에도 쉽게 풀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다. 내가 만들 수 있는 모양을 여러 친구들에게 계속 가르쳐 주다 보면, 나만의 노하우가 생기고 어느 틈에 몸에 배게 되어 십년이 지나도 그 모양을 만들 수 있게 된다.

실뜨기 놀이를 하면서 남자 아이가 이런 말을 하는 것을 들었다.

“나는 처음에 공부 잘하는 애들만 잘하는 줄 알았어.” 라고.



03. 산가지놀이

03. 사람이 가장 쉽게 친해지는 방법은 함께 놀이를 하는 것이다. 색종이로 개구리를 접어 놀이 삼매경에 빠진 아이들

공부를 별로 잘 못해서 많이 위축되어 있었는데 실뜨기를 굉장히 잘해서 공부 잘하는 애들의 실뜨기 선생님이 된 아이였다.

실제로 공부 잘하는 아이들이 실뜨기를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손이 뻣뻣해서 그렇기도 하고 평소에 연필 말고는 손을 움직여서 하는 활동을 별로 안 해본 아이들이 대부분 그렇다. 또한 아이들은 하다가 방법이 틀려서 다른 모양이 나왔을 때 실망하기보다는 그 모양에 따라 나름대로의 이름을 붙이며 자기가 만든 거라고 자랑하기도 한다. 그러는 사이에 새로운 작품이 탄생하기도 한다. 실뜨기 놀이를 할 때는 여기저기서 꼬마 선생님들의 진지한 목소리가 가득하다.

내가 어릴 때에는 동네 언니, 오빠들과 서로 어울리다 보니까 저절로 놀이를 익히게 된 것이지 학교에서 선생님께 배운 기억은 없다. 놀면서 자연스럽게 사회성도 길러지고 규칙도 배우면서 더불어 살아가는 소중함을 알게 된 것 같다. 추억을 먹고 산다는 말처럼 어른들은 가끔 힘들 때 어릴 적 놀았던 추억으로부터 위로를 받기도 한다.

그런데 요즘엔 어른들보다 하루 일과가 바쁜 아이들이 많다. 학교 수업을 마치고 학원 가고, 늦은 저녁에 돌아와서 학습지하고 인터넷 수업 듣고... 심심할 틈이 없다. 조금 남은 시간은 컴퓨터 게임이나 휴대전화만 만지작거린다. 그런데 즐겁지가 않단다. 왜냐하면 친구들과 놀 시간이 없으니까. 그래서 친구 만나러 학원 다닌다는 아이들도 있다.

초등학생 나이에 친구들과 노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인데 이런 시간을 많이 갖지 못하는 것이 매우 안타깝다. 서로 소통의 기회가 적으니까 남을 배려하는 마음도 부족하고, 어떻게 돕고 지내야 하는지 모르기에 따돌림 문제도 생겨나는 것 같다.

사람들과 가장 쉽게 친해지는 방법은 함께 노는 것이다. 놀이라는 소통의 장을 열어 주면 우리 아이들은 어른들이 걱정하는 문제들을 그들 스스로 해결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믿는다. ⑤

서대문형무소역사관

독립과 민주 향한 역사 속으로

서울 서대문구 현저동에 있는 서대문형무소는 1907년 일본이 애국지사를 투옥하기 위해 건립한 곳이다. 독립과 민주를 향한 투쟁의 역사가 고스란히 남아있는 곳이기도 하다.

일본은 최초 약 5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감옥으로 지었으나 1919년 3·1 만세독립운동을 계기로 대규모 신축을 단행, 지금 현재의 모습을 갖추게 됐다. 광복 직전까지 수감된 인원은 3천여 명. 1945년 광복을 맞이하기까지 수많은 독립운동가가 모진 고문과 박해를 받으며 목숨을 잃었다. 광복 후에는 독재정권에 맞선 민주화 운동가들을 투옥하고 고문하는 곳으로 쓰이다가 1988년 지금의 역사관으로 재탄생했다.

국가사적으로 지정해 옛 건물 원형 보존

서대문형무소는 1988년 국가사적(제324호)으로 지정돼 옛 건물 원형이 그대로 보존돼 있다. 현재는 옥사, 중앙사 등 15개 동 가운데 7개 동만이 옛 모습 그대로 남아 있는데, 망루가 서 있는 입구를 지나 정면으로 보이는 역사관은 옛 보안과청사 건물이다. 1923년에 지어져 사무 공간, 회의실, 소장실, 취조실로 사용됐던 이곳은 서대문형무소의 과거와 현재를 한눈에 살펴볼 수 있는 전시관으로 꾸며져 있다. 특히 눈길을 끄는 건 독립운동가 수형기록표. 민족저항실Ⅱ관에는 서대문형무소에 투옥됐던 류관순 열사를 비롯한 애국지사 5천여 명의 수형기록표가 벽면을 가득 메우고 있다.

일제의 탄압 실상을 그대로 보여주는 건 지하고문실이다. 몸을 거꾸로 매달고 고춧가루 물을 붓는 물고문, 손톱 아래로 뾰족한 나무를 찌르는 고문, 안쪽에 뾰족한 못을 뺄곡히 박은 상자에 사람을 넣고 흔들어 못에 찢리게 하는 고문 기구는 독립운동가 취조 과정에서 자행됐던 각종 무자비한 폭행을 여실히 드러낸다. 특히나 관 모양의 좁은 공간에 사람을 오랫동안 감금해 놓고 앓을 수도, 움직일 수도 없는 고통을 주는 기구 ‘벽관’은 당시 일제의 고문이 얼마나 잔혹했는지를 다시 한 번 일깨워 준다.

역사관을 나와 관람 동선을 따라가면 옥사 전체를 감시하고 통제하던 중앙사를 만난다. 간수들의 사무공간으로 쓰이던 이곳은 제10·11·12옥사를 부채꼴 모양으로 연결해 감시 기능을 최대화했는데, 수감생활에 대한 기록과 수감자들의 식사, 의복, 생활 모습을 그대로 전시해 놓고 있다. 감방 일부가 개방된 11, 12옥사 안으로 들어가 보면, 수감자 40~50명을 수용했던 좁은 감방도 볼 수 있다. 수감자들은 누울 공간이 부족해 조를 짜서 교대로 잠을 잤을 정도로 수감생활이 매우 열악했음을 짐작케 한다.

이들은 일본의 강제 노역에 동원돼 하루 10~14시간 이상은 노동에 시달렸는데, 공작사는 수감자가 강제로 일하던 곳이다. 주로 옷감과 의복을 만들던 이곳에서는 일제가 2차 세계대전을 일으킬 당시에는 군수용품을 만들었다. 공작사에는 노역 기록 영상과 관련 유물들이 전시돼 있다.



02



03



04

01. 옥사 내부. 감방 일부가 개방된 11, 12옥사 안으로 들어가 보면, 수감자 40~50명을 수용했던 좁은 감방을 볼 수 있다.

02. 서대문형무소 전경

03. 사형장

04. 전시실

1시간 관람 코스 역사공원… 사형장·시구문 등 그대로

관람 동선을 따라 독립운동가들의 넋을 기리는 추모비(민족의 혼 그릇)를 지나면 5m 높이의 담장으로 외부와 철저히 격리된 목조건물이 모습을 드러낸다. 1923년 지어진 사형장 건물이다. 원형 그대로 보존된 이곳 건물에서는 그간 수많은 독립투사와 민주화 운동가들이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다. 사형장 앞에 심어진 ‘통곡의 미루나무’에는 사형장으로 끌려가던 애국지사들이 이 나무를 붙잡고 원통함을 토해내며 통곡했다는 이야기가 전해지는데, 애국지사들의 애끓는 심정을 현재까지도 대변하고 있다.

일제는 독립운동을 사형시킨 후 외부에 그 사실을 은폐하고자 했었는데, 시신을 바깥으로 몰래 반출하기 위해 뚫어 놓았던 비밀통로가 시구문이다. 현재는 사형장 옆에 40m 길이로 복원해 놓은 시구문이 관람객을 맞고 있다.

2011년에는 격벽장과 여옥사가 새롭게 복원됐다. 격벽장은 수감자들을 분리 수용해 운동시켰던 시설로, 당시 수감자들을 얼마나 철저히 통제했는지 단편적으로 보여주는 곳이다. 이곳에서는 수감자 상호간에 대화를 방지하고 감시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여러 개의 칸막이벽(격벽)을 만들어 놓은 모습을 볼 수 있다. 여성 독립운동가를 수감하기 위해 지어진 여옥사는 류관순 열사가 순국한 곳으로 그 의미가 남다르다. 김태동 서대문형무소 학예연구사는 “한국 근·현대사의 격변기에 서대문형무소가 자리하고 있다. 최근 역사의식이 문제가 된 청소년들에게 꼭 권하고 싶은 체험 장소”라며 “지난해는 157만 명이 이곳을 다녀갔다. 그중 외국인이 10%인데, 일본인이 절반 정도를 차지한다. 국내외에 올바른 역사를 전하는 역할도 담당하고 있다.”고 말한다.

최근에는 역사·문화 일일 체험프로그램을 새롭게 선보였다. ‘뮤지엄 토요 행복 놀이터’는 4월부터 11월까지 매월 둘째, 넷째 토요일에 초등학교생을 대상으로 운영된다. 8월에는 ‘근대사 연표 책 만들기’(8/10), ‘대한독립만세! 조명등 만들기’(8/24)가 진행될 예정(체험비 7,000원 재료비 별도). 이외에도 연 1회 성인 대상 교양강좌와 청소년 대상 연간 2회(횟수 당 10회씩) 교육 프로그램도 운영 중이다. 여름·겨울방학 청소년 역사캠프도 인기. 김태동 학예연구사는 “체험 프로그램을 앞으로 더욱 확대할 예정이다. 또한, 백범김구기념관과 안중근의사기념관 등 여타 현충시설과 협력망을 구축해 다양한 체험코스도 개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위 치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일로 251
(3호선 독립문역 5번 출구)

관람시간 | 여름철(3~10월) 09:30~18:00 /
겨울철(11~2월) 09:30~17:00

* 매주 월요일(공휴일에는 그 다음날), 1월 1일, 설날, 추석날 휴관

관람코스 | 전시관-중앙사-12옥사-11옥사-공작사-한센병사-추모비-통곡의 미루나무-사형장-시구문-옥사터-격벽장-여옥사-망루와 담장-취사장(전시실·뮤지엄샵)(약 1시간 소요)

관 람 료 | 어른 1,500원 / 청소년·군인 1,000원 / 어린이 500원

홈페이지 | www.sscmc.or.kr

전 화 | ☎ 02)360-8590~1

푸른 것과 푸른 것 사이

대관령 목장

푸른 것과 푸른 것 사이에 서보라.
푸른 하늘과 그것과 맞닿은 푸른 초원이 점점이 스며들어
내 안을 물들일 것이니.
이곳에 서면 나는 곧 자연이다.
끝없이 펼쳐진 초원 위에 청량한 바람결이 일렁이는 곳,
강원도 평창으로 떠나보자.

평창은 동계올림픽, 설원, 눈꽃 등의 이미지와 겹쳐지면서 겨울철 손꼽히는 명소로 이름나 있다. 하지만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한여름에 평창을 찾으면 이곳의 진가를 다시 한 번 느낄 수 있다. 대관령 고지대에 서서 자연이 주는 천연바람을 맞으니 폐부 구석구석을 맑게 행귀내는 기분이다. 광활한 목초지에서 한가로이 풀을 뜯는 젖소와 양떼 등을 볼 수 있는 곳이 양떼목장, 에코그린캠퍼스(구 삼양대관령목장), 돈키호테 등이다.

목가적인 풍경에 취하다

양떼목장은 약 6만2천여 평의 푸른 초지에 200여 마리의 하얀 양들이 뛰노는 목가적인 풍경을 볼 수 있는 곳이다. 대관령옛길이라 불리는 구 영동고속도로를 오르다 양떼목장이라는 이정표를 따라 들어가면 알프스의 전경이 눈앞에 펼쳐진다. 평창의 대관령 양떼목장은 우리나라에서 유일한 양 목장이다.

양떼목장은 대관령 정상에 위치하고 있어, 태백산맥의 웅장한 자태와 목장 산책로의 아기자기한 모습이 한 폭의 그림을 연상케 한다. 양떼들이 넓은 초지에서 한가롭게 풀

- 01. 해발 1천 미터를 넘나드는 높고 넓은 초원에 서면 가슴이 뻥 뚫리는 기분이 든다.
- 02. 한 폭의 그림 같은 양떼목장

02



01



03. 새하얀 풍차가 이국적인 분위기를 뽐낸 풍경다.
04. 05. 다양한 체험학습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당나귀목장
06. 몽환적인 분위기를 자아내는 월정사 앞 계곡
07. 월정사 경내

을 뜯고 있는 풍경이 그야말로 장관이다. 이곳은 원래 풍 전목장이라는 이름의 양 목장이었는데, 모 드라마가 촬영 된 후 사람들에게 알려지면서 이름을 대관령 양떼목장으로 바꾸고 관광목장으로 탈바꿈했다.

목장을 한 바퀴 돌며 양떼를 볼 수 있는 산책로가 이어 지는데 약 40분~1시간 정도 소요된다. 입장료 대신 받고 있는 건초 값을 내면 양들에게 직접 건초를 먹여주는 체험 도 할 수 있다(www.yangtte.co.kr).

하얀 바람개비가 돌고 도는 바람, 바람...

규모 면에서는 삼양대관령목장이 으뜸이다. 동양 최대의 목장임을 자랑하는 이곳은 최근 에코그린캠퍼스로 이름을 바꿨다. 600여만 평의 초지목장에는 해발 850~1400m의 높은 지대에 900두의 육우와 젖소가 있다. 서울 여의도의 7.5배이고 남한 전체 면적의 1/5000 규모다.

초지개발은 1972년에 개시되어 1985년에 이르러 현재 목장의 모습이 완성되었다. 고랭지에서 겨울의 눈과 높은 기온차를 이겨내는 양질의 풀 '리드 카나리그라스'와 '티모 시'가 성공적으로 자라나 농약 살포 없이도 무공해 목초를

제공하게 된 것이다.

워낙 넓은 탓에 1년이 가도록 소의 발자국이 한 번도 지나지 않은 초지가 도처에 널려있어 봄이면 얼레지가 지천 이고 가을에는 구절초가 군락을 이룬다. 게다가 국내 최대의 풍력발전소까지 들어서서 거대하고 새하얀 바람개 비가 낮선 이국의 향기를 더하고 있다. 이런 풍경 탓에 수많은 영화와 드라마의 배경으로 등장해 초원 곳곳에 촬영지 안내문이 내걸려 있다. 또한 소들의 목마름을 달래 기 위해 조성해 놓은 삼정호에는 천연기념물 원앙이 노닐고 있어 방문객의 눈을 한 번 더 즐겁게 해준다(www.samyangranch.co.kr).

다양한 체험학습 프로그램을 원한다면 대관령당나귀목장 돈키호테가 있다. 이곳은 2만여 평으로 다른 목장에 비해 규모는 작지만 동물과 직접 교감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다. 아기동물체험학습장을 조성해 놓아 송아지, 양, 당나귀, 토끼, 닭, 거북이, 진돗개, 고슴도치 등의 아기동물들을 직접 만지면서 먹이도 줄 수 있다. 또 조류장이 여러 곳에 설치되어 있어 공작, 금계 오리 등을 살펴볼 수 있고, 언덕 위에 설치된 십자매, 앵무새의 둥 관람관에서는 바로 눈앞에서 웅기종기 모여 앉아있는 조류를 만날 수 있

다. 다만, 유아와 동물이 한데 섞여있는 상황에서 안전설비나 안전요원이 부재해 비상사태에 대한 대응대책이 미흡해 보인다(www.donkey.or.kr).

천년의 전나무 숲길에서 삼림욕

대관령 목장에서 시원한 초록 바람에 흠뻑 취했다면, 오대산국립공원 품에 안겨있는 월정사에서 정갈한 풍경소리도 한번 들어볼 일이다.

강원도 평창군 진부면 동산리 오대산 동쪽 계곡에 자리 잡고 있는 월정사는 사철 푸른 침엽수림에 둘러싸여 고즈넉한 아름다움을 띤다. 월정사 앞으로 흐르는 맑고 시원한 계곡은 폭이 넓고 물이 많아 선녀들이 내려올 듯 신비롭다. 이곳에서 상념을 벗고 열목어가 헤엄치는 모양을 그저 한없이 바라보고 있어도 좋겠다.

월정사를 품고 있는 오대산은 자연 조건이며 풍광이 빼어나 달 뿐더러 예로부터 오만 보살이 상주하는 불교성지로 신성시되어 왔다. 오대산의 중심 사찰로서 신라 때부터 지금까지 1400여 년 동안 개산조 자장율사에서부터 근대의 한암, 탄허스님에 이르기까지 많은 이름난 스님들이 월정사에 머물렀다. 특히 입구에는 하늘을 향해 쪽쪽 뿜은 전나무 숲길

이 이어져 있는데, 이곳은 우리나라 3대 전나무 숲 가운데 하나로 꼽힌다. 전나무에서는 피톤치드와 음이온이 가득 뿜어져 나와 삼림욕에도 제격이다. 월정사 숲길을 걸으며 더위를 잊는 것도 새로운 피서법이 되지 않을까 싶다.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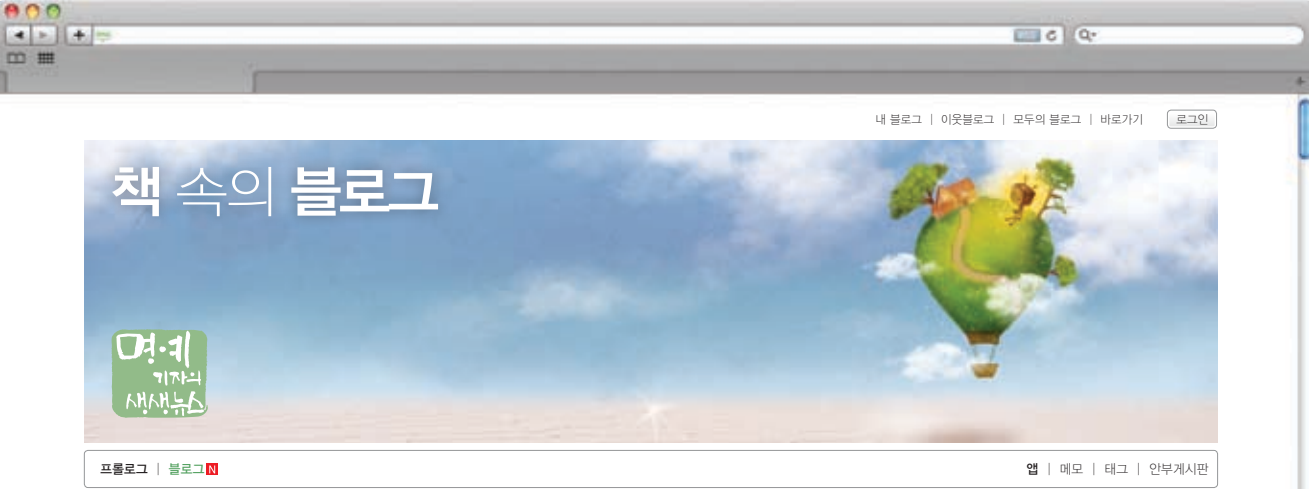
월정사 코스

코스1 월정사 매표소 - 오대산 사고터 : 1시간 25분

월정사 매표소를 지나 조금 더 가면 월정사 일주문이다. 일주문으로 들어서 전나무 숲길을 따라가면 월정사 경내다. 월정사를 둘러본 뒤에 천왕문 앞에서 오른쪽 길로 경내를 빠져나 가서 큰길을 만나면 오른쪽으로 간다. 이후는 외길인데 월정사 부도밭을 지나 2.8km 정도 가면 삼거리가 나온다. 길가에 영감사 표지판이 있다. 영감사로 가는 왼쪽 길로 들어가면 오대산 사고터다.

코스2 오대산 사고터 - 상원사 : 1시간 35분

다시 영감사 입구 삼거리로 내려와서 왼쪽 길로 간다. 이후는 외길이다. 상원사 입구에서 왼쪽으로 조금 들어가면 상원사다. 상원사에서 산길을 따라 40~50분 정도 산행을 하면 적멸보궁이다. 상원사부터 적멸보궁까지는 표지판이 잘 되어 있어서 표지판을 따라가면 된다.



 당신이 한 권의 책임니다
부산진고 1학년 7반, '사람책'을 대출하다

지난 6월 20일 저녁 7시 10분, 어느 때 같으면 장마철의 눅눅한 더위로 야간자율학습 분위기가 술렁거릴 시간. 부산진고 도서관에서는 쿨하고도 이색적인 풍경이 펼쳐졌다. 6개의 원탁에 삼삼오오 둘러앉은 학생들은 탕글탱글한 긴장감과 설렘 속에서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었다. 원탁 중앙에는 사람책 ○○○이라는 팻말이 놓여있었다. 잠시 후 팻말 속에 쓰인 사람책 8권이 입장하자 학생들은 우레와 같은 박수 소리로 그들을 환영했다. 사람책은 자신의 이름이 있는 테이블로 안내되었다.

오늘의 행사는 1-7반 담임이 학생들의 독서교육을 위해 오랜 시간 공을 들여 제작한 프로그램인 <리빙 라이브러리>다. 책 대신 사람을 빌려 읽는 살아있는 도서관. 대출자는 1-7반 학생들이며 교장 선생님, 교감 선생님을 포함한 이 학교 교사 8명이 사람책이다.

반장 박산하 학생이 오늘 행사의 개요를 발표하자 다시 한 번 박수가 터졌다. 2000년 덴마크의 사회학자 토니 에버겔이 창시한 이 프로그램은 원래 비행청소년을 선도하고자 기획된 것인데, 다양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과 대화를 통해 편견을 없애보자는 발상으로 시작되었다고 한다. 누구나 인생살이는 한 권의 책으로 엮을 수 있다. <리빙 라이브러리>는 사람도 한 권의 책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을 실천에 옮긴 것이다. 독자들이 읽고 싶은 책을 도서관에서 빌려 읽듯, 읽고 싶은 사람을 책처럼 대출해 읽는다는 것인데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대화하고 소통하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01. <리빙 라이브러리>는 다양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과 대화를 통해 편견을 없애보자는 발상으로 시작됐다.

서로 잘 알지 못해 가질 수밖에 없었던 타인에 대한 편견과 선입관, 고정관념을 줄이자는 의도로 기획된 행사이다.

사람책 8인을 만나 인생을 듣다

이 행사를 위해 1-7반 학생들은 약 한 달 전부터 우리 학교에서 가장 대출하고 싶은 목록 8권을 구성했다. 그리고 같은 책을 빌리고자 하는 급우들끼리 묶어 그룹을 만들었다. 그룹당 세 권까지 빌릴 수 있고 한 권을 빌려 읽는 시간은 30분으로 정했다. 30분이 지나면 다음 목록으로 이동하기로 하였다. 그런 다음 담임교사는 사람책들을 일일이 섭외하여 취지를 알리고 만나줄 것을 정중히 부탁했다. 왜 학생들이 그 책을 대출하고 싶어 하는지, 그 책에서 무엇을 읽고자 하는지 약간 귀띔하기도 하였다. 다행스러운 것은 이 행사에 사람책으로 선정된 선생님들이 무척 좋아했다는 점이다. 대출희망자가 가장 많았던 조상희 선생님은 사람책으로 선정된 만큼 대출시간 내에 들려줄 이야기



를 공들여 준비했다고 한다. 애초 야간자율학습 시간에 맞춘 제한된 대출시간에도 불구하고 첫 타임에는 사람책과 대출자들의 대화가 끊기지 않고 계속되었다. 책도 대출자도 대화에 몰입했다. 평소 수업시간에는 나누지 못했던 이야기들이 실타래처럼 술술 풀려나왔다. 개인적인 관심에서부터 해당 교과목에 대한 공부 방법, 슬럼프 극복법, 젊은 시절이야기, 삶의 지향점, 그를 변화시킨 책 한 권 추천, 진로에 대한 두려움 극복기, 꿈을 이루는 방법 등 대출자의 수만큼 다양한 질문이 쏟아져 나왔다.

진로의 산 경험을 나누다

KWL 활동지와 소감문에서 학생들은 오늘의 행사에서 무

02.03. 책 대신 사람을 빌려 읽는 살아있는 도서관에서는 교장·교감을 포함 교사 8명이 사람책이 되어 아이들에게 인생 이야기를 들려줬다.

엇을 느꼈는지를 깨알같이 써내려갔다. 이 활동에 참가한 차승규 학생은 그가 대출한 책들이다 이런 부제를 달았다, '읽으면 비로소 보이는 것들', 'a giving tree', '수학의 정석-반복편'. 이번 행사를 주관하고 사람책으로 선정되기도 한 담임인 필자는 한 대출자의 질문 '올해의 목표는 무엇인가?'에 이렇게 답했다. 올해 목표는 1-7반 아이 한 명 한 명에게 추억과 스토리를 만들어주는 것이라고. 진로에 대해서는 '좋아하는 일을, 잘할 수 있는 일을, 그리고 공동체에게 도움을 주는 보람된 일'을 하라고 덧붙였다.

한편, 사회 담당인 정주혜 선생님은 화가로서의 꿈과 실패, 재수시절 이야기와 난관의 극복 사례를 통해 진로의 산 경험을 나누기도 했다. 김경환 학생은 '교장 선생님을 전체 조회하실 때만 봐왔기에 어떤 분일까 궁금했었는데 마주 보고 대화를 할 수 있었다는 자체가 신기했다. 인생에 도움이 될 만한 이야기를 나눠주셔서 조금

더 가까워진 것 같다.'라고 적었다. 사람책으로 선정되었다는 것만으로도 자부심을 느낀 선생님들은 이런 행사가 매우 값지고 보람 있는 경험이었다고 말한다. 한편, 필자는 2학기에는 외부에서 다양한 경험을 가진 사람책으로 다문화가족, 자원봉사자, 외국인, 고교학자 등을 섭외해서 다리역할을 할 계획이다.

삶의 고비에서 힘이 드는가? 자신의 청춘 한자락에서 방황하고 있는가? 손에 책이 잡히지 않는가? 바로 사람책을 대출하라. 삶의 지혜가 걸여 들어올 것이다. 진지함과 감동과 추억이 남는 행사라고 적혀 있는 후기에서 보인다. 

글·사진 김서영 명예기자(부산진고 교사)



NEWS BRIEFING

08 2013

직무발명 역량을 갖춘 예비 기술전문가 양성사업

교육부와 특허청은 특성화고와 마이스터고 학생이 문제해결력과 지식재산 창출역량을 가진 창의인재로 육성될 수 있도록 특성화고·마이스터고 학생팀이 제안한, 공정·제품 등의 혁신 아이디어에 대해 특허출원 등 권리화를 지원하는 '직무발명 역량'을 갖춘 예비 기술전문가 양성사업'에 참가할 35개의 학생팀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동 사업은 '11년 시범사업 추진 시, 선정된 아이디어 20건 모두에 대해 특허출원을 완료하였고, 작년에는 30건 전원 특허출원 완료와 함께 그 중 4건은 협력기업에 기술이전을 하는 성과를 거둔 바 있어, 상산전자고 학생팀이 새실산업에, 울산마이스터고 학생팀 3팀이 각각 JM모터스에 기술이전할 예정이다.

올해부터는 직업교육을 총괄하는 교육부와 지식재산권을 총괄하는 특허청이 함께 추진하여, 보다 전문적인 교육과 권리화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올해에는 작년(518개)보다 더 많은 560개 팀이 공모하였다. 생명을 구하는 프로펠러(삼일공업고-엘림시스), 냄새제거 시스템 스멜클린(충북반도체고-아이씨디) 등 협력기업이 제안한 과제에 대한 혁신 아이디어와 중간소을 줄일 수 있는 벽지(대진디자인고), 리듬페이스(서울여자상업고), 납땜용 배선 샤프(원주의료고), 동박면 스티커(인천전자마이스터고) 등 학생들이 현장실습이나 일상생활 등에서 접하는 제품 등에 대한 혁신 아이디어 등 독창성과 권리화·사업화 가능성이 높은 35개팀(마이스터고 18개팀, 특성화고 16개팀, (구)종합고 1개팀)의 아이디어를 선정하였다.

이번에 선정된 35개 학생팀에게는 소양캠프와 변리사 등 전문가의 온라인 지도·찾아가는 컨설팅 지원을 통해, 제안한 아이디어가 특허·실용신안으로 출원될 수 있

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기업 관계자와 기술이전 상담 지원과 '직무발명 경진대회'(13. 11월) 개최를 통해 특성화고·마이스터고 학생이 제안한 아이디어가 산업현장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국가전략산업 분야 마이스터고 선정 추진

교육부는 국가·지역 전략산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조기 기술인재를 양성할 제8차 마이스터고 선정을 위한 설명회를 최근 개최했다.

금번 제8차 마이스터고 선정은 창조경제 구현과 경제부흥을 위해 국가적으로 조기 인재육성이 필요하다고 각 부처에서 판단하여 요청한 소프트웨어(미래부), 조선해양플랜트(산업부), 해외건설·플랜트(국토부), 식품/중자생명(농식품부)의 5개 분야에서 우선 추진하게 된다.

또한, 각 지역별로 주요 전략산업에 대해 개별학교가 교육청 및 지자체 등과 협의 후 마이스터고 지정 신청을 하는 경우, 해당 분야 소관부처의 의견조회 요청 등을 거쳐 선정을 검토할 예정이다. 이번 선정심의를 통해 제8차 마이스터고로 선정된 학교에 대해서는 관계부처가 관련 산업과 연계하여, 교육과정 및 학교개편 등 개교준비-운영-취업-성과관리 등 전 분야를 지원하게 된다. 또한 올해 교육부에서 개교준비 기반 조성을 위해 25억 원을 지원하고, 시·도의 해당금액에 대한 대응투자 지원과 함께, '14년부터는 관계부처에서 별도의 예산 확보를 통해 지원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을 통해 제8차 마이스터고 지정협의 신청서를 10월 18일(금)까지 접수하고, 관련부처와 공동으로 '마이스터고 지정·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서면·현장 심의 등을 통해 마이스터고 선정·심의의견에 부합하는 학교를 결정하여 12월 중 발표하기로 하였다. 금번에 지정되는 학교는 관련부처의 지원 등을 통해 1년

여의 개교준비 기간을 거쳐, 2015년 3월에 마이스터고로 개교하게 된다.

과도한 학부모 개인정보 수집 관행 개선 추진

교육부는 학생들 간의 위화감 조성 방지와 학부모의 개인정보보호 강화를 위해 '과도한 학부모 개인정보 수집 관행 개선 사항'을 마련하여 시·도교육청에 안내하였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개인정보보호법(2011년 9월 시행) 시행 이후 '개인정보 업무처리 사례집' 등을 통해 학부모의 신상정보(생활수준과 월수입, 재산, 직업, 직장(직위), 학력 등) 수집을 최소화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학교에서는 아직도 신학기 초가 되면 각종 조사서식을 이용하여 학부모 신상정보를 관행적으로 수집해 오고 있어 학부모들의 심리적 불편과 우려를 사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에 따라 교육부에서는 시·도교육청과 함께 개인정보 수집실태를 조사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학생들 간의 위화감 조성을 예방하고 학부모의 불필요한 우려(직업, 소득 등으로 인한 학생 차별 등)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교육부가 시·도교육청과 함께 추진하고자 하는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필수기재 방식에서 학부모의 판단에 따라 작성토록 하는 소통형 자율 기재방식의 수집양식을 권장하여 필수기재에 따른 학부모의 거부감과 우려를 불식시킬 예정이다. 둘째, 연수를 강화하여 학교 현장에서의 개인정보에 대한 의식전환을 추진한다. 셋째, 학교 현장의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킨다. 교육부는 향후 교육부 정보보호교육센터의 교육프로그램(집합교육, 사이버교육 및 찾아가는 연수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교육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글_ 이수연 명예기자(충북 연수초 교사)

※ 『행복한 교육』 웹진(<http://happyedu.moe.go.kr>)에서 명예기자의 생생한 교육이야기를 더 많이 보실 수 있습니다.

청소년 병영체험기(김민주) / 지적장애인 자립생활을 위한 원예활동 프로그램(김원형) / 광주 '5.18 Rred Festa' 현장을 가다(나상호) / 2013 한문화제 한 지킴이 전국대회(백석원) / 우리땅 손레 황강(심재근) / STEAM 수업으로 농촌교육의 벽을 넘다(이규배) / '학습플래너와 창의·인성 교육 도구 활용 워크숍' 현장(이수연) / 우주과학, 농업, 해양 등 무료 맞춤형 캠프 안내(이원범) / 속속들이 알아보는 홀스쿨링 이야기(하주형)

* 행복한 교육 웹진(<http://happyedu.moe.go.kr>) → 독자의 소리 → 명예기자 현장리포트

NEWS BRIEFING

082013

사립대학 투명성 및 책무성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교육부는 사립대학의 재정·회계 투명성 및 책무성 강화를 위해 「사립학교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사립대학 재정·회계 지표」를 개발하여 공시하는 등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외부회계감사에 대한 감리 실시요건 및 감리결과조치 등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고, 공인회계사를 감사로 선임해야 할 학교법인의 범위 확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사립학교법 시행령」 개정안이 7월 24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13. 1. 23에 개정·공포된 「사립학교법」 후속조치로서 사립대학 재정·회계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사립학교법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① 외부회계감사에 대한 감리실시요건 및 감리결과조치 규정 마련 ② 공인회계사를 감사로 선임해야 할 학교법인의 범위 확대 ③ 외부 감사증명서 제출 의무화 부분이다. 또한, 사립대학 재정·회계의 건전하고 투명한 운영을 유도하고, 운영 현황에 대한 정보를 학생 및 학부모 등 수요자에게 제공하기 위해 「사립대학 재정·회계 지표」를 개발하여 공시할 예정이다. 지표는 3개 분야(교육투자, 재무안정성, 법인책무성), 9개 지표(학생 1인당 교육비, 교육비 환원율, 장학금 지급률, 이월금 비율, 등록금 의존율, 부채비율, 법인전입금 비율,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율, 학교운영경비 부담률)로 구성하고, 각 지표는 5등급으로 구분하게 된다. 사립대학 재정·회계 지표는 현재 운영 중인 대학알리미(academy info.go.kr)의 별도 페이지에 공시하여 학생과 학부모들이 대학의 재정·회계 수준을 상시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한편, 이 지표는 현재 시안으로서 대학, 관련단체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하반기 중에 확정하여 사용할 예정이다. 아울러 2014회	계연도부터 예·결산 시 학생이 30% 이상 참여하는 등록금심의위원회의 심사·의결을 반드시 거치게 된다. 학교법인은 예산을 편성·집행함에 있어서 이월금을 최소화하도록 하고 재정규모에 비하여 이월금이 과다한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이 시정 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게 된다. 이외에도, 대학 재정·회계 운용에서의 불법·부당 행위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예술중점고 ‘청소년예술축제’ 개최 교육부는 최근 전국의 예술중점고등학교 재학생 500명을 대상으로 색다른 여름 캠프 ‘청소년 예술 축제’를 개최하였다. 예술중점학교는 일반 중·고등학교 학생 중 예술에 관심과 소질이 있는 학생들에게 특성화된 예술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전국의 23개교에서 음악, 미술, 공연, 영상의 3개 분야로 2011년부터 지정·운영되고 있다. ‘청소년 예술 축제’는 현 시대가 요구하는 창의성 배양을 위해 미국의 시각디자이너 모르튼 가르치크(Morton Garchik)이 주창한 ‘창의적시각발상법’을 모든 프로그램에 도입하였다. ‘청소년 예술 축제’는 고등학생들이 대학생 멘토들과 함께 참여하는 예술 캠프로, 국민대학교 기숙사에서 숙박하면서 강의실, 공연장, 갤러리, 학생식당 등 대학 시설들을 이용하며, 〈감놀 콘서트〉, 〈우리들의 희노애락 콘서트〉, 〈자화상그리기〉, 〈Future 연극! 우리가 만드는 미래〉 등 다양한 예술프로그램을 직접 참여·체험하였다. 그리고 ‘청소년 예술 축제’의 모든 프로그램은 공동 창작활동 등의 협업과정을 통해 바른 인성 및 사회성을 함양할 수 있도록 10명이 1조가 되어 50개의 새로운 창작물을 발표하였다. 또한 국민대 연극영화과 학생들의 연극 ‘모범생’과 음악대학의 축하공연을 통해 다른 장르에 대한 공연관람 기	회가 적었던 학생들에게 다양한 장르의 공연을 즐길 수 있는 기회까지 제공하였다. 교육부, 학생오케스트라 지도교사 역량 강화 연수 교육부는 최근 경기도 일산에 위치한 우리인재원에서 2013년 학생오케스트라 신규 운영학교 지도교사 100명을 대상으로 ‘2013년 학생오케스트라 지도교사 역량강화 연수’를 실시했다. 본 연수는 학생오케스트라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 및 사업 이해도 제고, 지도교사 간 협력 네트워크 구축을 목적으로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학장이자 사업단장인 김영률 교수를 비롯하여 김덕기(지휘), 전상직(작곡), 최경환(기악) 등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교수진이 직접 강의를 진행했다. 특히 이번 연수는 2013년 신규로 선정된 학생오케스트라 운영학교를 대상으로 지난 5월 말부터 7월 초까지 진행된 현장 컨설팅에 이어 학생오케스트라 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 무엇보다 학교현장에서 학생오케스트라를 직접 이끌고 있는 담당교사의 역량 강화에 초점을 맞추었다는 데에 큰 의미가 있다. 학생오케스트라 사업은 학교 내 음악활동을 통해 예술교육 활동에 대한 친밀감을 높이고, 학생들의 음악적 소질과 적성을 계발하는 것을 도울뿐 아니라, 합주를 통해 자연스럽게 상호배려와 협동심, 자신감, 성취감 등을 경험하면서 학교와 학생들 모두에게 만족감을 가져다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번 연수에서는 ‘편곡의 기초’와 ‘사보법’ 등 오케스트라 지도를 위한 음악적 기초와 편곡의 실재를 다루며 ‘오케스트라 지휘법 개론 및 실재’로 학생오케스트라를 위하여 편곡된 악보를 중심으로 하는 ‘악곡적용 지휘강의’, ‘지휘 실습 및 리허설’ 등으로 지휘 역량 강화를 위한 핵심적 내용들을 심도 있게 다뤘다. 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학	교에서 오케스트라를 지도하는 담당교사들의 현장 적응성을 고려, 서울대 음대생들로 구성된 오케스트라가 연수에 참여하여 이론교육과 분반실습을 통해 익힌 지휘 테크닉을 직접 시연해 보고 지도를 받았다. 또 연수 기간 중에는 전국에서 모인 지도교사들이 다양한 운영 사례와 정보를 공유하는 소통의 시간을 마련하여 보다 내실 있는 학생오케스트라 사업의 안정적 정착 방안을 논의했다. 대학 입학전형료 반환 사유·방법 등 구체화 추진 교육부는 대학 입학전형료(이하 전형료) 반환 사유 및 방법 등 「고등교육법」(’13.5.22. 공포) 위임사항을 구체화하는 내용의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및 「학교입학수험료징수규정 전부개정안」	을 최근 입법 예고하였다.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의 주요 내용은, 대학의 장은 응시자가 전형료를 과납한 경우에는 초과 납부한 금액을, 대학의 귀책 또는 천재지변으로 입학전형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에는 전형료 잔액을, 단계평가에서 최종 단계 이전에 불합격한 경우에는 불합격 이후 단계에 소요되는 금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또한, 지출하고 남은 전형료 잔액을 결산을 종료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반환하여야 한다. 전형료 반환 대상자는 학교를 방문하거나 금융전산망 등을 통해 해당 금액을 반환받을 수 있다. 다만, 전형료 반환 대상자가 금융전산망 등을 통해 반환하기를 원하는 경우 대학의 장은 금융수수료 등을 차감하여 잔액을 반환할 수 있으며, 금융수수료 등이 반환할 금액과 같거나 초과하면 반환하지 않을 수 있다. 반	환하지 않은 금액은 다음 학년도 입학전형 관련 지출로 사용하여야 한다. 아울러, 대학의 장은 국가유공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경제적 사정이 곤란한 자 등 대학의 장이 인정한 자에 대하여 전형료를 면제하거나 감액할 수 있다. 한편, 전형료를 결정할 때 기준이 되는 전형료 관련 수입과 지출항목 등을 규정하기 위해 ‘학교입학수험료징수규정’을 「입학전형료 수입·지출의 항목 등에 관한 규정」으로 전부 개정한다. 동개정안은 입법예고 등 관련 법령개정 절차를 거쳐 개정 ‘고등교육법’이 시행되는 11월 23일부터 시행되며, 금년 정시모집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앞으로 동 개정안이 확정되면 대학별 입학전형료가 합리적인 수준에서 결정되고 전형료 면제, 반환절차 등을 통해 전형료 운영방식도 투명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②
FTA 전문인력 ‘원산지관리사’ 특성화고에서 육성 교육부와 관세청(청장 백운찬)은 최근 서울세관에서 교육부 차관과 관세청장이 참석한 가운데, FTA 관련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FTA 전문교육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우리나라는 ’13. 6월 현재 46개국과 9개 FTA를 발효하고, 총 교역의 34.8%를 FTA 발효국과 교역 중으로, FTA를 활용한 교역의 중요성이 점차 증대되고 있으나, FTA마다 서로 다른 원산지 관리, 이를 담당할 전문인력이 부족하여 기업들은 FTA 활용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직업교육을 총괄하는 교육부와 FTA 전문지식을 보유한 관세청이, FTA 체제에 적합한 품목분류·원산지 관리·원산지 사후 검증 등에 대한 지식과 실무능력을 갖춘 전문인력인 원산지관리사의 체계적인 육성을 위해 협력하기로 하였다. 구체적으로 양 기관은 ① 특성화고를 대상으로 FTA 전문교육을 시행하고 고용을 지원한다. 올해 하반기부터, 관세청이 특성화고 학생 250여 명을 대상으로 FTA와 원산지 관리사 자격취득에 필요한 전문지식 중심의 실무교육을 제공하고, 채용보조금 지원 등 기업과 고용매칭을 지원하기로 하였다. ② FTA 교육 거점 특성화고를 지정하고 교육과정을 개설한다. 내년부터는 관세청이 정부부처 연계형 특성화고 육성사업의 일환으로, ‘FTA 교육 거점 특성화고’를 지정하여 원산지관리사 취득을 위해 필요한 교육과정 개설 및 관세전반에 대한 전문교육 시행과 표준교재 개발·보급 등 체계적인 교육을 지원할 예정이다. ③ 교원을 대상으로 FTA 관련 전문성을 배양한다. 교육부와 관세청은 FTA 관련 교육과정을 가르칠 교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현직교사를 대상으로 직무연수를 시행하고, 해당 직무연수 이수자가 우선하여 관련 교과를 지도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④ 전문대학에도 FTA 교육을 지원한다. 전문대학 수준의 인력 양성을 위해, 관세청이 무역관련 특성화 전문대학에 FTA강의 개설을 지원하고, 고용매칭도 지원하기로 하였다. 교육부와 관세청이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부처간 칸막이 없이 FTA 전문교육 강화방안을 함께 추진하기로 함에 따라, 기업이 FTA 활용의 애로사항으로 제기했던 전문인력 부족의 문제를 해소하여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기여하고 특성화고에서 전문자격인 원산지관리사를 육성하고 기업과 매칭을 통해 취업을 지원함으로써, 고졸취업의 질을 높임과 동시에 교육-자격-일 연계를 통한 능력중심사회 구현의 모범사례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된다. ②					



“다양한 직업세계 보여주는 지면 필요”

김시혁(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1. ‘행복한 교육’을 읽게 되신 동기는 무엇인가요?

학원에서 성인들에게 세무회계를 가르치고 있다. 우연한 기회에 주민센터에서 『행복한 교육』을 접하게 됐고, 그걸 계기로 지금은 매달 찾아 읽고 있다. 하는 일과 직접 관련은 없지만, 늘 초등학교에 다니는 두 아이들에게 무심했던 것을 반성하여 『행복한 교육』을 읽고 있다. 그동안 몰라서 놓친 교육정보들이 많이 있는데, 이 책을 꾸준히 읽으며 공부해야겠다.

2. 지난 7월호에서 가장 인상 깊게 보신 코너는 무엇인가요?

‘중학교 자유학기제’를 다룬 기획 원고를 관심있게 읽었다. 올해 초등 6학년인 아이가 곧 경험하게 될 일이다보니 자연스럽게 읽게 됐다. 미디어를 통해 접한 자유학기제는 ‘실패’에 가까운 정책이었다. 준비단계가 너무 짧아 실패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컸던 걸로 기억된다. 그런데 학창시절 다양한 진로체험을 하고 그것이 계기가 되어 지속적으로 꿈을 구체화하는 계기가 된다면 기대해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3. 아쉬움이 남거나 개선했으면 하는 부분은?

7월호 표지 사진에 푸릇푸릇 새싹의 웃음이 담겨있어 너무나 밝고 활기차다. 책을 보는 순간 모든 스트레스가 다 달아나 버린 듯하다. 개선할 점이 라기보다는 하나의 안건을 제시한다면, 학업에 지친 학생들이 밝게 웃을 수 있게, 학교 내의 재미있는 일화를 소개하는 코너가 있으면 좋겠다. 일방적 통행보다는 많은 독자가 참여하는 교육 잡지가 되기를 바란다.

4. 앞으로 담았으면 하는 내용은 무엇인가요?

다양한 직업세계를 보여주는 지면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다. 아이들이 알고 있는 직업세계가 생각보다 많지 않다. 많이 알려지지 않은 이색 직업도 좋고, 또 아이들이 선호하는 직업도 좋겠다. 원하는 꿈을 얻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기울여야하는지 고민하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오자만담

포기하고 싶을 때 나는 ○○○○○한다.

누구에게나 위기의 순간이 있습니다.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는 노하우를 재치를 담아 다섯글자로 표현해 주세요. 보내실 때는 이름, 연락처, 주소를 꼭 기입해 매달 20일까지 보내주세요. 보내실 곳 eduzine21@gmail.com(gmail은 수신확인 서비스 제공되지 않습니다.)

지난호 오자만담 당첨자 7월호 주제 : 독도는 우리들의 ○○○○○이다.

역사지킴이(조혜정) / 희망보물섬(김태임) / 빛나는등대(정승환) / 수산물보고(우윤숙) / 희망에너지(조원표)

박세현 교사의 ‘경제탐험대’ 관련 기사를 보면서 학창시절을 떠올렸다. 학창시절, 어려운 개념들을 암기하면서 굉장히 힘들게 배웠던 기억이 있다. 현실적으로 ‘돈’이라고 하는 지금 수단은 실생활과 너무나 가깝기 때문에 제대로 쓰고, 관리하는 일이 무척 중요하다. 하지만 경제교과서만으로는 합리적인 소비자가 되기 위해 필요한 돈을 버는 방법, 사용하는 방법, 절세하는 방법 등을 제대로 배우기 어렵다. ‘경제탐험대’는 학생들이 실제 금융상품자가 되어 상품을 개발하는 과정을 경험하면서 경제교과서에서는 배울 수 없는 진짜 경제를 배운다는 생각을 해보았다.

이상은 | 행복한 교육 모니터단

김윤기 연구사의 ‘기 살리는 생활지도’를 관심있게 읽었다. 학교폭력의 원인을 제노비스 신드롬과 연결하여 설명한 글이 재미있었다. 일이 커지기 전에 담임교사가 학교 폭력문제를 파악하기는 쉽지 않다. 원인에서 끝나지 않고 구체적으로 책임자를 지정해주라는 해결책을 제시해 준 점이 좋았다. 개인적으로는 담임교사뿐 아니라 전문상담 교사들과 함께 협력하여 학교폭력 문제를 해소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최현정 | 행복한 교육 모니터단

그동안 ‘자유학기제’에 대한 긍정적인 입장이었지만 어떻게 체계를 잡아갈 것인가 걱정이 많았다. 인천 부평동중 이승순 선생님의 말씀처럼 자유학기제가 실패하면 그냥 제도의 실패로 그치지 않고 공교육의 위기가 될 것이기에 모두가 심혈을 기울이고 있음을 느낄 수 있었다. 특히 외국의 사례는 자유학기제의 긍정적인 효과 및 여러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는 토대로 작용한 것 같다. 덴마크의 애프터스쿨은 우리나라의 방과후학교와 유사한 기능을 한다고 생각한다. 자유학기제 기대해 본다.

임여진 | 행복한 교육 모니터단

행복한
대한민국을 여는

정부 3.0

국민의 기대와 희망을 모아 정부3.0이 새로운 변화를 시작합니다.
개인의 행복이 커질수록 함께 강해지는 새로운 대한민국
그 희망의 새 시대를 정부3.0이 함께 열어가겠습니다.

“정보의 개방과 공유로 일자리는 늘고 생활은 편리해집니다”

